현대불교

제 796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2010년 8월 11일 수요일 (음력 7월 2일 · 불기 2554년 · 주간)





이슈와 제안

군부대 이전

군법당 어디로?

군법당 국유재산… 개인 원력에 기대
종단 관심 지원 필요하지만 대안 없어

7월 말 서울 특수전사령부 군법당인 호국사자사에서 여름불교학교가 열렸다. 이날 여름불교학교에는 100여 명의 어린이가 모였다. 아이들뿐만이 아니다. 군포교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호국사자사는 일반사찰인 불광사에 이어 지역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신도가 등록돼 있다. 이 법당의 일요법회에는 참석하는 평균 민간인 신도 수가 장병들의 수를 훌쩍 넘는다. "집 앞이라 호국사자사에 매주 부모님과 함께 와요."(우승현 · 14)

이날 여름불교학교에 참석한 아이들 10명 중 대부분은 군법당에 오게 된 계기가 가깝고 쉽게 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도심 사찰이 부족한 불교계 상황에서 도시 내 부대의 군법당이 일선 포교당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특전사는 2012년 경기도 이천으로 이전 계획이 추진 중이다. 지역 군법당이 부대 이전으로 사라지면 이 신도들은 어디로 갈까?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자광)는 7월 23일 출범 6주년을 맞았다. 군종특별교구가 출범하며 군포교 현장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군법당, 군법사들이 교구라는 편제 하에 조직화가 됐고 종단의 체계적인 관리 속에서 400여 법당이 신축, 개보수 됐다. 현재 군포교의 숙원사업인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신축불사에도 40여 억원이 넘는 성원이 모이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들어 가속화되고 있는 군부대 이전과 합병 등에 따른 군내 많은 부대 군법당이 지어진 후에도 법사 파송 이 월활치 못해 운영에 애로점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신도조직이 활성화된 도심지의 대규모 군법당의 부대 이전 이후 운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군부대가 이전하면 부지는 매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종교시설 등은 별도로 취급되는 것이 아닌 토지 위주로 감정 평가 후 매각절차를 밟는다.

국방부 시설기획관실은 "군법당을 비롯한 종교시설은 기부체납인 경우가 많다. 기부체납 후에는 국유재산"이라며 "현재 주요도심지에 위치한 부대부지는 관계법상 국유재산권처분법으로 공공이익의 목적에 의해 대부분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실시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난개발을 막고 공원 등 민간 수요에 맞춰 부지를 활용한다는 정책 하에서다.

이러한 정책으로 도심지 법당으로서 기능을 상실했던 경우가 공군사관학교 군법당이었던 보라매법당(성무호국사)이다.

1971년 공군사관학교 사관생도들의 신행도량으로 설립된 공군 최초 군법당인 보라매법당은 1986년 공군사관학교가 청주로 이전하자 서울시에서 인수, 체육시설로 사용되는 등 시련을 겪었다. 1996년 공군복지단이 다시 군종교시설로 인수했지만 법당은 오랜 세월 방치된 상태였다. 이후 군종교구가 출범하며 교구와 주지 법사들의 노력으로 2004년 중창불사가 완료된 보라매법당은 현재 5000가구가 넘는 신도들의 도량으로 활성화됐다. 보라매법당의 경우와 같이 도심지 군법당의 경우 대형 사찰로의 성장가능성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이러한 가능성에도 그동안 종단 측은 인수 등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 입구에 자리한 충정사는 신도들의 노력으로 사찰로의 사격을 유지한 경우다.

1980년 수도방위사령부 군법당으로 세워진 충정사는 1991년 수도방위사령부가 남현동으로 이전할 때 그대로 남았다. 이후 서울시는 한옥마을을 조성하면서 충정사를 보존했으며 사찰부지가 남산1호 터널 직선화 사업에 포함돼 철거가 불가피해지자 예비역장성불자연합회가 기부체납한다는 조건으로 임대했었다. 이후 임대료 연체 등의 문제로 연합회에서 몇 종단에 사찰 인수 등 문제해결을 요청했다.

'남산골 한옥마을'이 내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필수 관광코스로 인기를 모으는 상황에서 포교자원으로의 활용가능성이 충분했지만 종단은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현재 성불회는 5억여 원의 임대료를 완납했으며, 인제 영시암 회주 도윤 스님이 주지로 매주 활발한 신행 프로그램이 진행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과 신도단체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많은 자금과 정치적 영향력이 필요한 인수과정상 임대형식을 띄고 포교라는 본연의 역할에 나서기에 벽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지가와 임대료 상승 등을 감안해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면으로 계속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참 나' 찾아 떠나는 여행 전주 '참좋은 우리절'(주지 회일)은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불교문화체험학교를 개최했다. '참 나를 찾아서'를 주제로 7월 30일~8월2일까지 열린 불교문화체험학교에서는 어린이 자비명상, 열반체험 등을 통해서 참다운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애니메이션 시청, 경전 독송 등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시간과 발우공양, 탈 만들기, 연등 만들기, 운력 등 사찰문화 체험과 풍물놀이, 솟대 만들기를 통해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 포크댄스, 레크레이션, 실내 운동회 등 재미있는 놀이 프로그램으로 유익하고 신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문수 스님 추모 학술대회 열려

소신공양 · 4대강 사업 등 13일 토론

'조계종 문수 스님 소신공양 추모위원회'는 8월 13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문수 스님 추모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주제발표자로는 박경준 동국대 교수('소신공양의 의미'), 이도흠 한양대 교수('4대강 사업의 본질, 무엇이 문제인가'),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사회불평등의 정책적 요인'),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부정부패와 시민의 자율적 개입')이 참석한다.

토론자로는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표 퇴휴 스님과 유정길 에코붓다 공동대표, 최연 불교문화연구원장,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가 참석한다. 조동섭 기자

"개신교는 불교 폄훼 멈춰라"

조계사신도회 신도총회서 강력 대응 결의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죽어가는 뭇생명을 살리고자 소신공양한 문수 스님을 추모하고 소신공양의 의의와 4대강 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하는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개신교계의 불교 폄훼 근절을 위해 조계사 신도회가 발 벗고 나섰다.

조계사신도회(회장 이연숙)는 8월 1일 제1차 신도총회를 열고 개신교에의 불교 폄훼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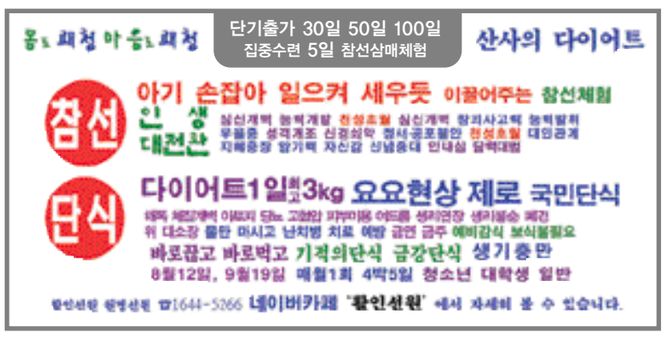
이날 회의에서 조계사 신도들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7월 중순 각종 일간지에 게재한 '종교계는 국민혈세로 종단 운영을 중단하라'는 광고를 불교 폄훼 행위로 규정했다. 이어 조계사 신도들은 불교 폄훼 및 종교간 갈등 조장 행위 중단과 전통문화에 대한 정당한 예산집행 축소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개신교계가 불교계의 문화재보수 및 템플스테이 국고지원예산을 국민 혈세 운운하며 지적한 것에 대해 조계사 신도들은 "교과부가 지방교육청을 통해 '재정결함보조'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의 68%가 개신교계 종교사학에 편중되고 있다"면서 "불교계의 문화재보수예산은 100% 문화재유지보수에만 사용되나 개신교 사학에 지원되는 금액은 인건비로 선교행위에 국고보조금을 쓰고 있는 셈"이라고 응수했다.

주지 토진 스님은 "타종교에 대한 배려 없이 악의적인 비방을 앞세우는 개신교의 작태를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다"며 "불교계의 자성과 적극적인 활동으로 종교 갈등 조장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사신도회는 결의 촉구에 이어 종교편향 행동지침을 공포하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종교편향 행위를 조계사 신행상담실을 통해 접수받아 종단차원의 대응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일간지에 소액 광고를 통해 개신교 불교폄훼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조동섭 기자

12 선지식을 찾아서–문인 스님
3 유신론 100년–만해의 수행
6 21세기와 만해–만해
10 기획–종교와 시민사회
14 기획–한나무 교사연수



새 연재–한국불교 승려열전, 인물로 본 일본불교 15면



석길암
한국불교 승려열전



원영상
인물로 본 일본불교

만해 스님은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거름이 된다고 했습니다. 옛 사람들을 만나 오늘을 돌아보려 합니다. 석길암(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교수), 원영상(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두 젊은 불교학자가 번갈아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름휴가로 이번 호 24면 발행합니다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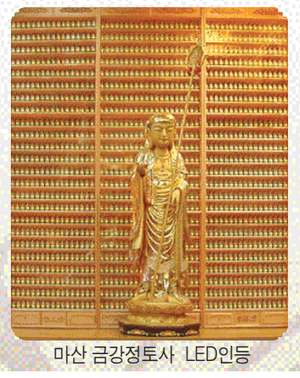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찬덕불교가 개발한
영구위패
LED 인등
LED 전구


영가등



왕생극락접등

※ 백중을 맞이하여 영가등 · 왕생극락접등 주문 받습니다.

불교(佛敎)에서의 백중일 유래(由來)는 효성이 지극한 목련비구(目蓮比丘)가 자옥에 떨어진 모친(母親)의 영혼을 구제하기 위해 오미(五味)를 가진 음식과 온갖 과실(果實)을 갖추어 부처님께 공양(供養)을 했다는 〈우란분경(盂蘭盆經)〉이라는 불경(佛經)의 이야기에서 연유(緣由)합니다.

아름다운 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종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1. 내열 ABS
내열특성 : 연화점온도가 100-120 ℃로 우수한 내열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화점이란 (물질이 가열하여 변행되는 온도)
충격특성 : 내열성과, 내충격성 등의 물성 발란스가 우수하다.

2. 경제성 비교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3. 기존 전구에 비해 잘 깨지지 않는 재질의 커버적용으로 파손의 위험이 적다.
4. 발열이 적어 기존 전구처럼 뜨겁거나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5. 전기료가 절감 되고 교체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찬덕불교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공고 : 찬덕불교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연경사회문화정책연구네트워크 김영국 운영위원

"정책대안 제시하는 단체 절실"



대안 없는 목소리는 힘 없다

정부 종교 · 문화정책 분석 · 비판

"불교계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불교를 비롯한 종교의 정책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단체가 절실합니다. 현안대응에만 급급해서는 불교계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

불교계 연구네트워크가 창립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연경사회문화정책연구네트워크(이하 연사연)는 최근 개신교계 단체의 불교 폄하 광고를 반박하고 종교사학 예산지원 현황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모습을 드러냈다. 연사연은 7월 22일 발표에서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종교사학 예산지원 현황을 분석하고, 현행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현황을 밝히는 등 구체적인 연구 데이터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영국(사진) 운영위원은 "불교신도와 일반 대중들에게 예산 지원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서 알리고,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과 책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종교사학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 단순히 종교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 운영에 관한 정책 등에 대해서도 언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영국 운영위원은 "종교사학에 지원되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 정당하게 지원받고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며 "개신교 사학 예산 지원이 많이 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비를 선교행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연사연은 올해 초 봉은사 사건과 관련해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강남좌파주지 축출 발언 이후 900여 불자들이 조직한 불교자주실천운동본부에서 비롯됐다. 불교자주실천운동본부는 대중운동을 펼칠 예정이었으나 사회문화정책연구조직으로 설립 방향을 전환했다. 대중운동은 참여불교재가연대, 대한불교청년회, 불교연대 등에서 활발히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경사회문화정책연구네트워크'는 해인사 연경당에서 이름을 빌렸다. '부처님 경전을 정성들여 손수 연구한다'는 뜻과 함께 경제, 사회문화 전반을 불교계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한다는 뜻이다. 종교사학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에 이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등 정부기관의 종교계 예산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대부분의 정부부처에 대한 분석 보고를 전개해 나간다. 예산 지원 뿐 아니라 종교계 지원시 집행 명목과 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보고서를 제출한다. 보고서는 발표회를 열거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정책적 대안에 대한 토론도 진행하게 된다.

현재 법타 스님을 고문으로 김영국, 서동석, 박종화, 이희선, 이영근, 김윤길, 이남재, 조환기, 송세언, 장성준, 이호윤, 우병기 등 12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됐다. 또 스님, 교수, 국책연구기관 준공무원 등으로 연구원을 영입한 상황이다. 연사연은 9월 중 교육과학부 예산과 정책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결과를 발표함과 동시에 창립식도 계획하고 있다.

연사연은 불교계라고 무조건 지지와 옹호,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가 아니다. 김영국 운영위원은 "불교계에서도 문화재 관련 예산을 개인의 이욕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될 때에는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사연은 사회 각 분야에서 불교에 관심 있는 이들이 네트워크를 이뤄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김영국 운영위원 등 불교계, 정계, 학계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들은 "한 가지 사안이 발생하면 현안 대응에만 급급해 장기적인 대책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불교계의 입지는 좁았다. 현안이 발생하기 전에 정책대안을 준비하고 불교계의 목소리를 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정책적 대안이 없으면 일반 사회에서도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참여연대가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집단 의사표현에 그쳤던 시민운동에서 벗어나 정부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연사연은 기존 불교계에서 활동하는 대중불교 단체들과는 성격을 달리해 정부의 문화 · 종교정책, 종교관련 법제 등을 분석해 종책대안을 제시하는 단체로 거듭나게 됐다. 연사연은 앞으로 콘텐츠 구축이 되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소셜네트워크 등을 이용한 불교계 인재들의 정보공유도 기획 중이다.

이상언 기자

東大 승가 기본교육기관 제외 반발

석림동문회, 대책위 결성… 교육원, 대화해결 강조



7월 29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열린 석림동문회 긴급 임원 간부회의 모습.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동국대를 승가 기본교육기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동국대 석림동문회와 불교대학 교수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동국대 석림동문회(회장 영담)는 7월 29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긴급 임원 간부회의를 열고 교육원의 승가 기본교육기관 조정안에 반대하며, '동국대 기본교육기관 제외 대책위원회'를 결성키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결성된 대책위원회 위원에는 보광 · 계환 · 장적 · 현도 · 토진 · 현조 · 정산 · 수인 · 정범 스님이 선출됐다.

석림동문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원과 만나 동국대의 현대식 불교교육 방법이 종단 승가기본교육의 핵심 주요정책이 되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어 석림동문회는 "내년에 완공될 서울 · 경주 캠퍼스의 최신식 기숙사에 올해 9월부터 선발되는 2011학년도 신입생 사미 · 사미니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전용공간 배치와 장학혜택을 대폭적으로 확대해 현대화된 승가교육의 전형을 마련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같은 날, 동국대 불교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위원장 계환, 불교대학 학장)도 긴급 회의를 열고 "교육원의 기본교육기관 조정안은 승가교육 불사를 위해 100여 년간 노력해 온 동국대 불교대학의 존재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교육원 안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불교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는 불교대학(원)장 및 불교학전공 · 인도철학전공 · 선학전공 등 전공 학과장, 불교대학(원) 학사운영실장으로 구성된 기구이다.

학사운영위원회는 8월 4일 '종단의 기본교육기관 조정안에 대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학사운영위원회 입장' 제하의 입장문을 통해 "현대사회에 적합한 승가교육 방향을 모색해온 동국대 불교대학을 종단 승가 기본교육기관에서 배제하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동국대 불교대학장 계환 스님은 "교육원의 기본교육기관 조정안 발표로 인해 동국대 불교대학 입학생 모집 등 학사행정에 심한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교육원에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동국대 불교대학은 학사운영위원회 명의로 교육원 안 반대 입장을 담은 공문을 교육원에 접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교육원 안이 철회될 때까지 항의방문 등 행동 수위를 높여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장 법인 스님은 "교육원과 동국대 불교대학, 석림동문회 구성원 모두가 승가교육이 발전해야 한다는 기본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이번 입장 발표를 반발보다는 발전이라는 틀에서 받아들이겠다"며 "대화로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20일 시한 정해 사퇴하라 압박

불교단체 영담 스님 퇴진 위한 특위 구성

조계종 총무부장 영담 스님의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의 4대강 지지 성명 참여를 두고 불교단체가 스님의 퇴진 운동을 위한 별도 기구까지 구성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 불교환경연대, 교단자정센터, 경제정의실천불교연합 등 불교단체들은 7월 28일, 8월 2일 두 차례 회의를 거쳐 '영담스님 총무부장 사퇴와 종단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특별위원회는 불교단체들이 4대강 문제와 조계종 총무부장 영담 스님 사건 등 종단 내부의 문제를 엄격히 분리해 대응키로 함에 따라 구성됐다.

특별위원회는 8월 3일 '조계종 총무부장 영담 스님의 최근 각종 주장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제하의 입장문을 통해 영담 스님이 7월 13일 발표한 성명에 대해 조목조목 재차 반박했다. 이어 8월 20일까지 영담 스님이 총무부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특별위원회가 영담 스님의 사퇴 요구시한으로 정한 8월 20일은 불교연대의 '4대강 개발 중단을 위한 제2차 기도정진' 입재일이다.

특별위원회는 입장문에서 "4대강 생명살림 불교연대의 4대강 사업 반대운동과 별도로 종단 주요 소임자가 공인의 자격을 망각하고 종도의 뜻과 의지를 반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영담 스님이 8월 20일까지 사퇴하지 않는다면 원로대덕 큰스님 및 총무원장스님 방문, 광고 및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총무부장 영담 스님은 '불교신문'과의 인터뷰(8월 3일자 보도)에서 "종단 내부문제에 외부인사를 초빙한 것은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교도들이 참여한 단체(불교환경연대)에서 종단 소임자의 사퇴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스님은 불교단체가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조동섭 기자

광주 무각사 선례 줄이어야

1면에서 이어

상무대 군법당이었던 광주 무각사(주지 청학)의 경우 1997년 광주시 택지개발로 상무대가 이전하며 송광사가 관리 운영하는 조건으로 광주시에 무상 이전됐다. 이후 무각사에서 연간 1억 4000만원의 임대료를 냈으나 사찰 특성상 보수 등 관리차원의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지난 5월 인수계약을 거쳐 송광사로 인수된 무각사는 최근 도심 포교당이자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군종교구는 2006년 부터 1사찰 1법당 자매결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010년 주요사업으로도 자매결연을 채택해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고자 하고 있다. 군포교 현장에서는 지역 교구본사 등 주요사찰과 주요 거점 군법당 간의 자매결연의 활성화가 장기적인 군법당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일선 한 군법사는 "도심 군법당의 사찰 전환 등에는 종단차원이나 교구본사 차원의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4대 조계종 중앙종회는 기부체납 사찰 환수특위(위원장 주경)를 구성한 바 있다. 실태조사에 나선 환수 특위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올 9월 다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환수특위는 불교계가 기부 체납한 사찰을 우선적으로 조사해 이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종단의 군내 삼보정재 관리에 대한 움직임은 환영할 만하다. 수많은 불자들의 노력과 땀으로 이뤄진 군 내 삼보정재. 군포교 활성화를 넘어 이에 대한 보전과 활용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덕현 기자

문체부 인가 : 제 2010-17호
법인등기번호 : 234121-0001430호

한국불교 연화조계종 창종 선언문

석가세존의 자각각타하신 각행원만의 근본교리를 봉체하고 교외별전, 불립문자, 직지인심, 견성성불,
전법도생함을 종지로 삼고 오탁악세를 정화하고, 불국정토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대적 사명을 다함으로써
불조의 혜명을 영원히 전등함과 동시에 법통을 수호하고서 사단법인 한국불교 연화조계종 창종을 선언한다.

◆ 본 산 : 경남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 659번지
천성산 대인사 ☎ (055)375-20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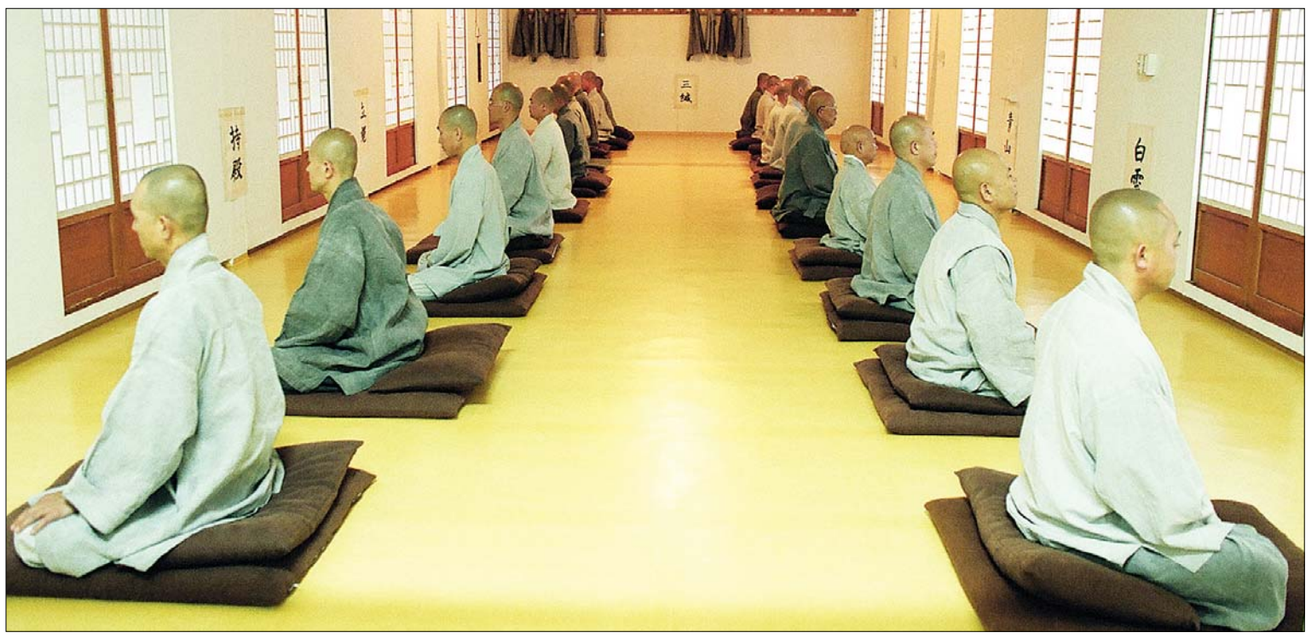
◆ 총무원 :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474번지
구암산 구운사 ☎ (054)231-3101

※ 종도들의 입종을 환영합니다 ※ 금년 연말까지 본종에 입종하는 사찰은 입종비 등 제 공과금을 받지 아니함을 알립니다. (입종서류는 본종 소정양식)

불기 2554년 7월 23일

(사) 한국불교 연화조계종 총무원장 무학보월 합장

2. 수행



불교가 사회 · 의식 변혁을 주도하며 변해야

경술년 섣달, 내설악의 겨울은 일찍 시작됐다. 눈보라는 계곡을 타고 가파르게 아래로 쏟아져 내렸고, 늙은 소나무 가지는 밤마다 자지러지는 소리를 내며 부러졌다. 먹이를 찾아 내려온 산짐승들은 백담사 계곡 얼음장 위에 족적을 뿌리며 어슬렁거리다가 풀숲에 코를 처박고 쓰러졌다. 팽팽하게 당겨진 겨울바람이 지붕 기왓장을 종횡으로 난도질했고, 싸리눈 가루들이 솟구쳐 올랐다가 마당으로 흩어졌다. 만해 스님은 문틈으로 들이친 바람에 언 손가락을 입김을 불어 풀면서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원고를 마무리했다. 서른다섯 살의 망막 위에 '유신(維新)'이라는 두 글자가 두드려졌다가 이내 희미하게 흐려졌다.

2년 전인 1908년에 수개월간 일본 조동종(曹洞宗) 총본산인 조동종대학에 잠시 머물렀었다. 대학 기관지인 '화융지(和融誌)'는 "한국 강원도 고성군 건봉사(乾鳳寺)의 도제(徒弟)인 한용운 군이 혼자서 일본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 5월 9일 조동종대학을 찾아왔다"고 짤막한 기사를 실었다. 그 때 만해가 돌아보았던 일본 본토는 러일전쟁의 승리에 들떠 있었다. 1868년 유신 이후 들어선 메이지 정부가 급속도로 받아들인 서양 문명은 일본 땅에 안착해 있었다. 유신의 깃발 아래서 일본은 기고만장했고 일본 불교도 호기롭게 성장하고 있었다. 유신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인 듯 싶었다.

<조선불교유신론>은 열다섯 항목으로 나눠 적었다. 각각 개별적이었지만, 유신 하나로 조여 들게끔 구성했다. 첫 번째로 불교의 성질에 대해 논했다. 종교적인 것과 철학적인 것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종교적인 성질의 핵심은 '희망'이고 철학적인 성질의 골자는 '진리'라고 역설했다. 희망이 없는 삶은 황폐해질 것이고, 희망을 빙자한 미신은 속임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에, 이 둘은 서로 비벼져야 마침내 아름다울 것이었다.

참선에 대해서는 다섯 번째 항목에 실었다. 만해 스님은 옛날의 참선하던 이들을 먼저 생각했다. 그들은 마음을 고요하게 가지려고 애썼다. 그런데 근래의 사람들은 그 처소(處所)를 고요하게 가지려고만 한다. 이는 염세와 독선에 지나지 않으며, 구세의 가르침이요 중생제도의 가르침인 불법(佛法)과는 상치되는 것이었다. 게다가 선의 취지의 본말을 모른 채 세월만 끌고 다니며, 구두선만 일삼으며 '시심마(是甚麼; 이뭣꼬)'를 찾는 중에 유명(有名)의 속물이 넘쳐나니 답답한 노릇이었다. 진정한 선은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간과하지 않는 선이며, 그것을 '선외선(禪外禪)'이나 활선(活禪)이라고 해도 좋았다. 선의 좌표는 세상 속에 있고, 끝내 세상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었다.

종교적인 성질의 핵심은 '희망'

철학적인 성질의 골자는 '진리'

가장 신경 쓰이는 대목은 승려의 결혼문제였다. 대처를 옹호하고 나서면, 조선 불교계의 대다수 인사들이 왜색(倭色)과 파계(破戒)를 운운하며 욕할 것이 뻔한 노릇이었다. 하지만 왜색은 좁은 민족주의에서 비롯된 반감에 불과할 뿐, 먼 미래를 보지 못하는 소치였다. 또한 대처는 파계가 아니기 때문에 용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설사 파계라 하더라도 분명한 시대적 요청이기 때문에 용납돼야 했다. 대처는 조선의 불교가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자신의 종교성을 어느 정도 훼손해야만 하는 내부개혁을 적극적으로 단행할 용의가 있는가를 살피는 시금석이었다. 세상은 대처에 대한 불교계의 태도를 살피면서, 불교가 세상을 위해 제 몸을 불사를 수 있는지 두 눈 부릅뜨고 살필 것이었다.

외부의 박해나 탄압이 아무리 가혹해도 종교는 끝내 멸절(滅絶)하지 않는다. 종교는 자진(自盡)할 뿐인데, 사회적 문제 상황에 대한 통찰과 사회구성원의 거시적 염원을 담아내지 못할 때 종교는 스스로 사라진다. 불교가 사회와 의식의 변혁을 주도하고 참여하며 나날이 스스로 변해야 하는 것은 모질고 힘들지만 기어코 감당해 내야 하는 일일 것이다.

새벽녘에 서문(序文)을 적어나가면서 매화나무 한 그루가 떠올랐다. 조조(曹操)가 목마름에 시달리는 병사들에게 조금만 더 가면 매화나무 숲이 있다고 하자, 병사들의 입에 저절로 군침이 돌았다고 한다. 이 시대의 백성들이 갈증 난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읽어내고 그들의 입에 군침 돌게 할 수 없는 종교라면, 백성들은 마침내 그 종교가 왜 있어야 하는지 되물을 것이다.

멀리 민가에서 닭울음소리가 새벽을 깨웠다. 책을 마쳤지만 책 속에는 길이 없을 것이다. 길은 오로지 걷는 자의 몫일 뿐이다.



박재현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

선학원에서 만해 스님을 만나다

'님의 침묵' 산실이자 불교개혁운동 중심

임제종 운동 주도하던 만해 스님 선학원 건립에 앞장

"선학원(禪學院)에 있으면서 만해 스님의 심부름도 많이 했지요. 내 나이 18세 되던 해 만해 스님은 47세셨는데 그때 <님의 침묵>이 출간됐어요. 당시에는 만해 스님의 시에 관심을 갖는 이가 거의 없었어요. 그때 나(석주 스님)는 만해 스님의 시집 출판을 알리기 위해 책방마다 시집을 돌리고 시집 판돈을 모아 만해 스님께 갖다드리기도 했답니다." <그리운 석주 스님>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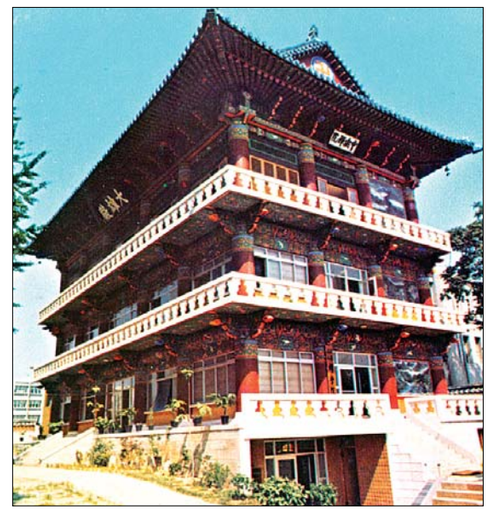
선학원은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과 북촌 한옥마을을 연결하는 길 입구에서 200여 m 떨어져 있다. 만해 스님은 이곳에서 근대시사의 흐름을 바꾼 <님의 침묵>을 출간했다. 책 출간은 일제강점기에 퇴색된 불교개혁운동, 불교의 정체성 회복, 항일 민족 운동의 일환이었다.

만해 스님은 범어사 경성포교당의 포교사인 남전 스님, 석왕사 경성포교당의 포교사인 도봉 스님, 범어사의 석두 스님, 성월 · 만공 · 용성 · 적음 스님과 함께 선학원 설립을 주도한 인물이다. 이들은 1910년 조선불교가 일본불교에 종속되는 것을 반대하는 임제종(臨濟宗) 운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었다. 임제종 운동은 한국불교가 대처식육(帶妻食肉)하는 일본불교에 부속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운동이었다. 선학원의 건립은 임제종 운동에서 비롯됐다. 선학원 건립으로 일본의 침략과 일본불교의 유입으로 인한 불교계의 혼란과 위기를 총체적으로 극복하고자 했으며 선원의 부활과 수좌들의 수행 여건 향상에도 힘썼다.

이후 만해 스님은 1913년 <조선불교유신론> 발행, 1919년 용성 스님과 불교계 대표로 독립선언서에 서명,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식에 참석했다. 독립운동에 참여해 3년간 옥살이를 한 만해 스님은 항일의식과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1921년 5월 선학원 발기인 대회에 참여했다. 범어사가 임제종 포교당을 선학원에 기부하고, 뜻있는 선사들이 돈과 토지를 헌납하면서 1921년 11월 30일 '조선불교 선학원 본부'가 준공됐다. 준공 입주 이후 만해 스님은 행정, 운영상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게 됐고 이로부터 불교저항운동은 본격적으로 전개됐다. 선학원은 근대적 불교운동을 전개했다. 일제하에서 상실돼 가던 한국불교의 주체성을 회복하고 그 바탕위에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려는 중추적 기관으로 거듭나게 됐다.

1922년 만해 스님 등 전국 수좌들은 선학원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선우공제회(禪友共濟會)를 창립했다. 선우공제회는 철저한 수행으로 선풍 진작을 하고,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자립자애 할 것을 강조했다. 만해 스님은 1926년 6월 9일 선학원에서 6 · 10 만세 운동 사전 검속으로 체포돼 종로서에 수감되기도 했다. 선학원은 1931년 적음 스님에 의해 인수 재건됐다.

글뿐아니라 말하는 재주도 뛰어났던 만해 스님은 만공 · 용성 스님과 함께 일반 대중에게 설법 · 강화, 참선 등을 통해 불교대중화에 주력했다. 1931년 창간된 대중잡지 <선원> 창간호 만해 스님의 경전 강좌 등의 수업이 6차례 진행되고, 6월 1일(음력 4월 15일)에는 결제에 대한 강연, 8월 27일(7월 백중)에는 설법을 한 기록이 남아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일반 신도들의 대중적 모임인 남녀선우회, 부인선우회 등이 조직되면서 선의 대중화와 함께 재가자 신행의 조직화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선학원이 새 불교의 둥지가 됐던 것이다. **이상언 기자**



1973년 선학원은 1921년 준공된 옛 건물을 헐고 3층 건물을 중창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중창 당시 모습(위).
1941년 2월 26일부터 10일간 선리참구원은 유교법회를 개최해 대처승들이 늘어남으로써 교단이 세속화되고, 타락해 가는 상황에서 비구승들의 청정 수행기풍을 진작시키고자 했다. 왼쪽 맨 앞줄부터 이운허 강영명 장석상 박한영 송안공 채서응 김상월 김적음 스님. 사진제공=선학원

글 싣는 순서

1. 만해와 '조선불교유신론'
2. 수행
3. 포교
4. 종단 및 사찰운영
5. 계율
6. 신행
7. 교육
8. 만해와 오늘의 불교
9. 소설-만해 스님



초기불교 VS 선불교



한국불교의 미래는 선불교인가 초기불교인가?
불교 전반에 대한 탄탄한 지식과 풍부한 상상력으로 흥미진진하게 써내려간 한 편의 소설 같은 책. 현대 한국 불교를 관통하는 두 개의 흐름, 전통적인 선불교와 새롭게 유행하는 남방불교의 한판 대결! 한국사회에서 선불교는 한계에 봉착한 것인가? 남방불교의 득세는 일시적 유행인가, 아니면 한국불교의 미래인가? 보다 본질적으로, 한국 초기불교주의자들의 주장은 교리적으로 올바른가?
방경일 저 | 신국판변형 | 296쪽 | 값 13,000원

다음 생을 바꾸는 49일간의 기도
『티벳 사자의 서』에 의한 중음에서의 해탈법
죽어서 다음 생을 받기까지 49일의 중음 기간 중 단계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들의 의미는 무엇인지, 천도를 하는 이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망자를 어떻게 경책해야 하는지 등을 담고 있다.
석법성 편역 | 신국판변형 | 144쪽 | 값 8,000원



금강경 해설의 새로운 지평!!!
풍부한 일화와 사진, 초기불교와 대승불교를 넘나드는 깊고 폭넓은 해설!
깨달음으로 가는 금강경



초기불교를 자양분 삼아 더욱 풍부해진 금강경 해설!
이 책은 계율과 선정을 중시하는 초기불교와 중생구제의 보살행을 실천하는 대승불교, 번뜩이는 지혜를 강조하는 선불교의 가르침을 수행자의 안목에서 한 맛으로 회통하고 있다.
사진과 일화로 읽는 금강경!
부처님이 직접 설하는 듯한 생생한 해설과 다양한 사진자료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온전히 보여줄 뿐만 아니라 불법의 정수까지도 오롯이 드러내 보인다.
한 편의 소설을 읽듯 흥미진진한 금강경!
마치 한 편의 상황극을 보는 듯 재미있고 친절한 풀이를 한 장 한 장 읽다보면, 지혜의 완성, 번뇌의 타파에 한 발 다가가 어느덧 참나를 찾는 길에 들어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법산 편역 | 신국판양장 | 올컬러 | 764쪽 | 값 38,000원



*저자 법산 스님은 국내 제방과 인도, 미얀마 등지에서 수행했으며, 현재 대구 대각사(053-6565-108)에서 불교명상대학 지도와 금강경 강좌를 통해 법연을 나누고 있다.

● 붓다북 www.buddhabook.co.kr ● 주문 (02) 3672-7181 ●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6가 25-1 청송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일 주 문



인드라망 제27기 불교귀농학교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대표 도법 스님은 8월 19일~10월 21일 매주 화, 목 목동 인드라망교육도량에서 귀농이론교육을 실시한다. (02)576-1886



월정사 산사음악회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8월 13일 월정사 경내에서 대관령국제음악회 일환인 월정사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033)339-6800



봉은사 입시특강
서울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은 8월 11일 봉은사 법왕루에서 황농문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초청 2011 대입수능 입시특강을 개최한다. (02)511-6070



파라미타 디카 공모전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회장 도후 스님은 8월 20일까지 제6회 디카공모전 출품작을 접수 받는다. (02)723-6165



조계사 신도등록수계법회
서울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은 8월 27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종 신도등록을 위한 특별수계법회를 봉행한다. (02)732-2187



맑고향기롭게 2010숲기행
맑고향기롭게 이사장 덕현 스님은 8월 21일 영천 치산계곡에서 2010숲기행 '경상북도의숲을 찾아서'를 개최한다. (02)741-4696



법륜 스님 즉문즉설 강연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8월 15일 부산 KBS공개홀에서 즉문즉설 강연을 개최한다. (02)587-8900



東大전통사찰음식연구소 수료식
이심열 동국대 전통사찰음식연구소 소장은 7월 13일 동국대 학림관에서 사찰음식 조리과정 제1기 수료식 및 졸업작품 전시회를 개최했다.



MY Leaders Club 참가자 모집
신성기 불교아카데미 이사장은 8월 20일까지 제9기 MY Leaders Club 참가자를 모집한다. (02)2278-1087

■ <인사> 금강대학교

금강대학교(총장 성낙승)은 8월 1일자로 인사를 단행했다. △기획관리처장 이운영 △교학처장 고수현 △불교·복지학부장 최기표 △취업지원센터장 조성환

■ 박물관교육학 제1호 박사 고판화박물관 한선학 관장

"박물관, 특성화 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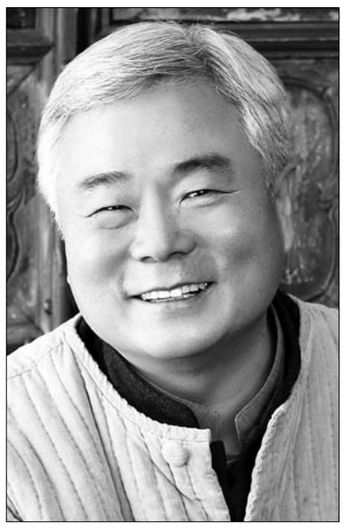
"박물관들 가운데 전시를 쉽게 생각하는 풍토가 만연돼 있어 문제입니다. 특화된 전시물 · 프로그램을 통해 차별성을 꾀해야 합니다."

원주 고판화박물관 한선학 관장(원주 명주사 주지 · 사진)이 세계 최초의 박물관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 관장은 최근 한양대 대학원에서의 박사학위 청구논문 '고판화의 박물관교육 내용과 방법에 관한 연구'에서 박물관 교육의 새로운 방법과 활성화 방안을 소개했다. 한선학 관장의 논문에는 고판화박물관을 운영하며 얻은 노하우와 고민이 오롯이 담겨있다.

"고판화박물관에서는 학생들에게 극락세계를 설명하고 경전에 나오는 칠보(七寶)를 직접 꾸미게끔 합니다. 3D 기술 등이 응용되면 판화를 직접 제작하는 것 같은 경험을 통해 판화의 내용을 더 쉽게 각인할 수 있습니다."

한 관장은 10여 년 동안 전세계를 돌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고판화를 수집해 왔다. 국내 유일의 고판화박물관을 설립할 만큼 모아진 고판화는 한



국 700여 점, 중국 1500여 점, 일본 200여 점, 티베트 · 몽골 800여 점, 인도 · 네팔 등 300여 점 등에 이른다.

15년간 군종장교로 복무하며 군포교에 헌신했던 한선학 관장은 판화만큼 부처님 가르침을 쉽게 전달하는 방법이 없다는데 주목해 고판화 수집에 매진해 왔다. 한 관장이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된 과정 또한 고판화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다. 한 관장의 열정은 고판화박물관을 통해 박물관형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인 '뮤지엄스테이'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고판화, 불화 등은 불교 대중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불교문화콘텐츠의 보고(寶庫)이지요. 수많은 판화에 그려진 삽화에서 캐릭터만 분리해 내도 무궁무진한 불교문화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 관장은 "박물관이 발전한 나라들은 박물관이 유물 보존 · 전시 수준을 넘어 교육 기능이 강조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한국의 전통문화를 형성한 불교계가 박물관의 교육적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선학 관장은 "전국 사찰의 성보박물관이 각 지역의 문화예술교육기관으로서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우리 문화를 바로 알아 불교가 중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 동국대 대학원 석사학위 김성구 이화여대 명예교수

불교는 과학적 영감 주는 미래의 종교

"마음과 물질의 본질에 대한 과학적 연구결과를 철학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양철학의 전통적 용어와 개념으로는 이 작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불교철학으로는 가능합니다."

김성구(사진) 이화여대 물리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동국대대학원 불교학과에서 취득한 석사학위 논문인 '물리학과 인지과학의 통섭적 이해를 위한 천태적 접근 연구'에서 마음과 물질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데 천태사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과학의 마지막 꿈은 소립자에서 우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자연현상을 하나의 법칙으로 기술하는 것"이라며 "이 논문에서 특별히 천태사상에 주목하는 것은 많은 불교 경전과 논서에서 불교사상을 다양하게 해설한 것을 천태대사가 통일적인 시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교수는 "천태사상은 세 가지 면에서 과학의 정신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하나는 천태사상이 가진 통일성이고, 다른 하나는 교관일치 사상이며, 나머지 하나는 천태사상의 이론적 구조가 마음과 물질을 포함하는 현상계의 구조와 같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김 교수는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을 배우던 때에 반야심경의 내용을 접했다.

그는 "물리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점점 더 반야심경의 내용이 현대물리학의 내용과 유사하다고 느꼈다"며 불교를 공부하기 시작했으며, 현대불교신문에 '반야심경과 물리학'이라는 주제로 연재를 하기도 했다.

오랫동안 불교와 물리를 연구하면서 김 교수는 불교가 '미래의 종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는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우주적 종교(cosmic religion)라는 말을 사용했다. 우주적 종교는 미래의 종교로서 과학에 영감을 주고 그 교리가 과학적으로 뒷받침 받는 종교를 뜻한다. 불교가 바로 이 미래의 종교의 좋은 후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불교의 용어와 개념을 현대과학적 용어와 개념으로 정리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나은 기자

금산사 삶을 되돌아 보는 수행 프로그램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는 7월 28일~8월 1일 경내 서래선원에서 불교적 수행을 통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되돌아보는 수행 프로그램 '禪, 나를 깨치다'를 진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20여 재가자들은 간단한 사찰예법과 금산사 일원의 문화유산 해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행에 돌입했다. 참가자들은 예불과 108배, 수련원장 일감 스님에게서 바른 호흡법과 좌선 특강, 맨발로 걷기명상, 선요가테라피, 3000배 정진, 발우공양, 운력, 포행 등 집중 수행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라는 화두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마지막날인 8월 1일에는 3000배 정진용맹정진 후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으로부터 미륵십선계를 수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세계평화연합법인회 세계평화기원대법회



(사)세계평화연합법인회(총재 청암)는 7월 30일 대구 문화웨딩홀에서 총재단, 회장단 및 임원진 추대를 겸한 세계평화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법정 스님의 대회사로 시작된 이날 법회는 1부 평화기원기도 2부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1부 평화기원기도에서는 명예총재 인왕 스님, 총재 청암 스님과 부총재단, 명예회장 신풍 스님과 회장 연화 스님 등 총재 회장 임원진이 추대됐다. 평화대사와 평화기장 임명장 표창장 등도 수여됐다.

총재 청암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 말씀의 실천이 곧 평화이다. 불법으로 이웃을 대하고 행하면 바로 평화가 올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회장 연화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 평화사상을 실천하기 위해 화해와 협조를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2)837-2003

조동섭 기자

영천 충효사 마정수기대법회



영천 충효사(회주 해공)는 7월 29일 충효사 대불전에서 제228회 '국운융창 호국안전 순국선열 위령대재 및 천도대재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네팔 몽키사원 왕다라마 큰스님을 초청해 마정수기대법회를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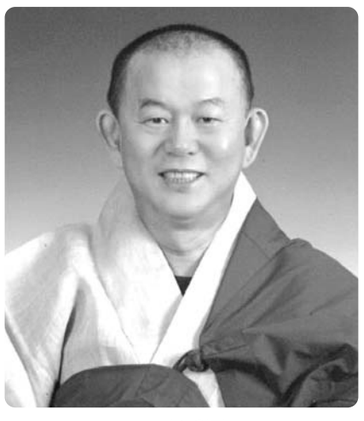
회주 해공 스님은 "'마정수기'는 우리가 수겁을 통해 지은 모든 업장을 수기를 받는 찰라에 십팔종의 횡액을 모두 소멸케 하는 큰 인연을 짓는 대법의 성스러운 의식"이라고 말했다.

충효사는 매월 18일 지장재일 기도도량으로써 지장대불전에서 불교전통의식으로 봉행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세계제일 적중률을 자랑하는 구단구궁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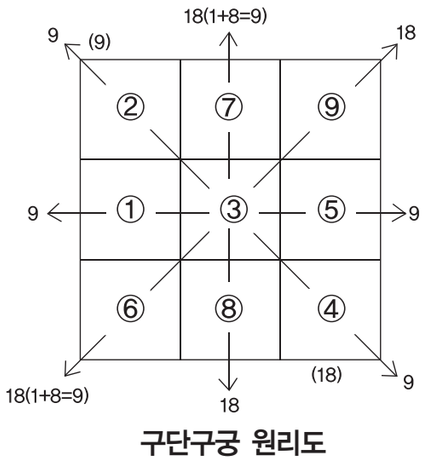
집중 5일완성
저자 : 법화 종헌 (정흥교) 큰스님 직강



· 녹야선원장
· 불교학과교수 · 구단구궁법 저자

강 의
월 · 수 : 저녁 7시 – 9시
금 · 토 · 일 : 오후 1시 – 5시
직접상담 : 010-7415-0803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사찰 ·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구단구궁으로 짚어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특전 : 특별장학금 (50%) 특허출원번호 : 40-2010-0009061
홈페이지 참조 – www.psa.or.kr [구단구궁법] 41-2010-0004261



구단구궁 원리도

학 과	기간 / 요일 / 시간	강 의 과 목	비 고
불 교 학 과	[기간 – 2년] 금요일 : 저녁 7시 – 9시	· 유식사상 · 화엄학 · 대승기신론 · 답사학	대학원과정 (학사이상)
불교교리학과	[기간 – 1년] 화요일 : 오전 10시 – 12시 저녁 7시 – 9시	· 사찰예절 · 근본교리 · 부처님생애 · 반야심경 · 포교방법론 · 초발심자경 · 천수경 · 금강경	포교사 법 사
장례지도학과	[기간 – 6개월] 월요일 : 오전 10시 – 12시 저녁 7시 – 9시	· 관혼상제 · 장례식장경영론 · 장묘제도(법규) · 공중보건학 · 상담학 · 장례학 개론 · 불교상장례이해 · 실습	장례지도사 1,2급 불교장례지도사
다도예절학과	[기간 – 1년] 월요일 : 저녁 7시 – 9시	· 제다학(1,2,3,4) · 다구학 · 사찰다도법 · 차와선 · 차 문화사 · 차성분학	다도예절포교사
불교의식학과	[기간 – 6개월] 목요일 : 오전 14시 – 17시	· 기초 – 중급 – 고급 – 속성(실전) · 범음, 범패, 작법(바라 나비춤) · 종사이운 종사영만 점안의식 시달림 예수제	
풍 수 학 과	[기간 – 1년] 수요일 : 오전 10시 – 12시 저녁 7시 – 9시	· 생활풍수 · 음택/양택 · 풍수학 개론 · 패철 · 방위학 · 부동산풍수 · 풍수인테리어 · 지리오결	풍수지리사
명 리 학 과	[기간 – 6개월] 화, 목요일 오전 10시 – 12시 / 저녁 7시 – 9시	· 생활역학 · 작명 · 사주명리학 · 관상학 · 궁합 · 택일 · 실전명리	명리심리상담사
이수명리학과	[기간 – 8주] 일요일 : 오후 14시 – 19시	· 이수명리학 · 명리36금수 · 적천수 · 12운수 · 간파명문 · 오자술	이수명리학회 회원증
타 로 학 과	[기간 – 4주] 금요일 : 저녁 7시 – 9시	· 메이저아르카나–22장 · 마이너아르카나–56장 · 실전타로학	타로카드 마스터사(1급)
구단구궁학과	[기간 – 5일] 월,수,금 : 14시–17시 / 토,일 : 13시–17시	· 구단구궁학교재 · 비법교재	한국구단구궁학회회원증

14년전통 부산불교전법대학 – 구단구궁연구회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1212-23번지 ☎ (051)467-4665 010-3214-4936

축제같은 시험… 군종병 교리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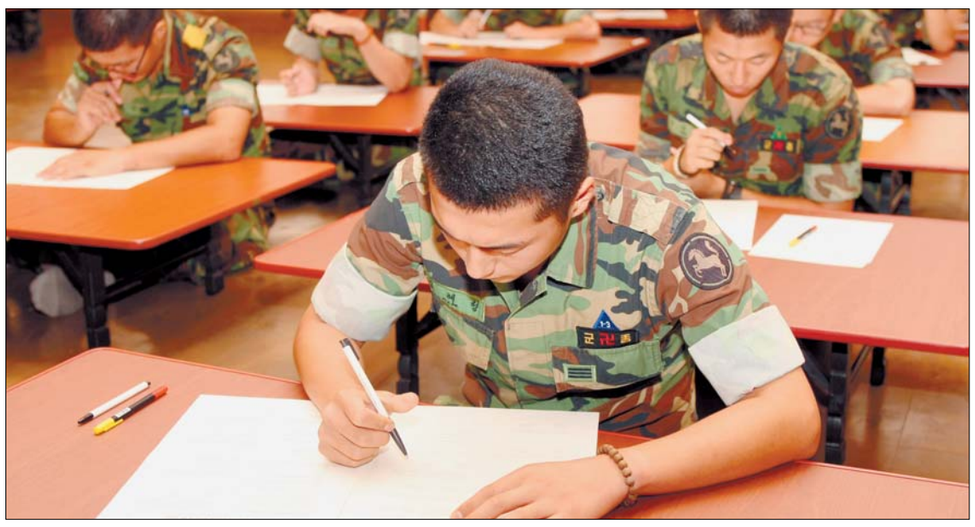
4일, 9사단 호국백마사 · 비룡사 동시 개최

제1회 전국 군종병 불교교리경시대회가 8월 4일 9사단 호국 백마사(주지 현조 이동경)와 25사단 호국 비룡사(주지 지용 구윤호)에서 동시 개최됐다.

군포교 현장의 사기진작과 군종병들의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 은정불교문화재단(이사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이 마련한 이날 불교교리경시대회에는 9사단과 25사단 예하부대 군종병 64명이 참가했다.이번 불교교리경시대회는 각 부대 군종병을 대상으로 신자 파악 및 포교요령, 개인상담 등을 교육하는 군종 집체교육 기간 중 실시키 위해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자광)의 추천을 받아 두 사단에서 시범 실시됐다.

시험문항은 은정불교문화재단 교리경시대회 운영위에서 맡아 조계종출판사 <청소년불교입문>를 기반으로 기초교리 등 불교상식 전반에 걸쳐 객관식 40문제, 주관식 4문제, 서술형 1문제 등 총 45문항으로 출제됐다.

이웃종교계의 전군구국성회, 찬양회 등과 같은 전군적인 행사가 부족한 군포교 현장에서 이번 군종병 불교교리경시대회는 군내 불교계 대규모 행사로 확대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8월 4일 호국백마사에서 열린 제1회 군종병 불교교리경시대회에서 군종병들이 문제를 풀고 있다.

휴가 중 복귀해 시험에 응시한 9사단 보수대 조용연 상병은 "매주 토요일 9사단 군종병들끼리 여는 용화회법회를 통해 불교교리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번 시험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9사단 통신대 장인성 일병도 "이번 시험을 준비하며 불교에 대해 많이 알게 됐다. 군종병 활동에도 도움이 되리라 본다"고 응시 소감을 말했다.

은정불교문화재단 측은 점차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상인 조계종 총무원장상(1명)과 최우수상인 포교원장상(2명), 우수상인 군종교구장상(5명)에는 각각 상금과 사단장 포상휴가가 주어지며 시상식은 10월 23일 개최된다.

글=노덕현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은해사 영도학원 명칭 변경

경북 영천시의 종립 선화여고 법인인 영도학원이 동곡학원으로 명칭 변경된다.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는 8월 10일 경내 해안당에서 학교법인 영도학원을 동곡학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재단 초대 이사회를 개최했다. 학교법인 동곡재단은 이날 초대 이사장에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을 추대했다. 이사회에서는 학교 활성화 방안과 종립학교로서의 운영 기본 방향 등도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됐다.

초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동곡재단의 출범에 대한 소감으로 "은해사는 참다운 인성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인재양성을 목표로 동곡재단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받은 관심과 사랑을 되돌려 주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동곡재단은 9월 9일 영천시 선화여고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 각계 귀빈을 초청해, 동곡재단법인 이사장 취임식을 갖고 백년 교육대계의 첫발을 내딛는다.

조동섭 기자

재건 법안 통과 예정 인도 나란다 대학

인류 역사상 '최대 · 최고 대학'인 인도 나란다(Nalanda) 대학이 옛 상아탑의 영광을 다시 꽃 피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8월 3일 인도 의회가 나란다 대학의 재건을 위해 외국 협력자본 참여를 허가하는 법안을 8월 첫째 주 중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인도 북서부 비하르주(州)에 있는 나란다 대학은 5세기 굽타왕조 쿠마라굽타 1세에 의해 건립돼 700년 넘게 융성했다. 대학 부지는 반경 16㎞에 달했고 중국 당나라 현장법사(602~664)와 신라 혜초 스님(704~787)도 불경을 공부하는 등 하지만 1193년 투르크족의 침략으로 폐허가 된 뒤 방치됐다.

전성기에는 세계 93개국에서 온 2000명의 교수와 1만여 학생을 수용했다.

노덕현 기자

"자비실천 위해 손 잡았어요"

東大 참사람봉사단 · 승가원 업무제휴 협약

동국대 참사람봉사단과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 나눔문화 활성화와 장애인인식 개선사업을 위해 손을 잡았다. 동국대 참사람봉사단(단장 이준서)과 사회복지법인 승가원(법인사무국장 동옥)은 7월 29일 서울 안암동 승가원 강당에서 업무제휴 협약식을 개최했다.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법인사무국장 동목 스님(오른쪽)과 이준서 동국대 참사람봉사단장

이날 협약으로 동국대와 승가원은 참사람봉사단 중심의 정기 자원봉사를 통한 나눔문화 활성화와 장애인식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행사에서 승가원 법인사무국장 동옥 스님과 동국대 참사람봉사단 이준서 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종립대인 동국대와 승가원의 교류가 더욱 더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동국대는 이날 협약에 앞서 5월부터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승가원 산하 기관에서 장애인 정서지원을 위한 활동 및 환경정리 등 자원봉사활동을 해왔다.

조동섭 기자

마인드 컨트롤이 성패 좌우

수능 -100일 봉은사 입시특강

2011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어느 덧 100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불교계에서도 얼마 남지 않은 대입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해 입시특강이 진행 중이다. 서울 봉은사는 '수험생 자녀와 함께 가는길'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마련했다.

8월 4일은 이석록 메가스터디 입시평가연구소장을 초청해 '2011학년도 대입수능 경향 분석'에 대해 강연했다.

이석록 소장은 대학입시 전형 유형의 다양화를 강조하며, 자신이 유리한 전형을 선택해 전략적으로 수능을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이 소장은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은 사설기관의 무책임한 대학입시 상담을 피해야 한다. 대신 자녀가 갈 수 있는 대학 5곳을 선정해, 그 곳의 입시요강을 철저히 분석하라. 자료를 토대로 해당 학교 입학처에 찾아가 입학 관계자와 많은 대화를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방법은 자녀가 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어떻게 남은 기간을 보내야 하는지 구체화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

이석록 소장은 "이번 수능시험에서 언어 · 수리영역은 전년도와 평이하고, 외국어 영역이 다소 어렵게 출제 될 전망"이라며 "배짱 있고 낙천적인 힘이 결국 시험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100자 뉴스

경주 위덕대 통리원장배 자성동이 풋살대회'

진각종(통리원장 혜정 정사)은 8월 11~12일 경주 위덕대에서 제5회 통리원장배 자성동이(어린이법회에 참가하는 초등학생) 풋살대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리그전으로 16강을 선발하고 8강전은 대진추첨을 통해 토너먼트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대회까지 성적위주의 시상으로 인한 지나친 승부의식이 수차례 지적됨에 따라 올해에는 개최 취지인 화합과 단합을 위해 매너플레이상, 응원상, 단합상, 봉사상, 예절상, 질서상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 행사에서는 풋살대회 외에도 종단 스승과 감독이 함께 하는 족구대회, 저학년 자성동이 친선경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릴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불광사 경북불교대학 선서화 · 도자기 전시회



경산 불광사 경북불교대학(학장 돈관)은 8월 4일 교내에서 불광불교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생활도자기와 선서화 전시회를 열었다.

전시회에는 故 동곡당 일타스님과 영천 죽림사 주지 법의스님의 선서화 작품과 함께 문경 도광요(김경선 선생)의 생활 도자기, 대승사 와발우 등 300여 점의 작품들이 전시됐다.

학장 돈관 스님은 "불광사 불교종합복지관 증축 불사에 마음을 모으는 의미에서 이번 전시회를 마련했다"면서 "불사는 끝이 없지만 하루빨리 증축해 사회, 문화, 복지, 포교 사업을 적극 펼치겠다"고 밝혔다. 전시회는 24일까지 계속된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옥천불교사암연합회 군정발전기원법회 봉행



옥천군불교사암연합회(회장 장원, 용암사 주지)는 옥천군 사암 주지 스님들과 김영만 옥천군수 등 옥천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군정발전기원법회를 봉행했다.

기원법회 후 옥천군불교사암연합회는 옥천군에 △유등 축제 관련 군예산 지원 △영규 대사 추모제 개선방향 △옥천군청 불자회 창립 지원 등의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조동섭 기자

중국 소림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중국 선종 총본산인 소림사(少林寺)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는 8월 1일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제34차 회의에서 중국이 신청한 허난성(河南省) 덩펑시(登封市) 쑹산(嵩山) 일대 역사기념물(Historic monuments of Mount Songshan)의 등재를 확정했다.

'쑹산 일대 역사기념물'은 쿵푸로 유명한 소림사를 비롯해 제당인 중악묘(中岳廟)와 서원인 숭양서원(嵩陽書院) 등 11개 고건축물로 구성됐다.

한편,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로 구성된 '한국의 역사마을'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이로써 한국은 10번째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 ! 영산불교에서 자신있게 내놓은 불멸(不滅)의 사자후

세계 불교사에 던져진 매머드급 허리케인 2500년 불교 교학사를 다시 쓴다

※ 자재만현 큰스님 BBS TV 법회 월 1회 절찬리 방영중 !!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 · Ⅱ

16쇄 | 371면 | 25,000원. 385면 | 25,000원 – 영어판 · 일어판 近刊

대형서점 종교서적 부분 6개월 연속 베스트 1위!
30년간 치열한 염불수행을 통해 깊은 삼매 속에서 만난 나의 스승 석가모니부처님!
아난이 2500년을 지나 부처님을 친견하고 삼매속에서 들은 진실한 이야기.
"깨달음(견성)은 진정한 삼매를 위한 시작에 불과했다. 무수한 삼매, 그 중에서도 최고의 삼매인 대적정삼매에 들었을 때 비로소 육도의 지옥, 아귀, 수라, 하늘세계와 해탈 세계인 극락세계가 있음을 확실히 보았다. 수행 중에 보는 지옥과 극락은 모두 환영이지만 오직 붓다의 경지에서만은 지옥과 극락의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3신을 구족하지 못한다면 붓다라고 할 수 없다."

영혼체 윤회론

158면 | 10,000원

내 안의 '진실한 나'를 찾았다!
깊고 깊은 미개척의 영적 세계, 비밀의 장에서 건네온 우리 자신의 비밀. 겹겹이 겹쳐져 있는 인간의 4개 영체를 소개하고 오랜 비밀이었던 영혼체설을 정립한다.
자성(自性)은 만물의 근원일 뿐 비인격적 본질을 '진짜 나'라고 할 수 없다!
2000년 넘게 왜곡되어 해석된 무아설(無我說)을 바로잡고 삼법인(三法印)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는 이 시대 최고의 논서.

영산불교사상과 본문묘법연화경

381면 | 25,000원

보정정토와 도킹된 다보탑 조성을 기념한 다보여래부처님 기도법 안내서.
경전중의 경전인 묘법연화경 본문팔품을 소개하고 불세존과의 일문일답을 소개한다.
이 책을 통해 석가모니부처님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다보탑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다.

신불교사상의 실체를 파헤친다

42면 | 소개책자

종교계의 지각변동을 알리는 신불교 사상의 등장을 전반적으로 소개한다.

관음태교, 관음태교에서 천도까지

187면 | 10,000원. 311면 | 15,000원

행복한 삶의 시작과 끝을 결정지어 줄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최고의 보서(寶書).
삼매속 관세음보살님께서 직접 부촉하신 '관음태교법'을 소개한 예비 부모의 필독서.
국가와 가정의 미래를 걱정하는 선남자 선여인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한다.

칙천무후

238면 | 1,5000원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황제 칙천무후.불세존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통을 이은 가섭존자의 후신이자 동시에 현지사 광명만덕 큰스님의 전신!
유교사가에 의해 왜곡된 칙천무후에 대한 불교사적인 재평가

불교사에 드러난 석가세존의 실존문제연구(近刊)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석가모니부처님의 위상과 실존문제를 파고든다.

■ 붓다의 메시지 존평 506면 | 15,000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에 대한 불교 내외의 여러 학자들의 평론.

■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요해 269면 | 15,000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의 사상적 측면만을 별도로 묶은 요약서.

■ 108 대참회문
108배와 함께하는 불자들의 참회수행 지침서

■ 영산불교의 법세계 80면 | 10,000원
두분 큰스님께서 영산불교를 창종하신 이유와 석가모니 부처님의 위대성을 피력.

■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 489면 | 15,000원
수행적 측면에서 바라본 영산불교의 법세계

■ 비교종교학 537면 | 25,000원
영산불교의 법세계를 소개하고 이와 더불어 세계 7대 종교를 되짚어 본다.

■ 법문집 Ⅰ Ⅱ Ⅲ 631면 | 15,000원. 540면/20,000원. 648면/20,000원 – Ⅳ권 近刊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에서 다하지 못했던 이야기. 5년에 걸친 현장법문의 생생한 기록

■ 신불교학개론(近刊)
영산불교 사상연구소에서 다시 쓰는 불교학 교리 개론서.

■ 만화로 보는 영산불교의 사상 – 행복으로 가는길
쉽게 접하는 불법의 장. 만화라는 매체를 통한 불교 사상의 이해

매월 음 8일, 23일 대법회 http:// www.hyonjisa.com 판매처 영산불교 현지사 춘천 본사 Tel 033)243-1787,1795 / 부산 분원 Tel 051)554-5150/ 대전 분원 Tel 042)525-5325, 5345

만해는 세계적인 문화콘텐츠

'21세기와 만해' 학술대회서 이지엽 교수 주장… 한보국 활동 재조명 필요

만해(萬海, 1879~1944) 스님은 일제강점기에 시인 · 스님 · 독립운동가로 활약하면서 우리 민족의 독립과 번영에 평생을 바쳤다. 만해 스님이 출가하고 〈님의 침묵〉 등 명저를 집필한 백담사 인근에서 매년 8월 중순 열리는 '만해축전'은 올해로 12회를 맞는다. 만해축전은 국내외 문인과 종교인, 학자, 예술가들이 어우러져 만해의 삶과 사상을 기리고 되새기는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한여름의 문화축제'로 부상했다.

만해학회(회장 한계전)와 만해사상실천선양회는 8월 6일 '2010 만해축전'을 일주일 앞두고 만해사상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21세기와 만해'를 주제로 서울 만해학회 사무소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지엽 경기대 교수가 '만해 한용운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김광식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가 '한용운의 아들, 한보국의 삶'을, 유문선 한신대 교수가 '국어교과서와 만해'를, 임동확 한신대 교수가 '만해와 생명사상'을, 한명환 선문대 강사가 '시승의 소설쓰기에 나타난 탈식민주의'를 발표하며 만해와 그의 사상을 고찰했다. 이나은 기자



만해학회와 만해사상실천선양회는 8월 6일 서울 만해학회 사무소에서 '21세기와 만해'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문화콘텐츠로서의 '만해학'

이지엽 교수는 그동안의 만해 스님에 대한 연구를 정리 분석하고 이를 통해 만해 스님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 교수는 "만해 생전인 일제강점기 시기에는 만해에 관한 논의나 연구는 이렇다 할 것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1925년 유광열과 주요한이 쓴 '님의 침묵'에 관한 독후감 정도의 글밖에 없었다"며 "이는 만해가 문단 밖의 인물로 간주되거나 만해가 가지고 있던 사상을 따라잡을 만한 식자층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만해 스님에 대한 연구는 문학 분야에서부터 시작됐다. 1937년 간행된 〈조선문학집 · 시가집〉에 만해 스님이 당대의 주요 시인으로 선정돼 '나룻배와 행인' 등의 시편이 수록됐다. 이후 1957년 서정주가 편찬한 〈한국시인전집〉(학우사刊)에 '한용운편' 이 수록되면서 만해 스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고 1960년대 초 박노준 · 인권환의 〈만해 한용운 연구〉 단행본과 송욱의 논문으로 본격화되기에 이른다. 1960년대 후반에는 활발해지기 시작한 민족주체성 논의와 국학연구의 영향으로 만해 스님 연구는 상당한 조명을 받게 된다. 1975년에는 고은에 의해 집필된 〈한용운 평전〉이 출간되고 1980~90년대에는 김재홍의 논문을 필두로 대학의 학위논문들이 잇따라 나오게 되면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밖에 만해 스님 연구는 크게 연구 내용과 범주에 따라 △불교사상 △민족운동사 △문학작품에 관한 연구로 나뉘어 진행돼왔다.

이지엽 교수는 "만해에 대한 연구는 민족운동사 내지 역사분야, 불교쪽이 상대적으로 적고, 문학연구가 가장 많은 편이다. 문학 연구에서도 '님의 침묵' 연구에 편향된 감이 없지 않다"며 "한시(漢詩)와 소설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다. 보다 균형 있는 연구가 뒤따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문화콘텐츠로서 '만해학'을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제는 단지 연구자들에 의해서만 향유하고 기리는 것이 아닌, 문화 콘텐츠로서 만해학을 생각해야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만해 스님을 문화콘텐츠화하는 일은 다른 모든 사업의 기초이자 근거가 되는 선결작업임을 전제하고 만해 스님의 문화콘텐츠화 작업이 △기초자료의 수집과 정리 △자료의 분석과 연구 △자료의 전산화와 미디어화를 통한 확산과 활용의 세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설명했다. 또한 이 교수는 만해 스님을 브랜드화 방안으로서 △만해마을의 명소화 △만해의 대중화 · 세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만해 스님의 아들 한보국의 삶

〈조선불교유신론〉에서 승려의 결혼을 강력히 주장했던 만해 스님은 입산 · 출가 하기 이전에 결혼을 해, 1904년에 아들 한보국을 낳았다. 그리고 1933년에 또 다시 결혼을 해, 1934년에 딸 한영숙을 두었다. 한보국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으로 넘어갔고, 한영숙은 남한에서 살고 있다.

김광식 교수는 "한용운의 승려결혼에 관련된 내용은 지금껏 그 대강은 밝혀졌지만 한용운의 아들인 한보국에 대해서는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한용운과 한보국의 관계, 한보국의 일생 · 후손 등을 포함한 한보국의 삶에 대해서는 지금껏 구체적으로 연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수년 전부터 한보국 연구를 위해 그 관련 자료를 수집했고, 이를 통해 한보국의 삶을 복원시키고자 했다. 만해 스님의 아들을 조명, 분석하는 것도 스님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판단에서였다.

김 교수는 "한용운은 1930년에 처음으로 그의 아들이 있음을 〈별건곤〉5권 6호 '남 모르는 나의 아들'에서 밝혔다"며 한보국의 생애를 조명했다.

한보국은 생부인 만해 스님이 출가자였기 때문에 일제시대 당시에는 스님과 동거할 수 없는 처지였다. 그는 만해 스님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자신의 모친과 함께 스님의 고향인 충남 홍성에서 거주하면서 생활했다. 홍성에서 그는 신간회 활동을 했고, 서울에서는 사회주의 활동을 하다가 옥중에 수감됐다. 출옥한 그는 홍성에서 토착적 사회주의 세력을 주도하면서 진보적 민족운동을 전개했다. 8 · 15 해방공간에서는 홍성지역의 건국준비위원회에서 국가재건 활동에 매진하고, 한국전쟁때에는 홍성의 인민위원장을 맡았다. 9 · 28 수복 무렵, 그는 북한으로 올라가서 생활을 하다가 1976년 북한에서 사망했다. 현재 북한에는 그의 딸 다섯 명이 생존하고 있다.

김 교수는 "한보국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 홍성 지역사회에서 기존의 한용운 중심의 선양사업에서 이제는 한보국도 포함을 해서 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며 "일제시대 및 해방공간 한보국을 포함해 중도적인 민족운동, 개방적 사회운동, 좌우합작 운동을 했던 진보진영의 역사 복권 작업이 더욱 요청된다. 지금까지의 보수적, 제도권의 역사 작업에서 한 발 더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통에 기반한 탈식민적 글쓰기

이 외에도 국문학 전공학자들이 만해 스님의 문학과 사상을 조명했다.

유문선 한신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국어 교과서와 만해'라는 주제 논문에서 1946에서부터 2000년대까지 국어 교과서에 실린 만해 스님의 작품을 고찰했다.

만해 스님의 시 작품은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서는 '복종' '나룻배와 행인' ' 해당화'가 수록됐으며,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는 '알 수 없어요' '님의 침묵' '찬송' '논개의 애인이 되어서 그의 묘에' '복종' '해당화'가 수록됐다.

유 교수는 "만해와 관련해 국어 교과서에서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김재홍 교수의 '만해 한용운'이 제4~6차 중학 3학년 교과서에 빠짐없이 수록돼 있다는 점이다"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또 "만해 시는 특유의 상상력과 어조 및 표현에서 문학적 상상력의 자양분이 될 충분한 자격이 있다. 그리고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오랫동안 실린 김재홍 교수의 '만해 한용운' 같은 글이 이제는 초등학교 교과서로 내려가 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량과 활동 영역으로 보나 만해 스님이 현재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일제 강점기의 위인으로도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이 유 교수의 설명이다.

임동확 교수는 주제논문 '만해 시와 생명사상'에서 "만해의 모든 시를 불교적 교의나 담론 안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의 시들이 갖고 있는 풍부한 의미와 생명성을 사장(死藏)하거나 희생시키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만해의 시 속에 담은 사랑과 슬픔, 기다림과 이별, 죽음과 고통 등은 내용에 상관없이 본래적 인간 조건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흠이나 잘못이 되지 않는다"며 "만해가 종교인이면서 한 명의 시인으로서 지금껏 인정받는 것은 다름 아닌 현실 감각없는 형이상학적 진리를 시 속에 담기보다, 살아 숨 쉬는 인간의 숨결과 현실감각을 담고 있기에 우리 앞에 여전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명환 교수는 1930년대 만해 스님이 신문에 연재한 소설 〈흑풍〉과 〈박명〉을 중심으로 살폈다. 만해 스님이 〈흑풍〉과 〈박명〉을 발표하던 시기는 일제가 국내적으로 무단 정치에서 문화정치를 표방하면서 중국 대륙 침략을 본격화하기 시작하던 때였다.

한 교수는 "만해가 〈흑풍〉과 〈박명〉을 조선일보에 발표했던 시대는 일제의 대륙 침략이 가열됐던 시기였다. 국내의 저항적 리얼리즘 운동은 퇴조하고 신문에 소설이 2~3편씩 연재되고 신문소설론, 통속소설 창작방법론에 대한 붐이 일어나고 있던 때였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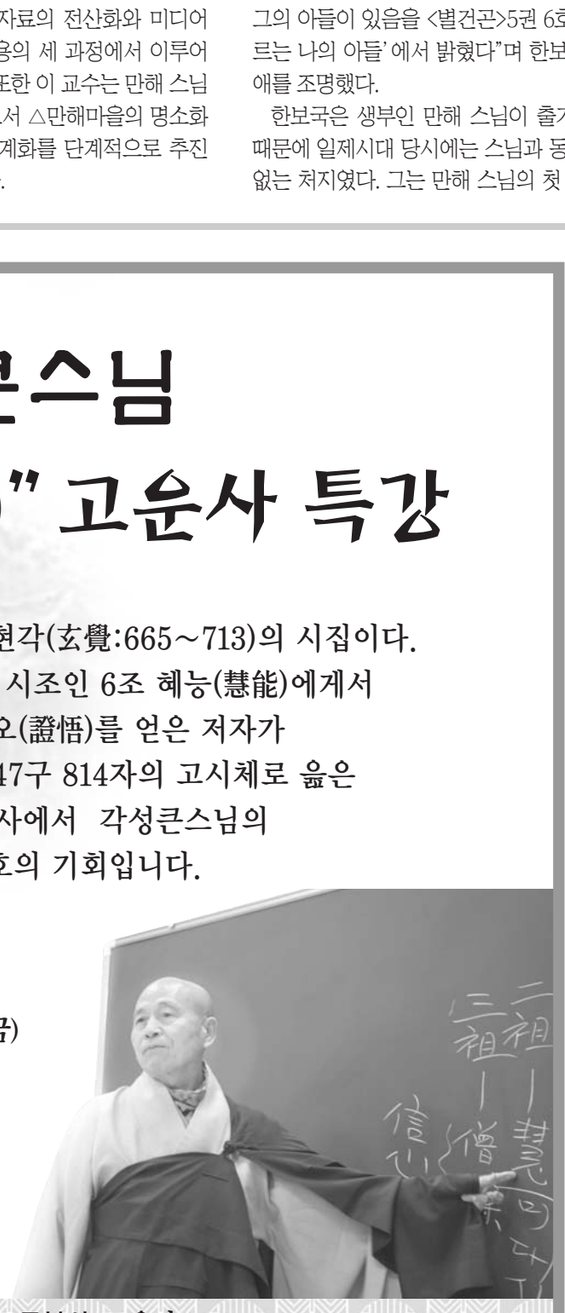
〈흑풍〉과 〈박명〉은 전통적인 이야기구조를 근대적인 상황에 접목시킨 한국 불교대중소설이다. 〈흑풍〉은 신해혁명기의 한 혁명가의 일대기 형식을 취했으며, 〈박명〉은 순영의 상경과 좌절, 구도의 행적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기술한 여성주인공의 일대기적 방식을 취한 소설이다.

한 교수는 "만해의 독특한 이력을 보면, 그가 어떤 주제의 소설을 써나갔으리라 하는 것을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다. 시승, 대처승으로서, 불교계대표, 민족 지도자로서 만해가 걸어온 길은 그 자체로서 1930년대 중반 탈식민적 글쓰기를 예견케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만해는 식민지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시조나 창, 가사, 판소리 등 한국인의 진정한 전통 예술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각성 큰스님
"증도가(證道歌)" 고운사 특강

중국 당나라 때의 선지식이신 영가(永嘉) 현각(玄覺:665~713)의 시집이다.
천태(天台)를 공부하였으며, 남종선의 시조인 6조 혜능(慧能)에게서
선요(禪要)를 듣고 하룻밤에 증오(證悟)를 얻은 저자가
그 대오의 심경에서 증도의 요지를 247구 814자의 고시체로 읊은
시인 "증도가(證道歌)"를 고운사에서 각성큰스님의
강의로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 일 시 : 2010년 8월 30일(월) ~ 9월 3일(금) 오후 2시
▶ 장 소 : 고운사 선체험관
▶ 참가대중 : 4부대중 누구나....
▶ 문 의 : 종무소 054)833-2324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태고 경남 전문 강원 학인 모집 안내

한국불교 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에서 수행자는 누구나 한번 배워야 할 부처님의 영원한 가르침과 깨달음의 길에 한걸음 다가가고자 오묘한 진리의 전문 강원을 개설하여 학인 스님을 모집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교육과정

과정 \ 학기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교양필수	초발심,선문촬요	치문	서장	도서, 선요, 절요
특 강	각 분야 전문 강사 초빙 강의			

1. 교육시간 : 2학년 4학기
2. 수강시간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30분 ~ 오후 5시까지
   (초하루 법회, 보름 법회, 지장재일, 관음재일은 화요일)
3. 응시자격 : 승려, 교임, 전법사, 타 종단 스님
4. 접수기간 : 불기 2554년 8월 15일 ~ 9월 3일까지
5. 구비서류 :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승려증 복사(태고종도는 생략), 입학원서(종무원 비치)
6. 수 강 료 : 한학기 20만원(교재비 별도), 우수한 학인은 장학금 지급됨.
7. 강 주 : 운범 스님(조계산 선암사 전 강주 스님)
8. 입학식 및 개강일 : 불기 2554년 9월 6일(월) 오후 3시

※ 원서 접수 및 문의처 : 한국불교 태고종 경남종무원
☎ 055)298-3634 / FAX 055)298-3638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양덕 2동 59-2번지 현대오피스텔 1201호

한국불교 태 고 종 경남종무원
종무원장 조 지 현
교육원장 김 철 우 합장

제 796 호 현대불교
2010년 8월 11일 수요일 / 불기 2554년
buddhanews.com

장보고 찾아 떠나는 일본역사기행

백제 흔적 고스란히 일본불교에서 옛 한국과 조우하다



역사기행에 참가한 학생들이 엔락쿠지 총무부장 스님으로부터 장보고 대사와 일본과의 관계 등의 설명을 듣고 있다. 가운데에 있는 '청해진대사 장보고비'는 완도군에서 건립한 것이다.

엔락쿠지 중창조는 신라인 사이초 스님
백제계 공고구미가 사천왕사 건립·관리

전남 완도 신흥사에서 운영하는 장보고아카데미(대표 법일)는 7월 29일~8월 1일 장보고 대사와 깊은 인연을 갖고 있는 엔락쿠지(延曆寺)를 비롯한 일본지역 문화답사를 다녀왔다.

이번 답사에는 장보고의 후예라 할 수 있는 완도지역 어린이 25명과 지도교사 8명 등 33명이 참여했다. 답사에 참여하는 일부 어린이들이 완도 주변의 섬에 사는 관계로 하루 전인 28일 신흥사에 모여 일정을 시작했다.

29일 12시 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한 배는 일본 후쿠오카를 향해 출발했다. 동해를 지나 일본 영해인 현해탄을 건넜다.

'현해탄'. 우리에게 많은 애증이 담긴 뱃길이다. 삼국시대에 한반도의 선진 문물은 이 뱃길을 통해 일본에 전달됐다. 통일신라에는 장보고 선단이 해외무역항을 만들어 많은 교역이 이뤄졌고, 한·일의 많은 중국유학생들은 이 뱃길을 통해 배움의 길을 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불과 500여 년 후 일본은 이 뱃길을 통해 한반도를 침략하고, 많은 조선의 도공과 문화재를 침탈해 갔다. 일제 병합과 태평양전쟁 때에는 수많은 곡식과 징용자들이 이 뱃길에서 큰 아픔을 겪었다.

30일 고베항에 도착하면서 '장보고를 찾아 떠나는 일본문화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일정은 고베 지진의 흔적을 공원으로 만든 메모리얼파크와 외국인들의 주거지인 키타노이진칸 답사를 먼저 시작했다. 이어 교토로 이동 키요미즈테라(淸水寺), 임진왜란의 원혼이 담긴 귀무덤을 찾았다.

#장보고 대사와의 깊은 인연을 갖는 엔락쿠지

오후 3시 장보고 대사의 비가 서 있는 엔락쿠지를 갔다. 엔라쿠지는 히에이산(比叡山)에 위치하며, 천태종의 본산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있다.

장보고 대사와 엔락쿠지와의 인연은 12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 일본 승려 엔닌(圓仁)은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에서 장보고 대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깊은 인연 등을 글로 남겼다. 엔닌 스님은 장보고 대사의 도움을 받아 당나라에 유학했고, 장보고 대사가 건립한 적산법화원에서 불법을 공부한 후 일본으로 돌아왔다고 기술했다. 일본에 돌아온 엔닌 스님은 이름을 크게 떨치고 이곳 엔락쿠지의 중창조로 사찰을 크게 번성케 했다. 한반도에서 잊혀질 뻔한 위대한 인물인 장보고는 한 일본 스님의 저서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엔락쿠지를 창건한 사이초(最澄) 스님 또한 신라인이다. 현재 엔라쿠지에는 신라명신을 주신으로 하는 적산궁이 있다.

#백제 불상의 아름다움과 성왕의 동상-법륭사

법륭사에 가면 구세관음과 백제관음 불상 2구를 만날 수 있다. 구세관음이 한국 불상이 된 일화가 있다. 보스턴미술관의 동양학 부장인 미국인 어네스트 페놀로사(1853~1908)는 1880~1890년대 일본에서 활동했다. 일본정부는 그를 예술고문으로 임명했다. 일본 내 모든 예술품을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그는 법륭사 몽전에서 구세관음상을 볼 수 있었다. 그는 500년간 한 번도 풀어본 적 없었던 비단보자기를 풀었다. 600년경에 통 녹나무로 만든 이 불상은 백제 성왕의 동상이었다. 화려한 총동투조의 관을 목격한 그는 환희에 차 "그렇구나, 한국 것이구나"라고 말했다. 이 말로 구세관음상은 한국의 것이 됐다. 그러나 한일합방 이후 일본의 학자들은 이 불상을 연구하면서 한국의 것이라 인식만 할 뿐 한국 것이라고 진실을 밝히는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법륭사 오층탑과 금당.(금당에는 고구려 담징 스님의 벽화가 있다)

구세관음은 1년에 한 번 공개돼 이번 방문에서는 볼 수 없었다. 안타까웠지만 7세기경의 백제불상 '백제관음'의 아름다움이 모두를 달랬다. 한국에서 찾기 힘든 백제의 미를 느끼는 순간이었다.

#한반도에서 일본으로-아스카문명 그리고 동대사

아스카문화는 6세기 말부터 7세기 전반까지 일본 최초의 불교문화로서 한국의 백제·신라·고구려 문화와 중국의 남북조 문화를 수용하여 이룬 문화다. 법륭사를 비롯한 일본의 고찰은 대부분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

7월의 마지막 날, 답사단은 옛 아스카 문화의 중심지였던 백제인이 만든 일본 최초의 절 아스카사에 갔다. 현재 임시로 만들어진 아스카사는 본래 탑을 중심으로 동서쪽과 북쪽에 각각 금당을 배치한 사원으로 바깥쪽으로는 회랑이 둘러져 있고 강당도 있는 장대한 가람이었다. 하지만 아스카사(飛鳥寺)의 옛터에 몇 가지 유물만이 듬성듬성 놓여있었다.

"이 부처님은 1405살이 된 아주 오래된 부처님입니다."

아스카사 터에서 백제양식의 청동본존불 석가여래좌상이 소개됐다. 1405세인데 늙지도 않고 그대로였다. 깨끗했다. 철저하게 문화재를 보존하는 이 나라가 부러웠다. 아스카 지역에 이어 세계 최대의 청동불상이 있는 동대사를 향했다. 동대사는 한국의 고대 삼국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알려진 절이다.

동대사 가람의 총책임자는 고구려인 고려복신(高麗福信)이 맡았다. 청동대불의 주조는 백제인 국중마려(國中麻呂)가, 대불전 건축은 신라인 저명부백세(猪明部百世)가 맡았다.



백제인 미마지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백제무용을 선보인 사천왕사의 석무대. 지금도 이곳에서는 매년 4월 22일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이 기술자들을 모아 동대사를 완성한 스님은 백제계 행기 스님과 양변 스님이다. 행기는 백제계로 일본에 건너 간 왕인(王仁)씨 계족(系族)의 후손이다. 대웅전과 전각들은 대부분 불타 1700년대에 일본식으로 복원한 건물로 지금은 당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백제무용가 마미지의 공연이 생생한 사천왕사

성덕태자는 일본에서 성인으로 추앙받는 위대한 인물이다. 백제계인 성덕태자는 오사카, 나라, 교토지역에 많은 사찰을 건립했다. 당시 백제계의 유명한 가문인 소가(蘇我)가문의 후원을 받아 불교국가를 만든 인물이기도 하다. 비조사, 법륭사, 사천왕사 등은 성덕태자가 발원하여 만든 국찰이다.

아스카문화를 주도한 성덕태자는 사천왕사를 지으면서 백제에 기술자를 요청했다. 이때 간 기술자중 한 사람이 전주 유씨인 유중광(일본이름: 공고시게미츠 金剛重光)이다. 절이 완성되자 성덕태자는 그에게 사천왕사의 보수와 관리를 맡겼다. 그 후 사천왕사의 보수와 관리는 유중광의 후손들이 14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맡아오고 있다. 유중광의 후손들은 목조건축회사 공고구미(金剛組)를 만들었다. 창업주부터 40대째 이어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이자, 최고의 목조 건축회사가 됐다.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의 양식으로 지어진 사천왕사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다. 바로 석무대이다. 백제인 미마지(味摩之)가 고구려에서 배운 탈춤과 백제무용을 선보인 곳이다. 미마지는 일본 무용의 시조로, 지금도 4월 22일 성덕태자의 기일에 이곳에서 고대 한반도의 무용이 펼쳐진다.

일본 답사를 마치고 완도로 돌아오는 길에 어린이들은 고대 한반도와 일본을 오가던 문화교류의 흐름을 되새겼다. 하루가 다르게 문화재가 훼손돼 가는 우리의 실정에 100년 혹은 200년 후에 우리는 지금의 것을 잘 계승하고 있을까. 고대 한반도로부터 물려받은 문화를 감추고 왜곡하지만, 그래도 긴 시간을 보존하고 있는 일본을 보면서, 당장의 4대강 공사로 문화재를 수장시키려는 우리의 현재를 보게 된다. 1000년 후 한반도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 허술한 관리로 잃어버린 국보 1호의 또 다른 복제품이 아니길 바란다.

글·사진=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교상담개발원과 함께 하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Q 저는 결혼 2년차의 주부입니다. 지금은 신랑과 아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시어머님이 하시는 일이 걱정입니다. 태고종으로 소속돼 있는 절이라고 하는데, 일반 가정집에다 법당을 차리시고 집 앞에는 대나무 같은 것이 있더라구요. 혹시 무속인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결혼 전에 재미삼아 사주까페에서 점을 본 적이 있는데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남편보다 집안을 먼저 보라고 하더군요. 그때 왜 무속인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인지 납득이 가는 것 같습니다. 왠지 제 아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것 같아 걱정입니다.

A 시어머니가 하시는 일 때문에 아들에게 해가 될까봐 걱정이 되시나 봅니다. 자식을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왜 무속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는지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면 몰라도 아무 이유 없이 그랬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소속이 태고종이라 하셨는데, 태고종은 조계종 스님들과 달리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조계종과 달라 선입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태고종에도 공부를 많이 하시는 스님들이 계십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절들은 좋은 곳에 잘 지어진 도량입니다. 하지만 도심의 절은 가정집 같은 곳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집 같은 곳이라 해서 무조건 무속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출가에 대해 나름 사연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하시는 일, 그 일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 직접 물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대나무에 대한 의문점도 직접 물어 보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지 말고 어머님과 대화를 통해 의문을 풀어보세요.

혹시 내담자의 기대와 어긋난 대답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내담자께서는 나름대로의 종교생활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큰절을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큰절이라는 것은 스님들과 도량의 기운 등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런 좋은 절에서 부처님 법을 공부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면 가족들에 대한 사랑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 봅니다.

Q 얼마 전 결혼을 약속하고 상견례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자친구에게 서운한 것이 너무 많이 쌓여 밤에 술을 먹고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부모님도 다 계셨는데 제가 술에 취해 그만 못 알아 뵙고 그냥 남자친구 방에서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남자친구 집에서 저랑 헤어지라고 한답니다. 어른들이 그날 일을 굉장히 노여워 하셨나 봅니다. 남자친구도 부모님께서 완강히 나오시니 어쩔 도리가 없다며 헤어지자고 하네요. 한 번도 실수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 날 왜 제가 그런 실수를 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용서 받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마음을 풀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용기도 나질 않습니다. 워낙 대쪽 같은 분들이시라 저를 다시 받아주실지 모르겠습니다.

A 지금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한 번의 실수였고, 충분히 그럴만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전통을 중요시 하는 어른들의 경우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심정이 공감이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미래 배우자인 남자친구와의 관계부터 돈독히 하셨으면 합니다. 그런 후에 다시 어른들을 찾아뵙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비록 엎질러진 물이지만 용기를 잃지 마시고 한 가지씩 차근차근 관계정립을 해나가시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거라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남자친구에 대해 서운한 감정이 들어도 맑은 정신으로 대화로 풀어나간다면 좋은 관계가 더욱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다니는 태고종 사찰이 만신집 같아요
태고종 사찰에 대한 편견 버리고 대화하세요

24시간 자비의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i24.org
청소년사이버 성상담 아하섹스 www.ahsex.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021-361
(예금주:사단법인 자비의전화)

일하는 데 나이는 걸림돌 아니에요

행복법당 탐방
금산사 보리수마을


전국에 유통되는 속옷상자의 절반 이상은 보리수마을을 거친다. 어르신들이 속옷상자 접기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전국 유통 속옷상자 절반 생산
한달 20~80만원 소득
전국 상위 노인 일거리사업장


보리수마을에서는 사찰에서 사용되는 종이 영가옷, 예수재 용품 등을 만들기도 한다.

손 하나 까딱 하기 싫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 전주 금사사 복지원 보리수마을의 어른신들은 더위도 잊은 듯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곧 다가올 우란분절에 사용될 종이 영가 옷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어르신들은 모두 합쳐 70여 명에 달한다. 모두들 예사롭지 않은 손놀림으로 일사분란하게 일을 하고 있다. 또한 어르신들은 이곳에 나와 자신이 일한 만큼의 보수를 받아갈 수 있어 더욱 보람을 느낀다.

보리수마을은 2001년 금산사 복지원(대표이사 원행)이 지역의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됐다. 하지만 처음 문을 열었을 당시에는 노인들의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아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일부 지역 업체에서는 일거리도 주지 않으려고 했다. 그 바람에 보리수마을은 한 동안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하지만 철저한 품질관리와 재고 관리시스템, 납품기간 이행, 생산성 향상을 통해 업체들로부터 신뢰를 쌓아가기 시작했고, 점점 일거리도 늘어나게 됐다.

보리수마을의 주된 작업은 속옷 전문 제작회사의 관련된 일들이다. 속옷 상자 접기, 수출용 볼펜 조립, 철끈 자르기, 유아복 가공, 열쇠 조립 등 다양한 일을 진행하고 있다. 초파일 전에는 종이주름등을 만들었으며, 요즘은 사찰에서 생전예수재나 49재 때 사용하는 종이 영가옷, 예수재 용품 등도 제작하고 있다. 모두들 휴가철이라 한산하기만 한 때에, 보리수마을은 쉴 틈이 없다.

보통 전국에 유통되는 속옷상자의 절반은 이곳 보리수마을을 거쳐간다. 지역에 속옷을 생산하는 기업이 많은 관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리수마을의 근무는 누가 관리감독을 따로 하거나, 출근시간을 정해 놓고 일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느 직장과 다름없이 출퇴근 시간을 정해 업무를 한다. 어르신들은 보통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한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일을 해서 받는 수입은 개인당 차이가 있지만, 보통 1달에 20~30만원 수준이다. 최고 80여 만원까지 수입을 받는 분도 계시다.

일반 젊은 사람들의 수입에 비한다면 적은 돈이지만, 어르신들은 자신의 용돈을 벌어 쓸 수 있고, 또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만족해한다.

보리수마을에서 일하는 전체 어르신들의 연간 수입은 1억5000여만 원이 넘는다. 전주시 7개 노인 일거리사업장이 있지만 보리수마을은 그곳에 비해 3배 정도 많은 수입을 가져간다.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

한정임(전주시 진북동 · 80) 할머니는 "친구들을 만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정보도 얻으며 즐겁게 지낼 수 있으니 정말 좋다"며 "부지런히 일을 하면 치매예방도 되고, 마음과 몸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냐"고 반문한다.

벌은 돈은 어디에 쓰냐는 질문에 한정임 할머니는 "아플 땐 약도 사먹고, 대부분 손자들 용돈으로 쓴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아들내외가 나를 모시고 살겠다고는 했지만 고향을 떠나는 것도 싫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규준(전주시 평화동 · 78) 할아버지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취업하기 힘든 세상인데 이 나이에 일을 하게 돼서 기쁘다"며 "집에만 있으면 할머니와 자꾸 다투기만 하는데, 일거리 센터에 나오면 일을 하며 건강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다"고 답했다.

보리수마을 이성강 관장은 "보리수마을은 현재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의 후원이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도 어르신들이 잘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중점으로 육성한 덕분에 지금과 같이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어르신 일거리 센터가 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답했다.

이성강 관장은 "앞으로 늘어가는 노인 인구를 감안해 넓은 작업 공간을 확보하고 업체들의 참여도 확대해 더욱 많은 어르신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즐거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보건식품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육과목	교육기간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표정관리 및 웃음치료, 최면요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건강식품업소탐방,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교육생 상시 모집

중앙교육원 - 홈페이지 www.kie.or.kr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 의 : Tel. 02)3147-2020. 02)393-5111

지부교육원
영남교육원 055-543-3155 부산교육원 051-441-0111 울산교육원 052-260-1037
호남교육원 063-254-5529 지리산연수원 063-635-5112 제주교육원 064-755-7588
대구교육원 053-566-1116 해운대교육원 051-757-9990 충청북부교육원 043-263-9966
광주교육원 062-672-5432 경남서부교육원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5-2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도우미]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참 모습으로 돌아간 고승들의 가르침 참되게 배워라

㊴ 땅끝에서 크게 흥한 도량 대흥사


대흥사 부도밭.


서산 대사 부도.


대흥사 표충사의 서산당 휴정대화상 진영.

"내가 죽거든 나의 의발(衣鉢)은 반드시 해남으로 돌려보내도록 하라. 이 지방에는 산이 있으니 두륜산이고, 절이 있는데 그 이름이 대둔사(大芚寺)이니라. 거기서 남쪽을 바라보면 달마산이 있고, 북쪽으로는 월출산이 있으며, 동쪽에는 천관산이 있고, 서쪽에는 선은산이 있다. 이 산들은 내가 참으로 좋아하는 산들이다. 해남 지방은 척박하며 황폐한 곳이어서 왕화(王化)가 미치지 못하며 민속이 우매하다. 내가 이렇게 당부하는 것은 이를 보고 감화되어 나라에 충성할 마음을 일으킬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니, 그렇게 된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해남 대흥사에 있는 서산대사 표충사(表忠祠) 기적비문에는 청허당(淸虛堂) 휴정(休靜 1520~1604) 스님의 의발이 대흥사에 모셔지고 표충사가 건립된 배경이 자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서산대사 휴정 스님은 임진왜란 때의 승병장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선승으로서 학승으로서 당대 최고의 경지를 보였던 희대의 걸승입니다. 그러기에 풍전등화의 국난을 맞아 분연히 일어나 나라를 지키는 일에도 승도(僧徒)의 길이 있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대흥사가 대흥사가 된 이유는 바로 서산대사의 의발이 봉안된 데서 비롯됩니다. 비문에 나오다시피 당시의 절 이름은 대둔사였습니다. 절을 품은 산 이름이 원래 대둔산이었다가 두륜산(頭輪山)으로 바뀌었는데 절 이름은 대둔사로 남아 있다가 서산대사의 의발이 봉안된 뒤로 선교를 막론하고 여러 명의 종장들이 배출되어 '크게 흥함'을 뜻하는 대흥사로 바뀐 것입니다.

비문을 의지하지 않는다 하여도 당시 해남은 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해 중앙정부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었고 왜구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곳입니다. 그러한 척박한 곳에 자신의 의발을 두게 한 서산대사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평생 수행자로 살았고 한낮의 닭 울음소리에 활연대오(豁然大悟)하여 천지에 막힘이 없었던 고승은 '죽어서 다시 사는' 원력을 보였던 것입니다. 묘향산 원적암에서 입적(入寂)한 당대 최고의 스승이 가장 멀고 척박한 곳에 자신의 법을 상징하는 의발을 두라고 했으니 그보다 큰 법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원력은 하늘을 감동시키고 땅을 진동케 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흥사는 수많은 선지식들을 길러내는 옥토(沃土)가 되고 있으니 불일증휘(佛日增輝) 법륜상전(法輪常轉)은 이를 두고 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흥사 부도밭은 일주문을 지나 오른쪽에 있습니다. 대흥사가 배출한 걸승들의 부도 54기와 27기의 탑비가 무언의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부도들은 대개 조선 중기 이후를 살다간 고승들이 주인이고 조성 솜씨는 신라와 고려시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순박한 정성이 한껏 묻어 경건함을 더해줍니다.

뒷줄 가운데 서 있는 서산대사의 부도(보물 제1347호)는 팔각의 몸돌에 '청허당'이란 세 글자를 새기고 있습니다. 탑비는 그 앞에 있는데 몸돌이 정사각형이고 낮게 엎드린 거북은 머리를 앞으로 쭉 내밀었습니다. 이수는 사각의 갓머리 위에 연꽃을 올린 모습입니다. 부도의 지붕돌은 단정하면서도 화려한 기품을 드러내고 있으며 귀마루에는 귀꽃을 대신하여 용머리와 원숭이, 양 등이 모각되어 있습니다. 그 위를 장식한 상륜부에 구름 속을 노니는 네 마리의 용이 엉켜 있는 모습은 상서로운 기운을 풍기고 있으니 서산대사의 풍모가 거기서 드러납니다.

팔각의 고임돌 위에 다시 팔각의 하대석을 올리고 복련의 각 면에는 안상을 표현했는데 용의 몸통이 유려합니다. 중대석은 모서리마다 사자와 원숭이 등의 동물상이 표현되고 중앙에는 운룡문이 화려합니다. 무엇보다 소담스런 한 송이 연꽃을 받쳐 올린 듯한 상대석에는 거북과 꽃게를 새겨 넣어 독특합니다. 거북과 꽃게 등의 문양은 대흥사 부도밭의 다른 부도와 탑비는 물론 인근 미황사의 부도밭이나 대웅보전 주춧돌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명대사의 부도 앞에는 대흥사가 배출한 또 한 분의 걸승 초의(草衣 1786~1866) 스님의 부도가 탑비와 함께 서 있습니다. 지대석 위에 사각의 고임돌을 올리고 다시 안상에 물고기 문양을 새긴 사각의 고임돌을 올렸습니다. 그 위에 다신(茶神)으로 살았던 스님의 생애처럼 둥그런 몸돌이 놓이고 그 가운데 '초의당'이란 세 글자가 신령스러움을 표현한 곡선문양 속에 음각되어 있습니다. 지붕돌과 상륜부는 크게 문양을 넣지 않았으니 이 역시 검박한 다승(茶僧)의 풍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앞에 탑비가 서 있는데 조각을 하지 않은 막돌을 비좌로 삼았는데 돌 모양이 꼭 거북을 닮았습니다. 역시 초의 스님의 풍모가 그렇게 드러나고 있음에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서산대사에서 초의 스님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을 생각합니다. 부도밭의 가운데에는 서산대사의 부도와 초의 스님의 부도 그리고 풍담대종사(1592~1665), 월저대종사(1638~1715), 연담유일대종사(1720~1799)의 부도 등이 탑비와 함께 서서 걸승들의 법향을 풍기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척박한 땅에 법의 비를 내려 기름진 불국토로 가꾼 명장들인 것입니다.

서산대사가 변방의 작은 절 대둔사에 의발을 두게 하여 불법(佛法)의 햇빛이 찬란하게 빛나도록 한 이래 대흥사는 명실공이 선교의 총본산이 되었고 13명의 대종사와 대강사가 배출되었습니다. 부도밭 오른쪽 어귀에 길쭉한 돌기둥 하나가 서 있는데 거기 큼직하게 '13대강사도량'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부도밭 위의 반야교를 지나면 오른쪽 바위 위에 또 하나의 돌기둥이 있고 거기에는 '13대종사도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 도량에서 13명의 선사와 강사가 배출되었다는 것은 서산대사가 선교를 둘로 나누지 않았던 가풍을 그대로 현현(顯現)한 것입니다.

서산대사 이후 선과 교학의 고덕들 부도 즐비

화려함 보다는 질박한 솜씨로 정성 담아 '경건'

서산대사를 뿌리로 하는 그 문도들은 사명당 유정(惟政 1544~1610)계와 편양언기(鞭羊彦機 1581~1644)계, 소요태능(逍遙太能 1562~1649)계, 정관일선(靜觀一禪 1533~1608)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편양언기와 소요태능의 문파가 대흥사를 중심으로 법손을 융성하게 하여 13명의 선사와 강사를 낳았습니다.

13명의 대종사에서 13번째 대종사가 초의 스님입니다. 그리고 13번째 대강사는 <동사열전>의 저자 범해각안(梵海覺岸 1820~1896) 스님입니다. 범해 스님은 경율론 삼장에 능통하고 유교와 도교의 외전들에도 막힘이 없어 승가와 불자는 물론 유학자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다고 합니다. <동사열전>은 삼국시대에서 조선말까지의 스님들의 법맥과 수행가풍 등을 소개한 명저입니다.

범해 스님은 <동사열전>에서 초의 스님을 '초의선백전(草衣禪伯傳)'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선교의 학문뿐만 아니라 유학과 도교 등 제반 학문에까지 조예가 깊었으며 범서(梵書)에도 능통하였다. 완호 스님의 조실에서 향을 사르고 법맥을 이었으며 금담조사에게 선법을 전수받았다. 스님은 이후 금강산 지리산 한라산 등 명산을 유람하는 한편 정약용 신위 홍석주 김정희 윤치영 등 당대의 대학자들과 폭넓은 교유를 가졌다."

대흥사 부도밭의 맨 오른쪽에 그리 오래되지 않은 부도 하나가 서 있습니다. 초의 스님의 다맥(茶脈)을 이었고 일제에 맞서 독립운동을 했던 응송(應松 1893~1990) 스님의 영골이 안치된 부도입니다.

대흥사 부도밭으로 들어가는 낮은 대문에는 '진화문(眞化門)'이란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부도밭이 죽음의 공간이 아님을 강하게 어필하는 이름입니다. 죽음을 넘어 참된 세상으로, 참된 모습으로 된다는 것이니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진실과 거짓의 그늘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선과 악의 두 극단을 초월하는 힘이야말로 수행의 궁극일 것입니다.

살아 있는 동안의 수행이 몸을 벗어 던지고 난 뒤에 '진화(眞化)'가 되거나 '가화(假化)'가 되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우리는 오늘도 얼마나 많은 거짓과 악의 꿀물을 빨아먹고 있는지 살펴볼 일입니다. 서산대사가 입적을 앞두고 자신의 영정에 '80년 전에는 그대가 곧 나였는데, 80년 후에는 내가 곧 그대일세.' 라고 쓴 뜻을 화두로 간직해야 하겠습니다.

부도 앞에 정사각형으로 새워진 '청허대사비'의 비문에는 국난(전쟁)을 당하여 승려가 칼을 들고 적을 살생한데 대한 '계율논의'를 일축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논쟁은 유학자들 사이에서 더 많았고 비문을 지은 장유(張維 1587~1638) 역시 홍문관 대재학 신분이었습니다.

"피상적으로만 보는 소극적인 인사들은 간혹 스님에 대하여 세속적인 일에 치우쳐 의승병을 규합하여 왜적과 싸워 많은 희생자를 내게 하였으므로 계율정신에 위배된 일이 아닌가라고 의심도 하지만, 그러나 식견(識見)이 있는 사람들은 스님이 호국을 위해 퇴적(退賊)한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식견이 없는 사람이 부지기수여서 큰 것을 보려하지 않고 말단지엽(末端枝葉)에 걸친 잇속을 위해 '대의(大義)'로 가장하고 전체를 들쑤시는 일이 허다합니다. 우리 사회를 둘로 나누고 있는 보수와 진보 사이에도 '진화문'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임연태 (시인 · 본지논설위원)

www.buddhashopping.com
NAVER 검색창에 붓다쇼핑 을 쳐보세요
백중 영가옷
B형-남자 구성 : 상하의(저고리,바지), 양말, 봉투
B형-여자 구성 : 상하의(저고리,치마), 버선, 봉투
종이영가옷Ⓐ형-남/여 할인가 각1,200원 정가 1,500원
종이영가옷Ⓑ형-남/여 할인가 각1,000원 정가 1,300원
종이영가옷Ⓒ형-남/여 할인가 각 950원 정가 1,200원
종이영가옷-동남/동녀 할인가 각 800원 정가 1,000원
종이영가옷-수자 할인가 각 600원 정가 800원
영가천도다라니 할인가 각 800원 정가 1,000원
※ 종이영가옷은 한벌씩 봉투포장되어 있습니다.
A형은 B형구성에 더하여 신묘장구범어, 진언부적, 백만관 3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인가 1,000 (100벌 이상)
B형-남
법화경 사경책 시리즈
한문 한글 우리말
11~17호 19~25호 34~40호
※ 우리말로 해석된 경전사경책은 금강경 1권, 지장경 2권, 법화경 7권(한문/한글/우리말)이 있습니다. 연하게 인쇄된 밑글씨를 따라 사경할 수 있는 우리말 풀이 사경책 시리즈입니다.
※각 7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0권이상 주문시 할인가 적용됩니다.
할인가 4,200원(1권) 정 가 6,000원(1권)
할인가 3,500원(1권) 정 가 5,000원(1권)
할인가 2,100원(1권) 정 가 3,500원(1권)
한지접은 영가옷(남)/영가옷(여)/위패 30,000원 (100개)
예수재함A (50개) 50,000원 (1박스)
행복으로 가는길 3,000원
자비도량참법 9,000원(20권이상)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515-8888
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휴대폰 : 011-554-2988, 011-879-0889
☎ 515-2988, 555-1087, 508-9377~8
팩스 : 508-0101 인터넷 : 070-7425-0518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6㎝]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삽!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종교자유정책연구원

한국사회에서의 시민종교 가능성

2010년 7월 정부의 4대강 개발 즉각 중단 등을 촉구하는 '조계종 승려 4812인 생명평화선언'에는 5000여 조계종 스님들이 참여함으로써 한국불교 사상 최대 규모의 시국 선언으로 기록됐다.

가톨릭도 3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춘계 총회에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주교단 명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주교단 명의로 사회적 쟁점을 두고 성명서를 낸 것은 25년 만의 일이었다.

개신교는 6월 중순에는 보수 개신교 목사들이 포함된 5대 종단 지도자 500여 명이 남북정상 회담과 대북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는 등 사회적 이슈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대강 사업, 용산참사, 환경파괴, 대북지원, 낙태 등 사회문제의 선두나 배후에는 성직자들이 있었다. 특정 종교가 특정 사회문제를 두고 교리적으로 접근해 적극적으로 나서는가 하면, 4대 종단이 시민단체와 연대해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종교와 시민사회와의 결합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주요 종단들은 다원화로 대표되는 시민사회의 흐름을 역행하며 사회권력화 되거나, 종단 기본교리에도 어긋나는 행동도 서슴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의 가치기준으로 한국 종교의 현주소는 어디일까? 종교적 신념과 가치체계에서 종교와 시민사회와의 결합모델을 찾고 종교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살펴보는 자리가 펼쳐졌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총재 자승, 이사장 오현, 이하 선양회)는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서울 만해NGO센터에서 '한국사회에서의 시민종교 가능성' 을 주제로 불교, 가톨릭, 개신교 3대 종단의 시민사회와 소통 가능성과 방법론을 강의했다.

이번 강의는 만해사상실천선양회와 함께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우리신학연구소,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주관으로 8월 17일 같은 장소에서 개최할 2010만해축전 심포지엄에 앞서 열린 강연이었다. 심포지엄에서는 '불교, 천주교, 개신교와 시민사회의 소통가능성과 방법론'에 대한 연구자료 발표와 함께 윤남진 NGO리서치 소장의 '종교와 시민사회, 그 관계의 진화'의 발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상언 기자

열린 자세·낮춘 문턱으로 시민사회와 소통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박문수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부원장, 박희택 불교아카데미 원장, 이찬수 종교문화연구원장.



7월 5000여 조계종 스님이 소신공양 문수 스님의 뜻과 의지를 계승하고 4대강 개발중단을 촉구하는 생명평화선언에 동참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불교 지향점은 시대 질곡 넘는 혁신 성취
보수적인 개신교의 의도적 선교정책 지양
종교의 사회권력화 배제 천주교단 쇄신

#시민종교 지향하는 불교
-박희택 불교아카데미 원장

불교는 시민종교를 지향한다. 석존 당시 인도의 근대화, 상업 및 도시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평등이념을 내걸고 상업 세력의 지위와 권익을 옹호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석존은 중의(衆意)에 의해 운영되는 것, 신들의 권위에 의존하기를 부정했다.

시민종교로서 불교가 지향하는 바는 시대적 질곡을 건너는 혁신을 성취하는 것이다. 방법론으로는 공화적 이상을 견지했다. 남북대결(분단극복), 4대강 문제(문수 스님 소신공양), 방법론적으로 공화적 이상을 저버리는 독단의 국정(5공으로의 회귀) 등에 대해서 비판하는 참여불교적 접근은 불교의 본질에 부합하는 시민종교로서 불교의 참된 모습이다.

승가의 운영 메카니즘이라 할 갈마법(羯磨法)은 공화국의 이념 및 규정과 결부된 것이다. 구족계 의식이나 특별한 소임을 맡을 비구의 선출, 승단에서 발생한 쟁사의 해결 등 크고 작은 모든 결정을 비롯해 승단의 중요한 정기행사인 포살이나 자자 등도 모두 갈마에 의해 진행된다. 승가갈마의 목적은 교단을 통제하고 유지 발전시켜 화합된 승가를 만드는데 있다. 갈마법이 체계화 된 율장은 공화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시민사회를 지탱하는 원리인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는 '열림'과 직결된다. 공론장에 참여하는 개방성은 자기깨침을 기재로 한다. 불교와 시민사회의 소통의 가능성은 불교의 자기 깨침의 개방성에 있다.

불교가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사상적 기반은 내세관, 인과관, 관용관이다. 현세를 중시하되, 현세에만 머물지 않고 과거와 미래를 통관하는 삼세관은 자기이익 중심적이기 쉬운 시민들의 안목과 호흡을 길게 해 준다. 인과관과 관용관은 시민사회에 필수적인 것이다. 인과관은 자기 책임의 원리이며, 관용관은 사회통합의 원리다.

<법화경> 방편품에는 "수없는 방편과 가지가지 인연과 비유와 이야기"를 방법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불교가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시민들을 깨침으로 이끄는 방법론에는 이 네가지를 상정할 수 있다. 4가지 방법론은 '법화칠유(法華七喩)'에 시민사회에서 살아가는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소통하는 지혜가 녹아있다. 지혜의 종교인 불교는 다양한 근기의 중생이 숨 쉬고 있는 시민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7가지 비유에 보이는 지혜의 방법론 즉 방편을 사용할 수 있다.

#종교의 권력화 경계해야
-이찬수 종교문화연구원장(前 강남대 교수)

개신교의 시민종교의 가능성은 이웃의 권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할 줄 아는 성숙한 종교적 자세, 공정한 형식 속에서 자발적인 대화와 공동의 합의에 근거한 보편성 확보에서 비롯된다.

세계는 도시화, 대량생산에 따른 분업 가속화, 제도의 급증, 국가종교 쇠퇴, 집단보다는 개인의 목소리가 존중되고 있다. 사생활화, 분화된 사회형성, 종교의 독점도 사라지는 것이 인류사의 흐름이다. 특히 '다원화' 속에서 종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의견' 차원에서 변모한다. 여러 종교들이 백화점에 전시돼 고객의 선택을 기다리는 상품 같은 상황에 처하는 '시장상황(market situation)'에 놓이게 됐다. 이런 현상을 '세속화'라고 한다. 진리의 초월성보다는 진리의 내재화, 진리를 내면에서 찾는 것을 중시한다.

한국의 개신교는 초자연적유신론, 근본주의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지만 하향적, 획일적, 통일적 일방통행을 여전히 꿈꾼다. 한국 개신교가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위해서는 내적 가치를 남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자세를 줄이고, 영적 복지가 종교들의 공공성 확립을 통해 확대돼야 한다. 한국의 경우 보수적 개신교의 의도적 선교정책과 언어는 종종 '시민종교'적 흐름의 역행이 지속되고 있다.

수평적 개인 사회에서 종교가 권력의 힘을 빌어 세를 확장하려는 것은 종교의 내실이 빈곤해져 가고 있음을 드러내는 일이다. 종교의 이름으로 타자를 억압하는 행위가 가장 반종교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종교의 권력화는 경계해야 한다. 기독교가 권력과 야합하는 현상은 이미 대대로 한국의 기독교가 내리막길로 들어섰다는 증거이자, 그것을 기독교 지도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정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범재신론(凡在神論, panentheism)'이라는 신관에 대한 인식의 폭이 확장되고 있다. 모든 것이 하느님 안에 있으니, 신은 모든 것보다 더 큰 이가 된다. 그 큼을 나타내는 말이 '초월성'이다. 즉 신을 구름 너머 특별 공간에 있는 존재로 상상하는 데 머물지 않고, 인간안에 계신 분으로 만나고자 한다.

완전한 절대주의, 순수한 객관주의라는 것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 세상이다. 시민종교는 제도화된 종교와는 무관해 보이지만 의사소통이나 사회 통합적 차원에서는 사실상 종교의 역할을 강조한다. 진리는 '대화'를 하고 '관계'에 의한 것일 때 대중에게 설득력을 주고 있다. 공정한 형식 속에서 자발적인 대화와 공동의 합의에 근거한 보편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웃의 권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할 줄 아는 성숙한 종교적 자세가 요청된다.

#내적 쇄신으로 시민사회 흐름에 따라야
-박문수 한국 가톨릭문화연구원 부원장

가톨릭은 내적 쇄신에 주력해야하고, 시민사회와 공동의 대의를 위해 협력하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가톨릭은 시민사회에 대한 입장을 개인의 권리 행사를 위한 새롭고 긍정적인 길을 열어주어 민주주의 생활을 질적으로 풍부하게 해주는 수단으로 평가한다(간추린 사회교리, 419항).

가톨릭 사회교리의 관점에서 볼 때 시민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교회가 시민사회와 협력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일은 교회의 본래 사목 직무에 해당되는 것이다.

가톨릭이 시민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선행과제는 종교NGO들이 제기하고 있는 종교권력 담론에 귀기울이는 것이다. 종교권력 담론의 내용은 한국의 주요 종단들이 사회권력화 됐고, 자신들이 선포하는 메시지와 모순된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성직자의 권위주의, 불투명한 재정운영, 시민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충돌하는 재원 운용, 권력 다툼이 온존하는 등 교단 쇄신도 중요한 과제다.

2010년 춘계 주교회의 총회에서 발표한 성명서와 같이 국가의 중요의제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가톨릭 사회교리에 입각해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발표 문헌은 사회분석이 탁월하고 이에 대한 처방도 매우 현실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일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려면 가톨릭 사회교리를 바탕으로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신자 학자들이 양성돼야 하고, 주교회의 산하에도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연구소나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NGO들의 가톨릭 접근도 중요하다. NGO에서 천주교 고위성직자를 직접 예방하거나, 초청해 활동을 소개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직접 도움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이해를 시키는 과정은 필요하다. 사업을 구상할 때 종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고안해야 한다.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454-1 / 사무실 : 02) 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27>

참으로 사람 얻기 힘들구나

조주 스님이 상당해 잠시 말이 없다가
"대중은 다 모였는가?"
하고 물었다. 대중이 대답했다.
"다 모였습니다."
"한 사람 더 오면 설법하겠다."
한 승이 말했다.
"기다려도 올 사람이 없으니 곧 화상께서 설함이 좋을 듯합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참으로 사람 얻기 힘들구나."

上堂良久 大衆總來也 未對云 總來也
師云 更待一人來卽說話
僧云 候無人來卽說似和尙
師云 大難得人

대중이 다 모였는데도 한 사람을 더 기다린다고 했던 조주 스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여기서 문맥상으로 살펴보면, 당시 그렇게 모인 대중 말고 뭔가 특별한 사람을 기다린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선사가 상당해 이렇게 말할 때는 당시 대중 중에서 누군가 이것을 알아채고 즉시 일어나서 그동안 공부한 견해를 한 번 밝혀봐야 한다. 조주 스님이 기다리는 사람은 눈 밝은 납자를 기다린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 대중 중에는 아무도 조주 스님의 기다리는 사람이 되지 못했던 듯하다. 오히려 이제 사람이 다 모였으니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설법하심이 좋을 것 같다했으니 조주 스님의 의도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주 스님은 사람 얻기가 참 힘들다고 토로한 것이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얻기가 힘든 것은 마찬가지이다.

조주 스님이 대중이 모인 차에 말했다.
"밝다고 하나 밝지 않고 어둡다고 해도 밝아지려고 할 때이다. 그대는 어느 곳에 있는 것인가?"
학승이 말했다.
"양쪽에 없습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렇다면 중간에 있는 것이로군."
학승이 말했다.
"만일 중간에 있다면 양쪽에 있는 것이 됩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이 중은 나의 이곳에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이러한 말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삼구(三句)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다. 가령 빠져나온다 해도 역시 삼구(三句) 속에 있는 것이야. 자, 자네 어떠한가?"
학승이 말했다.
"저는 삼구(三句)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왜 빨리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師因參次云 明又未明 道昏欲曉 你在阿那頭
僧云 不在兩頭
師云 與麼卽在中間也
云 若在中間卽在兩頭
師云 這僧多少時在 老僧者裡 作與麼語話 不出得 三句裡 然直饒出得也再三句裡 你作麼生 僧云 某 甲使得三句 師云 何不早與麼道

삼구(三句)는 이쪽과 저쪽, 그리고 이쪽과 저쪽을 떠났다고 한다면 그것이 삼구(三句)이다. 즉 밝다하고 말한다면 일구(一句)에 떨어진 것이고, 어둡다고 말한다면 이구(二句)에 떨어진 것이다. 만일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삼구(三句)에 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밝다고 할 수도 없고 어둡다고 할 수도 없고, 밝지도 않고 어둡지 않다고도 할 수도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에 대해 학인은 다만 때에 따라서 삼구를 사용할 뿐이라고 했더니 조주 스님은 그때서야 비로소 학인을 인정한 것이다.

이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면 부처에 집착하면 일구에 떨어진 것이고, 중생계에 집착해도 이구에 떨어진 것이니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고 부처와 중생을 다 떠났다고 해도 역시 삼구에 떨어진 것이니 집착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진리에 부합하는 삶의 자세는 부처와 중생계에 다 집착하지 않을뿐더러 이 세계를 벗어나서 다른 것을 찾지도 않는 것이다. 다만 자신이 부처임을 한 번 깨닫고 즉시 부처의 길을 가되 내가 부처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삼구(三句)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답은 오랜만에 조주 스님이 학인을 인정하는 문답으로 이뤄져있다. 학인의 말이 옳다면 인정해주는 것도 선지식이 할 일 중에 하나이다. 선어록이 끝없이 부정으로만 채워진다면 이 선법(禪法)은 오해받기 쉽고 그런 법은 사라지기 쉽다.

학승이 물었다.
"시방을 관통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대답했다.
"금강선(金剛禪)을 떠나는 것이야."

問 如何是通方
師云 離却金剛禪

방(方)은 각 방면을 뜻한다. 4방보다 세분할 때는 8방이라고 하고, 8방보다 세분해 말할 때는 상방과 하방까지 합해 10방이라고 말하는데, 편리한 발음을 위해 시방(十方)이라고 부른다. 시방은 보통 우주라는 의미로 통용된다.

우주를 관통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사바세계 한 국토에 있는 것을 다 관통했다고 해도 대단한 일인데, 시방을 관통했다면 가히 부처님과 같이 영웅 중에 영웅이 아니면 그리되기 힘들다. 그런데 조주 스님은 우주를 관통하는 것에 대해 간단히 대답해버리고 말았다.

즉, 금강선(金剛禪)에서 벗어나는 것이 시방을 관통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금강선은 요지부동의 절대 선정을 얻은 것을 말한다. 만약 누가 한 번 앉으면 수 시간, 혹은 수일을 망상 없이 한 가지에 마음이 고정돼 있다면 그는 정(定)에 들어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설사 죽을 때까지 않아있다고 해도 단 한 번의 망상도 없이 선정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선정을 금강선이라고 할 수 있다.

온갖 것을 다 겪고 살아가도
마음은 고요해야 삶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요지부동의 선정 상태는 모든 수행자들이 동경하는 경지이다. 생도 죽음도, 분노도, 미움도 없이 오로지 고요한 마음 하나만 가득해 마음이 마치 고요한 허공과 같으면 일체를 벗어난 절대 경지에 들어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절대 경지에 들어가도 이 절대 경지를 즐기고 있다면 이 또한 병(病)이 들은 사람이다. 사람은 살아있고 정상적인 생활 속에서 마음이 고요해야 한다. 복잡한 사회 속에서 온갖 것을 겪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은 항상 고요해서 무엇을 보고 느껴도 고요해야 삶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을 돌과 나무와 같은 마음이 됨을 즐거워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런 삶은 사람의 삶이 아니다. 돌과 죽은 나무는 천지에 가득하다. 그것을 부처라고 떠받들면 되지, 무엇 때문에 죽을 고생해 금강선을 닦는단 말인가. 금강선에 들어간 자는 금강선을 버려야 한다. 불교에 들어간 자는 불교를 버려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그는 사통팔달 모르는 것이 없는 지혜를 마음대로 쓸 것이다.

■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귀 교수의
선어록 해제 ❽ 종보본 <육조단경(六祖壇經)>

선정 · 지혜의 일체를 세우다

보리달마 시대로부터 육조혜능 시대에 이르는 시기를 소위 초기선종시대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 시기는 인도의 붓다로부터 발생하고 형성된 선법이 중국에 전래됨으로써 중국 선종의 토대를 구축했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다양한 선경(禪經)이 전래되고 번역됐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선법에 관련된 저술 및 어록 등이 출현하던 시대이다. 이와 같은 초기선종 시대의 최후로서 이후에 전개되는 중국선종의 토착화를 구축한 인물이 육조혜능(638~713)이다.

혜능은 이전 동산법문으로 불리던 홍인의 십대 제자 가운데 가장 걸출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다. 선법을 일상의 생활 속에 끌어들였으며, 수행과 깨침으로 대변되는 선정과 지혜의 일체(一體)를 내세우고, 정토 · 삼학 · 사홍서원 · 삼귀의 · 삼신 등에 대해 자성법문으로 전개해 소위 중국적인 선법의 토대를 완성했다. 이와 같은 혜능의 선법은 <육조단경>에 잘 나타나 있다. 혜능에게는 이 밖에 <금강경>에 대한 일종의 주석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육조구결(六祖口訣)>도 전해진다. 초기선종 시대에 중시되었던 <반야경> · <유마경> · <열반경> · <법화경> · <화엄경> 등에서도 <단경>의 사상적인 바탕은 <반야경> · <열반경> · <유마경> 등이었다.

<육조단경>은 <단경>, <법보단경>, <육조대사법보단경>, <남종돈교최상대승마하반야바라밀경육조혜능대사어소주대범사시법단경>, <남종돈교최상대승단경법일권>, <남종돈교최상대승마하반야바라밀경>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이 <단경>은 중국 선종의 제6조 대감혜능(638~713)의 어록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등사서(傳燈史書)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보리달마를 초조로 해 제6조 대감혜능으로 계승되는 중국 선종의 계보는 <단경>을 거쳐 지거(智炬)의 <보림전(寶林傳)>에 의해 확정됐다. 이후 <조당집> 및 <경덕전등록>으로 계승됐다.

이로써 <단경>은 소위 중국적인 선법의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것이 곧 선종에서 중시했던 정법안장의 계승이라는 점에서 전등설의 확립과 수증관의 입장에 대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됐기 때문이다. 그것은 <보림전>의 형성 직전에 이미 <단경>을 통해 전등설로는 과거의 7불을 비롯해 인도의 28조와 중국의 6조에 이르는 33조사의 계보가 형성되고, 돈오견성의 선법이 강조돼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경>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선 · 정, 정 · 혜, 좌 · 선, 참 · 회, 삼신, 삼학, 사홍서원, 정토 등에 대해 자성법문으로 귀일시켰던 점은 이후 활발하게 전개된 조사선의 사상적인 바탕을 제공했다. 특히 좌선에 대한 입장은 기존의 인도에서의 활용된 수행적인 측면을 넘어서 깨침 및 그 실천으로까지 의미가 확장됐다.

<단경>은 또한 역사적인 측면에서 <달마어록>과 더불어 초기선종의 선어록으로서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초기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조사선법의 형성에 초석이 됐는데 이 점은 이후 <신회어록>을 비롯한 본격적인 어록의 출발이었다.

이와 같은 의의를 지니고 <단경>은 그에 걸맞게 숱한 개판을 통해 어떤 선전보다도 많은 판본을 출현시켰다. 그와 같은 수많은 <단경>의 판본 가운데 가장 널리 유통되고 있는 것은 종보본 <단경>이다.


중국 남화선사의 혜능 대사 등신불. (현대불교자료)

그런데 종보가 발문에서 "내(宗寶)가 처음 출가해 이 <단경>을 읽고 느끼는 바가 있었는데 다른 세 가지 본을 보니 각기 달랐다. 서로 간에 어긋나는 곳도 있고 판본도 첨삭돼 있었다. 이로써 그 판본을 얻어서 교정을 했다. 잘못된 곳은 바로잡고 생략된 곳은 자세하게 보완했으며 다시 입실한 제자들의 청익기연(請益機緣) 부분을 증보했다. 이로써 바라는 것은 참학자들이 조계의 종지를 남김없이 터득하는 것뿐이다"고 말한 것처럼 기존의 판본에다 종보 자신이 나름대로 <단경>에 손을 가한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혜능의 법어가 어디까지고 후손에 의해 보입된 부분이 어디까지인가는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것은 <단경>의 역사만큼이나 여러 차례에 걸쳐 많은 부분에 첨삭이 가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심지어 종보본 <단경>의 경우도 후대에 전승되면서 다시 유포본과 명판대장경본으로 유통됐고, 명판대장경본에도 다시 남장본과 북장본으로 유통됐다. 곧 같은 종보본이면서도 명판대장경에 입장돼 있는 것에는 명교계승이 찬술한 <육조대사법보단경찬(六祖大師法寶壇經贊)>이 첨가돼 있고, 부록으로는 유종원(柳宗元)이 찬술한 <사시대감선사비(賜諡大監禪師碑)> 및 유우석(劉禹錫)이 찬술한 <대감선사비병불의명(大監禪師碑幷佛衣銘)> 등이 첨가돼 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이 연 공 고

2006년 음 9월 15일 입실건당
법은상자중 다음과 같이
이연함을 공고합니다.

滿巖堂 松亭 丈室
秋光堂 普城 丈室
智空堂 天明 丈室
成雲堂 智恩 丈室

2010년 7월 23일

法恩師 運虛堂 蓮華

종무법인 (법원등기 제 000006호) 禪農敎團
우리불교조계종 입종안내

선농교단 총재 弘山 현불

建法幢立宗旨
明明佛勅曹溪是
第一迦葉首傳燈
二十八代西天紀
今朝禪農立家風

-永嘉玄覺證道歌中引用-

法의 깃발 높여 이 道理 세움이여
스승의 밝고 밝은 가르침이라
제일조 가섭의 등불 始發로 하여
스물 여덟 등불이 서천의 불 밝혀
우리 불교 선농의 가풍을 세움이라

◆ 입 종 비 : 없음
◆ 입종서류 : 이력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명함판 사진 4매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법당 안 밖 사진 1매
※각 사찰 인감등록 및 발급(차량구입 및 부동산 취득시)

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 총무원 수월사
■ 주 소 : 충남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 611번지
■ 사 무 국 : 070)8843-7620 / FAX 041)943-7620
■ 총재직통 : 016-850-1208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www.chorokwon.com 박현숙 원장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부처님 법 만난 게 다 전생의 인연 덕분



법왕사 회주
문인 스님

부석사 · 봉정사 주지로 가람 수호에 20년 바쳐

'욕심' 날 때 왕위 버리고 출가한 부처님 떠올려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길게 이어진 계곡에는 물소리가 흘러넘쳤다. 하늘을 향해 곧게 뻗어 올라간 홍송 사이로 걸어 들어갔다. 소년의 눈에는 아름드리 큰 홍송들이 울창하게 들어 선 이곳이 낯설지 않았다. 일주문을 지나 봉황문에 들어서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언젠가 와 본 듯한 느낌이었다. 이것이 출가의 길이 될 줄은 몰랐지만, 소년은 해인사에서 한학을 공부하게 된 것이 그저 기쁘기만 했다.

소년은 산골 동네의 훈장으로부터 한문을 배웠다. <명심보감>부터 해서 <논어> <맹자>를 배웠다. 누군가가 해인사에 가면 한학을 좀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다고 했다. 스치듯 지나가는 이 한 마디가 소년의 마음을 흔들었다. 열네 살의 어린 소년은 한학을 배워보겠다는 일념으로 집을 나와 해인사 백련암으로 갔다.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한학을 배우기 위해서 갔다지만 전생에 이미 해인사에 이런저런 인연들을 심어놓았기에 인연 따라 찾아갔던 것'이라 한다. 정도원 스님을 은사로 불조의 제자가 된 것이며, 당신의 초발심을 야물려 준 여러 어른 스님을 만난 것을 두고 전생의 연이라 생각한다. 또 당대 최고의 강백인 운허 스님 문하에서 사집(四集)과 대교과를 익힌 것을 두고 다 전생의 복으로 돌린다. 절집에 몸을 맡긴 세월이 육십여 년, 그동안 강산이 여섯 번 바뀌었지만 출가의 길에 들어선 지가 어저께 같다면서 문인 스님은 '시간을 헤아리는 것은 덧없는 것'이라 했다.

세방골에 위치한 법왕사에 들어서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두 마리의 사자상이 먼저 반긴다. 사자후를 내뿜기라도 하는 듯 큰 입을 벌린 채 언제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자상. 세세생생 불교를 수호하겠으며, 이곳에 오는 모든 이들을 지켜내겠다는 강건한 마음까지도 읽을 수 있다.

문인 스님의 방은 소박하고 조촐하다. 수십 년은 족히 될 앉은뱅이책상 하나와 벽 한쪽에 낮게 매어 단 책꽂이가 세간의 전부였다. 세납 칠십이 넘은 스님은 몇 해 전부터 머리에서 소리가 나는 병을 앓고 있다. 이 때문에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걱정이 앞서는 마음에 '왜 보청기를 끼지 않느냐'고 여쭈었다. 스님은 보청기가 소리에 대한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면서 나이가 들면 '조금 적게 듣고 조금 적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이라 답했다.

스님은 <능엄경>의 한 구절을 들려준다.

"아난아, 이 기타 숲의 절에서 공양시간이 되면 북을 치고, 대중이 모이는 시간에는 종을 친다. 종소리, 북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을 듣게 되는데, 이것은 소리가 귀에 오는 것이냐 귀가 소리 나는데 가는 것이냐?

만일 소리가 오지도 않고 귀가 가지도 않는다면 소리를 듣지 못하여야 하는 것, 그러므로 듣는 것이나 소리가 모두 처(處)가 없어서 들음의 처(處)와 소리의 처(處)가 허망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본래부터 인연도 아니요 자연도 아닌 성품인 것이다."

마음의 작용이 없다면 귀는 있으되 소리는 들을 수 없는 것, 또 마음의 작용이 없다면 눈은 있으되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마음의 작용이 없다면 소리도 색도 허망한 것이다. 중생들의 삶이란 육근(六根; 눈, 코, 귀, 혀, 몸, 마음)에 의지해 색성향미촉법(色聲香味觸法)을 쫓아다니는 허망한 삶이 아닌가. 문인 스님은 색과 소리와 향기와 맛에 이끌려 다니는 것은 마음과 몸을 분주하게, 곤궁하게 할 뿐이지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은사이신 정도원 스님은 계율에 철저하였다. 심지어 '뒷간 갈 때 사용했던 손전등을 법당 갈 때는 사용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한번은 뒷간에 갈 때 들었던 손전등을 법당에 들고 가다 은사스님과 마주쳤다. 은사스님은 그 자리에서 은박으로 덮인 렌즈를 닦으라고 일렀다. 은박으로 덮인 렌즈를 닦아버리니 불빛이 희미해져 버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계율에 관해서 엄하신 은사스님의 가르침은 수행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밑바탕이 되었을 뿐더러 고비마다 큰 힘이 되어주었다.

석우 스님으로부터 조주 '무(無)자' 화두를 받고 좌복 위에서 화두의 꽃을 피워보겠다고 무던히 애를 쓴 적도 있었다. 하지만 어느 해는 좌복 위에서의 공부를 걷고 다른 이가 공부를 지어나갈 수 있도록 외호하는 것도 공부라는 생각이 들었다. 문인 스님은 해인사 선방에서 공양주 노릇을 하였다. 낮에는 공양간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능엄경>을 배우는 등 참으로 신심 나게 살았던 때라고 한다. 그때 하심(下心) 제일이라는 지월 스님을 만났다.

지월 스님은 선방에서 입승소임을 맡았고, 그러다 유나소임을 보았다. 지월 스님은 누더기 입고 주장자 하나 들고 말없이 해인사를 20년 동안 지켜낸 분이다. 지월 스님은 한없이 겸손하여 '나'라는 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산부처'처럼 느껴졌단다.

한번은 해인사 도량에 독감이 만연하여 온 대중이 감기에 시달렸다. 그래서 대중들은 명태를 사다가 저 산 아래 냇가에 가서 솥을 걸고 명태국을 끓였다. 이 소식을 들은 지월 스님은 명태국을 끓이는 곳으로 갔다.

"보살들은 여기서 무엇을 하시는가?"

"예 고뿔약을 끓이고 있습니다."

지월 스님은 "에이, 고뿔약 냄새 참 고약타." 이 말씀 한 마디뿐 꾸중도 뭣도 없었다. 지월 스님은 스님들을 부를 때 항상 '보살'이라고 불렀다고 하니 이것 또한 하심의 극치가 아닐까 싶다. 누군가가 걸망을 지고 산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양손을 벌려 막아서면서 "이런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두고 어디로 가려는가" 하고 말렸다.

지월 스님은 아무런 상 없이 대중들을 보살폈고, 하심과 인욕으로 모든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였다고 한다. 육조 스님이 "남의 허물이 곧 자신의 허물이라"고 했듯이 지월 스님은 남의 허물을 자신의 잘못인양 마음 아파하고 허물로 삼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 들판의 꽃 한 송이가 피어나고, 한 장의 나뭇잎이 빨갛게 물드는데도 하늘과 바람과 계절의 말없는 동조가 필요한 것이다. 자연의 이

빛 살림
정골요법
폐결핵으로 한쪽폐가 없어지고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 병원에서 마저 쫓겨나 죽음을 기다리다 무심코「발치기」운동으로 살아난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이운동으로 죽을 병고친사람, 몸이 더욱더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변강쇠처럼 된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 하면 제병을 제가고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운동은 무병장수할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여„ (본문에서)
이재복 지음(270면)
빛 살림 정골요법 도서출판 창조. 값10,000원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평생 척추, 골반, 관절 걱정없다
퇴행성관절, 안짱다리, 고관절, 디스크, 좌골신경통, 오십견, 견비통, 목뻣뻣, 수족냉증, 두통, 갑상선질환, 불면증, 상기증
젖먹이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인「기지개운동」을 통해 건강하게 무럭무럭자란다.(생명의 신비!)
강력한 생체전기가 전신을 감싸고 입안에서는 단침이 몽클몽클, 내분비계통을 활성화 시켜서 만성적인 성인병을 치유하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골반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불임, 생리통, 수족냉증, 무릎관절통) 가장빠른 골반교정운동, 스스로하는 평생골반관리법,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잡는법 수록!
척추 뇌에서 내려오는 30,000가닥의 신경다발이 추간공을 흐르고 있다. 척추는 오장육부의 뿌리,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아 질병의 뿌리를 뽑는다.
복부 뱃살과 전쟁, 복부비만을 아주쉽게 해결한다. 물혹, 자궁근종, 위염, 위궤양, 변비등의 원흉인 복부적취를 가장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온열쾌장운동법!
근육 근육의 긴장, 수축, 노화로 인해 신경, 혈관, 림프관의 압박으로 신경통, 근육통등 각종 통증에 시달리게된다. 근육풀이 건강법으로 통증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통증치유법수록!
국제정골요법협회
소백산수련원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 도서구입안내 : 이 책은 서점에는 없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책신청 : 054)637-9810
■ 농협계좌 : 751017-52-024285 김순옥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 (1박 2일)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에서는 놀라운 건강법이 공개됩니다. 각종 통증과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획기적인 건강법입니다.
즉석에서 효력을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책 구입시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비법 버리고 정법 취하세요

치가 그러하듯이 한 사람의 허물을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데도 세상 전체의 숨은 뜻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법이니 남의 허물이 곧 나의 허물이 되는 것이다.

문인 스님은 부석사와 봉정사 주지소임을 맡아 가람을 수호하는데 이십여 년을 바쳤다. 부석사의 무량수전과 봉정사의 극락전은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목조 건물 중 원형이 그대로 잘 보존된 고대의 건축물이기에 무엇보다도 잘 보존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었다. 우리나라 최고의 보물을 날마다 볼 수 있음은 호사 중의 호사란다. 아침에 눈 뜨면 당우들이 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일과 중 하나로 삼았다.

봉정사는 영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동승'의 촬영지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곳이다. 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방문한 곳으로 한때 세계 언론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문인 스님은 봉정사에 머물면서 많은 불사를 하였다. 극락전이 쓰러질 위기에 처해져 있어 해체보수작업에 들어갔다. 그것이 봉정사 불사의 시작이었다. 일반인들은 문화재에 손을 대는 것에 대해 마뜩찮은 시선을 보내기도 하지만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보수를 해주어야 한단다. 봉정사는 고대 건축물이다 보니 어려운 점이 매우 많았다. 고건축물의 수리공사란 '원형복원과 수리공사를 동시에 행하는 작업'이라는 문인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고건축에 대한 스님의 깊은 안목을 짐작할 수 있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방문했던 그때의 분위기를 알고 싶다고 했더니 "뭐 말이 통하나, 그냥 얼굴만 봤지"라고 하신다. 문인 스님은 소문대로 지극히 말씀을 아끼시는 분이다. 봉정사를 방문한 여왕은 방명록에 "조용한 산사 봉정사에서 한국의 봄을 맞다"라고 썼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문인 스님은 평소에 아끼는 문구인 '일념만년거(一念萬年去)'를 담은 족자를 선물했다. 일념만년거(一念萬年去)에는 '좋은 한 생각이 만년을 간다'는 뜻을 담고 있다. 찰나의 한 생각도 우리 마음 안에서 생겼다 꺼지는 것이지만 그 생각의 자취는 없어지지 않는 것이니 '마음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다.

스님이 즐겨 보는 경전을 여쭈었더니 "경전에 차별 두는 마음은 없으나 그래도 <금강경>을 꼽을 수 있지"라고 답하신다. <금강경> '제6 정신희유분'의 한 구절을 읊조린다.

"…이러한 까닭으로 응당 법을 취하지 말아야 하며, 응당 법이 아닌 것도 취하지 마라. 여래가 항상 말하기를 '너희들 비구는 내 설법이 뗏목과 같음을 알라'고 하노니, 법도 오히려 응당 버려야 하는 것인데 하물며 법 아닌 것을 취하겠는가?"

시고 불응취법 불응취비법 여래상설 여등비구(是故 不應取法 不應取非法 如來常說 汝等比丘)

지아설법 여벌유자 법상응사 하황비법(知我說法 如筏喩者, 法尙應捨 何況非法)

"부처님은 '당신이 설한 법은 뗏목과 같으니 강을 건넜으면 미련 없이 뗏목을 버리라'고 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와 같은데 정법이 아닌 것을 따르거나 취할 이유는 없지요."

정법을 배우고 몸에 지니기도 바쁜 세상에 바른 법이 아닌 것을 뒤좇을 시간이 어디 있느냐는 스님의 경책 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법(法)과 비법(非法)의 구별이 점차 모호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리고 방편이라는 이름으로 비법이 횡행하는 시대이기도 하다. 지혜롭지 아니하면 비법을 정법으로 이해하기 십상이다. 이에 대해, 문인 스님은 자신의 생각과 행위가 오계(五戒)에서 벗어나는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 된단다. 스님은 세상에서 무서운 것 중 하나가 '사람의 욕심'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 앞에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부처님께서 모든 특권이 보장된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시면서 이미 물질에 대한 집착이 헛된 것임을 가르쳐 주었잖아요."

낮게 엎드린 앉은뱅이책상이 소탈한 스님의 성품이며 소박한 삶을 살아온 스님의 내력을 훤하게 말해주고 있다.



문인 스님은 …

해인사 백련암에서 정도원 스님을 은사로 득도. 해인사강원 대교과 졸업. 고운사, 부석사, 봉정사 주지 역임. 조계종 총무부장, 중앙종회 부의장, 종교인연합회부회장 역임. 지금은 대구 세방골에 위치한 법왕사에 주석하고 있다.

건들바람이 처마에 매달린 풍경을 울리고 간다. 풍경은 참지 못하고 그만 '뎅그렁 뎅그렁' 소리를 낸다. 풍경소리가 귀로 온 것인지, 귀가 소리 나는 데로 간 것인지 아직은 모르겠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한국불교 승려열전

연재를 시작하며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깨달음과 역사>라는 책이 있다.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이 지은 책인데, '깨달음과 역사'라는 제목이 출현한 과정이 흥미롭다. 스님은 '보살'이라는 아주 흔한 개념에 대한 대단히 독특한 해석에서부터 이 제목을 도출했다. 그 연유를 간추려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보살 곧 '보리살타(보디사트바)'에서 보디(bodhi)는 '존재를 연기적으로 이해하는 깨달음'이다. '사트바(sattva)'는 중생(衆生)이라는 말로서 모든 삶과 역사를 의미한다. 특히 이 중생이라는 말은 '역사'라는 말로 치환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살이란 깨달음과 역사의 합성어, 통속적인 표현으로는 '깨달음의 역사화' 혹은 '역사의 깨달음화'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효 스님.

이것이 어느 정도로 적확한 이해냐 하는 것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것에 공감하는 정도는 독자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필자 스스로는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깨달음의 역사화' 다시 말해서 '이상을 지향하는 고단한 삶'이 좀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새로운 글은 내가 행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닮고는 싶은 삶들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그리고 기존의 왕조사(王朝史) 중심의 역사관, 승리한 자들의 역사관에 파묻혀버린 이 땅의 스님들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이 글의 소재로 등장하는 스님들은 적어도 자신만의 안락을 추구하는 삶을 갈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믿어지는 분들이다. 한국사 교과서를 펼쳐보는 이들은 대개 두 가지 부류의 스님들을 만난다. 위대한 스님, 아니면 요사스러운 땡초이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 교과서 속에 서술되는 스님들의 진면목 혹은 그릇된 면목을 얼마나 고민하고서 만나는 것일까?

부정하고 싶은 이들이 많겠지만, 사실 한국의 역사는 한국불교의 역사이기도 하다. 단순히 전통문화재의 70% 정도는 불교문화재라는 말에서도 이것은 확연히 증명되는 사실이다. 하지만 또 너무나도 극명하게 드러나는 통계조사를 따라가 보면, 2005년도 종교인구 통계조사의 결과는 종교인구 중의 절반 이상 아니 2/3 가까운 이들이 기독교 신도라고 말한다. 지난 역사에서 불교는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신앙이자 삶이었지만, 현재의 역사에서 불교는 그저 과거의 흔적에 기대어 잔존하는 '기억의 일부'일 뿐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왜 그런가? 많은 이들이 고민하고, 많은 이들이 답을 내놓지만 개운하지는 않은 것 또한 현실이다.

이 글은 그런 고민에서부터 시작한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한다. 어디에 서 있는지 살펴보려니, 적어도 주위의 온갖 이야기는 불교는 훌륭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훌륭한가? 그렇게 훌륭한 불교가 오늘 어째서 요모양 요 꼴이란 말인가?

시작부터 섣부른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이렇다.

전통문화재의 70%를 만들어낸 불교라면, 그 정신적 삶의 70% 역시 불교가 만들어 내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불자수가 전체 인구의 70%가 아니라 30%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 정신의 30%만 잔재로 남았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억지 단순 계산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적어도 40%는 잃어버렸거나 잊어버렸거나 모른 채하고 있는 것일 게다.

이제 그 잃어버린 혹은 모른 채하고 있는 40%를 되살리지는 못하더라도 기억해보고는 싶다. 혹여나 아는가? 무덤 속에서 일어서서 걸어 나오는 자라도 있을지.

또 섣불리 말하자면, '불교의 본

닮고 싶은 스님들의 삶… 그 행간 걷기

디'를 좇아가는 자들을 외면했던 삶들의 역사 곧 중생의 탐욕이 오늘의 시류를 만들어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역사 속에서 깨달은 자의 '모르쇠'는 치열한 구도의 삶을 낳았지만, 탐닉하는 중생의 '모르쇠'는 외면과 방기와 삶과 삶들의 왜곡을 낳았다.

원광은 왜 수나라 황실의 칙사대접을 '모르쇠'하고 신라로 돌아왔을까? 만해는 왜 난 데 없이 '취처(娶妻)'를 주장했을까? 퇴옹은 왜 산중에 고고하게 앉아 3000배를 요구했을까? 신돈은 왜 팔자를 못 고치고 요승이 됐을까? 세달사 승려 궁예는 왜 왕이 되었고, 또 왜 폭군이 되었을까?

굳이 '깨달음의 역사화'라고 말할 필요까지도 없을 것이다. 우리네 불교도들, 특히 동아시아 대승불교의 사부대중들은 그 굳센 서원(誓願)의 첫머리에 "중생이 가이 없더라도 제가 반드시 모두 구제하고야 말겠습니다(衆生無邊誓願度)"라고 맹세한다. 하지만 그 서원의 굳건한 외침 속에 무언가 빠져 있다.

'어떻게?' 우리가 잊어버린, 모른 채하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닐까? 이제 외면했던 그것을 찾아서 스님들의 행간을 향해 걸어보기로 하자.

■ 석길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교수



‘행복한 사람이 가르쳐야 아이들도 행복해져요’

‘창의 · 인성교육’이 교육계의 ‘화두’가 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최우선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이 바로 창의 · 인성교육이다. 교과부는 “미래 사회에는 지식뿐 아니라 창의성과 인성을 고루 갖춘 인재가 경쟁력이 있다”며 “주입식 교육은 창의적 인재를 기르는 데 한계가 있다. 학교 수업과 평가 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렇듯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요즘이다.

이런 가운데 한마음과학원(원장 대행)이 2004년부터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한나무 인성교육’이 6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교사직무 연수과정’으로 공식 승인을 받고 처음 프로그램을 진행해 눈길을 끈다. 한마음과학원은 7월 26~30일 5일간 전국 초 · 중 · 고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 종사자 38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안양 한마음과학원 3층 국제회의실에서 ‘교실의 행복-한나무인성교육 교사연수(이하 교실의 행복)’을 진행했다.



초 · 중 · 고 현직교사들은 7월 26~30일 5일간 한마음과학원에서 진행된 ‘교실의 행복’을 들었다. ‘교실의 행복’은 경기도교육청의 교사직무 연수과정으로 첫 공식 승인을 받았다.

#교실의 행복-한나무 인성교육 교사연수

‘교실의 행복’은 한마음과학원이 2004년부터 진행한 ‘한나무 인성교육’을 경기도교육청의 공식 승인을 받고 선생님들의 승진평점과 연수학점제에 반영되는 연수과목으로 새롭게 구성한 것이다. 기존의 한나무 인성교육과 다른 점이 있다면 종교적 색채를 띠지 않고 인성교육에 관심을 갖는 일반 교사들을 위해 보다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했다는 것이다.

교실의 행복은 ‘교사인 내가 먼저 행복해야 우리교실이 행복해진다’를 기본 바탕으로, 학생들과 진실로 소통하고 인간에 대해 깊이 있게 알고 싶은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

‘교실의 행복’은 매일 6시간씩 5일 동안 △고정관념 벗어나기 △다르게 본 ‘나’ △공존하는 ‘우리’ △마음이 핵심이다 △조화로운 삶 등 각기 다른 주제로 진행됐다.

1교시는 ‘교실의 행복’ 프로그램에서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서 활용해보고 느낀 점을 조별로 토론하고 발표하는 시간이다. 2교시는 주제 강의 시간으로 사회복지, 교육, 과학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과학 · 인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이경욱 원광디지털대학 교수(사회복지학 전공)가 ‘문제아는 없다’를, 안인옥 한국인삼공사 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식물세포공학전공)이 ‘생명으로 가득한 나’를, 박종래 서울대 교수(재료공학 전공)가 ‘나로부터 시작하는 세상’을, 김영래 고려대 교수(교육철학 전공)가 ‘운명을 바꾸는 마음의 힘’을, 황수경 동국대 강사(명상심리상담전공)가 ‘내가 행복해야 교실이 행복하다’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3교시는 수업시연 시간으로 현직에 종사하는 초 · 중 · 고 교사들이 수업을 듣는 교사들에게 인성교육을 시연했다. 4교시는 인성교육실습 시간으로 실제 교육현장에서 한나무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적용해 거뒀던 사례들을 공유하고, ‘교실의 행복’의 이론을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체험하는 시간이다.

‘교실의 행복’의 목적은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교사가 수업을 듣고 이를 현장에서 적용함에도 있지만, 교사가 교육과정을 통해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는 ‘셀프 인성교육’을 하는 것에도 있다.

이원희(고등학교 교사)씨는 “인성교육을 하려면 평소 내 마음의 힘을 키워야 겠다고 생각했는데 연수프로그램을 들으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다. 가톨릭 모태신앙이지만 수업을 듣는데 종교적인 느낌은 들지 않았다. 공생실천과정도 들어볼 생각이다”고 말했다.

#한나무 인성교육

‘한나무 인성교육’은 2004년 한마음과학원 회원 및 공생실천과정 졸업생을 중심으로 초등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팀이 구성되면서 시작됐다. 같은 해 중등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팀이 생기며 수차례의 사례발표회와 연수를 거쳐 완성된 ‘한나무 인성교육’은 참가 학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7년 EBS‘똑똑교육충전소’에 소개돼 학부모들의 폭발적 관심을 끌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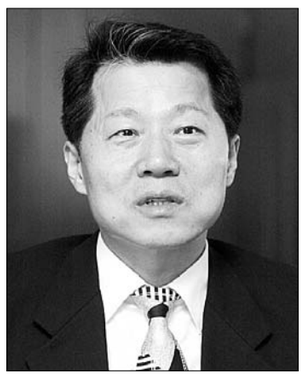
‘한나무 인성교육’은 미성년인 청소년도 모든 것을 갖춘 완전한 존재로 바라보는데서 출발한다. 때문에 프로그램은 본래 갖춰진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 발현할 수 있도록 돕고, 폭넓은 안목을 갖추도록 돕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나무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은 자아와 세계를 개체성과 전체성을 통일적으로 인식하도록 유도된다. 자연, 생명, 인간이 어우러진 공생(共生)의 열린 세계관을 갖춘 학생들이 전체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실천행으로 자아계발을 삼도록 설계돼 있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기존 인성교육	한나무 인성교육
학생을 바라보는 관점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훈육되어져야 하는 대상	생득적인 자유의지=생명에너지=주인공=불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
자아와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	남과 다른 존재로서의 나/개인이 세계에 속했다는 좁은 인생관, 세계관에서 출발	개체성과 전체성의 통일적인 인식/자연, 생명, 인간이 어우러진 공생의 열린 세계관
자아개발의 개념	개인의 성격과 재능을 사회의 요구를 배경으로 발휘함으로써 자아개발함/자유와 평등이 대립됨	전체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속에서 자아개발/자유와 평등이 하나로 어울림
교육원리	외부 자극의 입력에 의해 출력되는 습관화된 행동양식을 인성으로 봄/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별개	내재된 무한한 잠재력을 스스로 발현하게 도움/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둘이 아님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것에 천착



김용환 한마음과학원 기획조정실장

– 한나무 인성교육이 생기게 된 계기는?

마음공부를 프로그램화한 ‘공생실천과정’을 2002년부터 시작했다. 인성교육이 중요시 되는 때 교사들을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해 2003년 공생실천과정 3기는 교사들만 모집해 진행했다. 수업을 들은 선생님들이 교육현장에서 자신들이 배운 것을 응용하는 것을 보고 인성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 한나무 인성교육 개발 작업은 어떻게 진행했는가?

2004년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초등학교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공모하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공생실천과정 출신 선생님들과 교육학을 전공한 한마음과학원 회원들이 모여 프로그램의 틀을 설정하고 초등학교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2005년서부터는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을 들었던 교사들을 중심으로 인성교육프로그램인 ‘한나무 인성교육’을 개발해 사례발표와 연구를 하고 있다.

– 앞으로의 계획은?

한마음과학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돼 처음 교사직무연수를 진행했다.

직무연수프로그램으로 승인을 받으면 6개월간 유효하며 이후에 다시 승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교육청은 이번 프로그램을 이수한 교사들의 평가와 반응, 강의를 진행한 강사들의 약력 등을 참고해 재승인여부를 결정한다.

‘교실의 행복’이 꾸준히 교육청에 승인을 받으려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연구해야하고 종교를 초월해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 이론 뿐 아니라 현장 상황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한마음과학원

정신과 물질은 둘 아니다



한마음과학원은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는 둘 아니게 하나로 돌아가고 있다. 현대과학문명이 아무리 고도화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50%에 불과한 물질일 뿐이며 마음을 개발하지 않으면 나머지 50%를 채울 수 없으므로 결코 완전한 과학이 될 수 없다”는 대행 스님의 가르침인 ‘한마음과학(심성과학)’을 연구하는 모임이다.

1996년 비영리 연구교육기관으로 설립된 한마음과학원에서는 인문과학 · 사회과학 · 자연과학 · 공학 · 의학 · 교육 총 6개 분과에 100여 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인재를 확보하고 전공분야와 관련한 프로젝트를 구상 · 진행하고 있다.

한마음과학원은 10여 년 동안 현대인에 맞는 수행프로그램, 마음공부 포럼,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 리더십프로그램 등 여러 분야의 교육사업을 추진해 왔다. 2002년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을 개설한 한마음과학원은 매년 2회에 걸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을 들었던 교사들을 중심으로 인성교육프로그램인 ‘한나무 인성교육’을 개발해 사례발표와 연구를 하고 있다.

한마음과학에서의 연구 방법은 연구와 수행을 둘로 보지 않는 것이며 관법(觀法)수행을 요체로 삼는다. ‘관법’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자신의 존재 뿐 아니라 모든 생명의 근본인 마음의 주장자를 스스로 발견하고 무한한 마음의 능력을 구체적인 삶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세계관과 수행 방법을 포함한 마음 연구의 방법론이다.

2010년 후반기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대학장 : 호암 ◆ 대학원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주2일 교육,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0년 7월 30일 부터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10년 9월 9일 목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대각스님, 서무선박사님, 김진궐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

불 교 예 술 대 학

◆ 교수 : 해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원서교부 : 2010년 7월 30일 ~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0년 9월 7일 화요일

제천불교여자전문대학

◇불교교리 : 경, 율, 론, 선, 밀교
◇불교의식 : 조석예불, 불공, 시식, 장엄염불 등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목요일 오후 3시까지
◇교육장소 : 제천 금강사(충북 제천시 모산동)
◇개 강 : 9월 8일 (수) 오후 2시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도기스님, 대각스님, 서무선박사님, 김진궐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 활안 한정섭스님의 경전 강의 -

월 요 경 전 반

◇수업시간 : 매주 월요일 기초반 1시 30분
연구반 3시 30분
◇개 강 : 2010년 9월 6일 월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043)646-3800

뜨거운 열기 울릉도 도동항을 밝히다

회당문화축제

울해로 10회째를 맞은 회당문화축제가 7월 29일 울릉도 도동항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밤이 되자 울릉도 지역민들은 낮보다 더 뜨거운 열기로 밤을 밝혔다. 5000여 명의 지역민, 관광객 및 외국인들이 어우러진 이번 축제는 갈매기 울음소리, 파도소리, 뱃소리 보다 더 큰 함성소리로 울릉도를 적시고 있었다.

진각종(통리원장 혜정 정사)은 1902년 울릉도에서 탄생한 개종조 회당 대종의 위업을 기리고, 울릉도의 지역문화복지 향상과 독도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2001년부터 매년 회당문화축제를 개최해 왔다.

경상북도에서 가장 큰 축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회당문화축제는 이제 울릉도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축제는 10회를 맞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에서 '초발심'을 주제로 진행됐다.

통리원장 혜정 정사는 인사말을 통해 "해마다 장마철인 여름에 한 번도 빠짐없이 회당문화축제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군민들의 보이지 않는 원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10회를 맞아 다시 한 번 군민들을 위한 축제로 거듭나길 바라며, 더불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독도가 우리의 땅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는 '영상으로 보는 회당문화문화축제 10년'의 다큐 영상으로 그 서막이 올랐다. 영상은 그간 10년 동안의 과정들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회당문화축제의 발자취를 알게 했다.

특히 영상에는 그간 남모르게 회당문화축제를 위해 고생한 자원봉사자들의 영상이 눈에 띄었다. 자원봉사자들은 모두 민간 자원봉사자로 회당문화축제를 위해 1달여 간 교육을 받고, 울릉도에서 행사 준비부터 진행까지 모두 도맡아 왔다. 축제평가위원들 사이에서 회당문화축제의 가장 큰 무기는 봉사자라고 언급할 정도로, 봉사자들의 활동은 놀랍다.

본격적으로 진행된 행사에는 저동꿈나무어린이집과 초등학생 태권도 시범 등 지역주민들이 특별게스트로 초청돼 공연이 펼쳐졌다. 이어 진행된 여우걸, YB(윤도현밴드)의 공연은 울릉도를 축제의 열광 속에 빠트렸다. 3시간 동안 진행된 축제는 뜨거운 숨을 토해내게 만드는 열정적인 시간이었으며, 군민과 관광객 모두를 하나로 엮어주는 장이었다.

한편 전날 저동 한마음청소년수련관에서는 울릉도주재 군장병과 의경 500여 명을 초청해 위문품 전달 및 위문행사가 열렸다. 또한 도동항 공원에서는 서원지 적기, 독도의 날 제정 천만인 서명, 사진 전시, 페이스페인트 등 체험행사가 이어졌다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7월 29일 울릉도에서 개최된 제10회 회당문화축제에는 5000여 명의 지역주민과 관광객 및 외국인들이 참여해 열띤 함성을 보냈다.

◆진각종조 회당 대종사 탄생 성지 금강원

울릉도 사동에 자리 잡고 있는 진각종 금강원은 사동항구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성지이다. 진각종의 문을 연 진각성존 회당 대종사가 탄생한 이곳은 해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으로, 성인봉 자락에 기대어 있다.

통리원장 혜정 정사는 "항상 시대마다 각 시대를 다스리는 사람이 태어나기 마련이다. 종조님이 일제시대에 한국과 일본의 중간지점인 울릉도 금강원에서 태어나신 것은 인연의 업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회당 대종사는 1902년 5월 10일 금강원에서 태어났다. 금강원은 원래 대종사의 친가가 아닌 외가였다. 그 당시 한 집안에서 같은 해에 두 사람을 출산할 수 없다는 울릉도의 풍습에 따라 대종사가 태어날 무렵 어머니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친정인 이곳을 찾았다.

현재 금강원은 회당 대종사의 위덕을 기리고, 진각종도들은 물론 울릉군민들과 불자들의 귀의처로 삼기 위해 1976년부터 성지조성 불사가 이뤄지고 있다.

혜정 정사는 "회당 대종사의 탄생지를 성역화하기 위해 종단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불사계획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제1차 성지조성 불사로



회당 대종사와 회당 대종사 탄생지인 금강원의 모습.

종조전과 총지심인당, 금강정사가 건립됐으며, 1986년 종조전 앞에 종조비와 오륜탑을 세웠다.

혜정 정사는 "아직은 불사가 다 이뤄지지 않아 성지라고 하기에 부족한 면이 많다. 다소 초라한 모습에 항상 금강원에 오면 종조님을 제대로 못 모시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지역적 · 환경적 여건으로 인해 토지확보 등 불사에 어려움이 많다"며 "아직은 완벽하게 불사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마스터 플랜을 마치는 즉시, 부분적으로 조금씩 불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각종은 지속적으로 토지매입을 통해 도량확장과 주변의 조경 및 건물을 정화해 단아하고 격조 있는 모습을 갖춰갈 예정이다. 생가를 너와집으로 복원하고, 주변에 공원과 연수시설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진각종 문화사회부 과장 구장현

"지역민께 즐거움 주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종교적 색깔을 띤 행사 일까봐 우려를 하시던 분들도 이제는 점점 회당문화축제를 인정해주고 있어 기쁩니다."

진각종 문화사회부 구장현 과장은 회당문화축제의 총책임을 맡으며 지금의 회당문화축제가 있도록 한 장본인이다. 2001년 회당 대종사의 성역화 사업이 실시되면서 그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 축제를 이끌어 왔다.

축제가 끝난 소감을 묻자 "10회쯤 되니, 이제야 울릉도를 위해 진정 무엇을 해야 할지 가닥이 잡히는 것 같다"고 답한다. 지금까지의 성과보다 앞으로 해나가야 할 것들이 많다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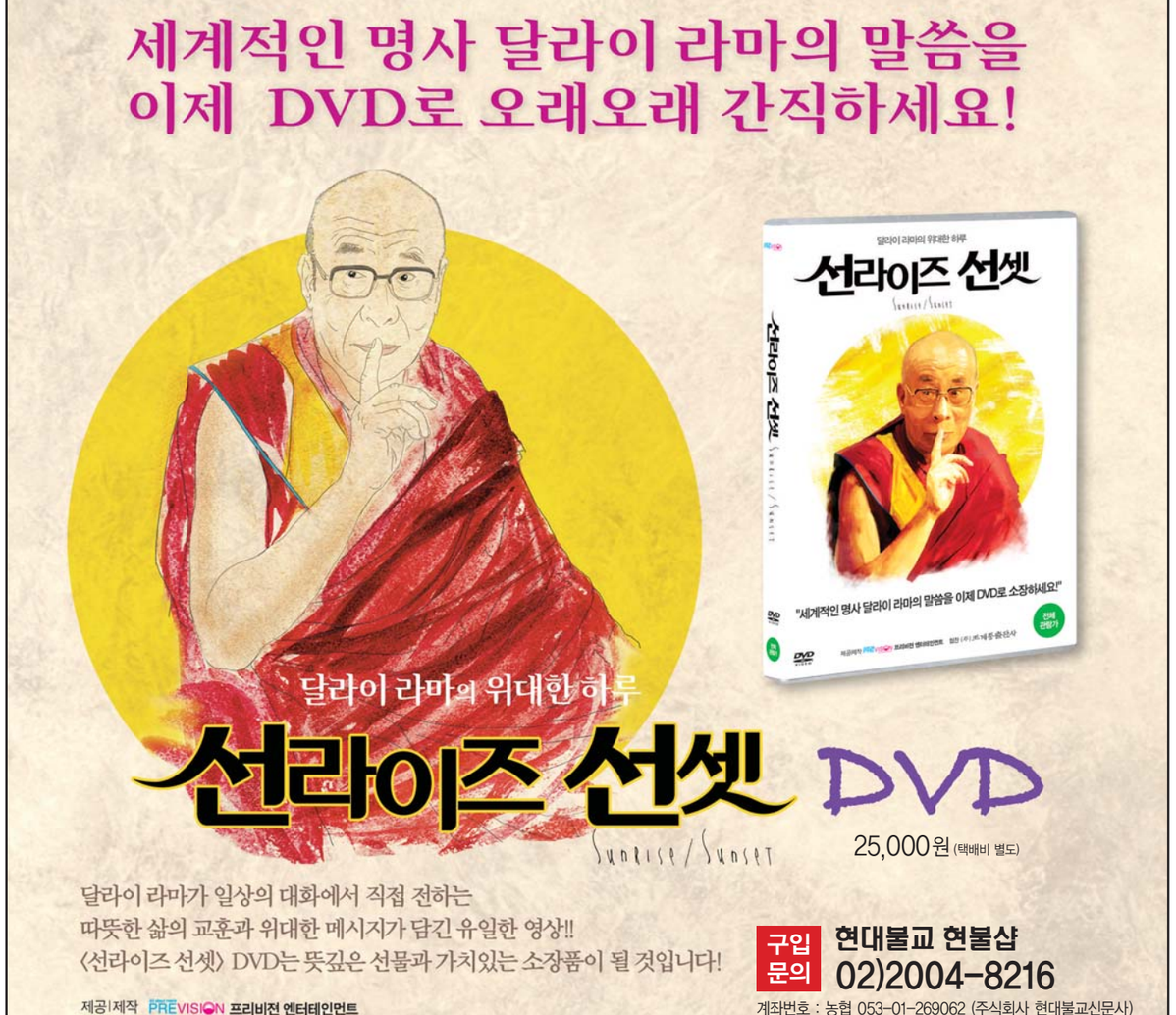
구 과장은 10회를 맞은 이번 회당문화축제에 대해 "'10'이라 숫자를 기념하기보다, 평상심으로 두고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그래서 다큐영상을 제작해 울릉도 사람들에게 회당문화축제를 가슴으로 느끼도록 연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주민들이 공연이 끝나면 '좋은 공연 보여줬으니 청소는 우리가 해야 한다'며 청소를 도와주는 분들이 계신다. 지역주민들의 이런 작은 성원들이 지금까지 회당문화축제를 이끌어 온 힘 인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울릉도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출연자를 섭외하는데 항상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구 과장은 한 번 출연한 출연자는 그 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넓혀 가는 중이다.

"지금까지 윤도현, 안치환 등의 분들이 지속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거론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러한 공연 부분의 인프라를 더 확장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울릉도에서도 더 소외된 지역을 직접 찾아다니며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께 즐거움을 주고 싶습니다."





최연의 산 이야기 <22> 오대산 2



오대산 입구에 있는 대가람 월정사 적광전과 팔각구층석탑.

'인류 대환란' 생명 · 생태 파괴로부터 말미암음이니

오행사상(五行思想)은 풍수지리학에서는 자주 인용되는 사상으로 신라시대부터 불교사상에 원용되는 현상은 신라시대에 널리 수행해 오던 선도(仙道)의 영향이 컸으리라고 생각된다.

오행이란 우주만물을 형성하는 원기(元氣)로서 목(木), 금(金), 화(火), 수(水), 토(土)를 이르는 말인데 오행이 때로는 서로 화합(和合)하고 때로는 서로 억제(抑制)하며 사물의 상관관계를 형성해 간다는 것으로서 사물의 상호관계(相互關係) 및 생성변화(生成變化)를 해석하는 사상을 일컫는다.

오행에 해당하는 방위(方位)와 계절(季節)과 색상(色相)을 비교해보면 나무(木)는 동쪽(東)이며 봄(春)이고 파란색(靑)이며, 쇠(金)는 서쪽(西)이며 가을이고(秋) 흰색(白)이고, 불(火)은 남쪽(南)이며 여름(夏)이고 붉은색(赤)이며, 물(水)은 북쪽(北)이며 겨울(冬)이고 검은색(黑)이며, 흙(土)은 가운데(中央)며 사계절(四季節) 모두를 포함하고 누런색(黃)을 나타낸다.

이러한 오행사상은 뒤에 성리학이 들어온 고려 이후부터는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할 도리(道理)로서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의 오상(五常)사상까지 합세하여 한양의 도읍을 축성할 때와 사대부의 집들을 새로 지을 때 오행사상을 늘 적용시켜왔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대에 모시는 다섯 부처님도 오행사상에 따라 동대(東臺) 관음방(觀音房)에 청색(靑色) 관음보살(觀音菩薩)을 서대(西臺) 미타방(彌陀房)에 백색(白色) 무량수불(無量壽佛)을 남대(南臺) 지장방(地藏房)에 적색(赤色) 지장보살(地藏菩薩)을 북대(北臺) 나한당(羅漢堂)에 흑색(黑色)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을 중대(中臺) 진여원(眞如院)에 황색(黃色) 비로자나불(毘盧姿那佛)을 모셨던 것이다.

오대산 입구에 있는 대가람 월정사(月精寺)는 오대 중의 하나인 동대 만월산에서 뻗어 내린 산줄기가 솟구쳤다 내려앉기를 여러 번 한 후 마지막 힘을 크게 떨쳐서 만든 터에 자리 잡고 있다.

월정사 터는 주산에서 뻗은 맥이 튼실하고 기운이 왕성하며 좌청룡 우백호 그리고 안산(案山)도 모두 후덕하고 물이 빠져 나가는 수구(水口)도 우백호와 안산이 서로 겹쳐서 막아주니 기운이 새어나갈 수가 없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안산이 너무 높고 시야가 너무 좁은 천옥이라는 점이다.

천옥의 명당은 흥할 때는 불꽃처럼 빨리 일어나 그 기운이 오래가지 못하는 속성속패(速成速敗)의 땅인 것이다.

그래도 주맥과 좌청룡 우백호의 후덕함이 이곳에 학자(學者)와 현인(賢人)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기운은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월정사에는 자장과 신효 이래로 많은 고승대덕들이 머물렀는데 고려시대에 나옹화상, 조선 초에는 무학대사가, 최근에는 탄허스님이 머물렀던 곳이다.

자장율사는 문수보살을 친견하고자 잠시 머물렀고 자장율사가 이곳을 떠난 뒤에는 신효(信孝)거사, 신의, 유연스님 등이 머물렀다.

신효 거사에 대한 이야기는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자세히 전해져 오는데 효심이 지극한 신효는 사냥을 하여 어머니께 고기를 봉양하곤 했는데 뭇짐승들을 애틋이 여기게 되어 사냥을 하는 대신에 자기의 넓적다리를 어머니께 바치는데 신라의 국사(國師)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던 자장율사는 문수보살을 친견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대산을 떠났는데 신효는 오대산에 머문다는 오류성중(五類聖衆) 즉 문수보살, 지장보살, 관음보살, 대세지보살, 석가여래를 다섯 스님으로 몸을 나툰 상태로 친견을 하게 된다.

탄허스님은 상원사에 주석하셨던 방한암스님의 제자로 미래를 예견하는 많은 일화를 남겼다.

탄허스님은 머지않아 인류사에 대변혁이 오리라고 했는데 그 변혁은 우주질서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인류역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고 하셨다.

<격암유록>을 남긴 남사고 선생, 새로운 시대의 정역(正易)을 밝힌 김일부 선생, 밥이 하늘이라는 동학사상의 수운(水雲) 선생, 의식혁명을 통해 후천개벽을 이루려는 강증산 선생 등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상향은 그 새로운 시대가 오기 전에 필히 인류는 큰 환란을 겪게 된다고 했는데 그 환란은 이상 기후와 지각변동으로 인류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한다.

탄허 스님에 따르면 그 환란 후에는 일본 열도는 바다 속으로 갈아 앉고 23.5도 기울어진 지구가 바로 서고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선다고 말씀하셨다.

그 결과의 진위(眞僞)와 관계없이 최근의 기상악화(氣象惡化)로 인한 지구상의 대재앙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통찰해 보면 선지자들의 예언이 얘깃거리로만 흘려보낼 내용이 아니라는 오싹한 전율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대환란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대성인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살면 인류의 파멸은 모면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가르침이라는 것이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지구의 생태와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는 것이 아닐까 곰곰 생각해 본다.

■ 최연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소주 한 병

"사람들한테 천 원만 달라고 하면 잘 줘. 허허허허허."

천동이 아빠, 소주 한 고뿌 하자고 내 팔을 끌며 서부시장 안으로 들어간다. 아무 말 못하고 끌려가는 나를 나도 막을 수 없었다.

"소주 한 병!"

2,30년 전도 아니고, 소주만 시킨다는 것이 못내 이상했다. 안주 좀 시키라고 하니, 손을 젓는다.

플라스틱 물컵 두 개와 소주 한 병에 오이 대여섯 쪽과 된장이 따라 나왔다.

"저녁은 드셨어요?"

"이게 밥인걸 뭐. 허허허. 저 사람 이제 나오네."

천동이 아빠가 시장 안으로 들어서는 남자를 보고 손을 들어 인사를 한다. '나는 술로 사는 사람이요' 라고 말을 하는 듯, 남자의 얼굴빛이 검다. 남자는 천동 아빠 옆에 나란히 앉은 뒤에도 말 한 마디 하지 않는다.

"막걸리로 줄까?"

아주머니에서 할머니로 넘어간 나이의 추레한 여자가 툭 땅에 동전 하나 던지듯 묻는다. 남자는 입을 열기도 귀찮은지 고개를 슬쩍 끄덕인다. 미세한 머리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은 여자가 막걸리 한 병과 플라스틱 컵 하나에 오이 서너 쪽과 고추장을 붙여 남자 앞에 내놓는다.

"이번 가을부턴 노령연금이 나온다 하더라구. 술값 외상할 일은 없어지겠어."

사람들이 오가는 시장 한복판의 좌대에 앉아 한 자리 건너의 생선진열대에서 건너오는 비린내를 맡으며 질척질척한 바닥을 보았다. 울컥, 자리를 박차며 나가고 싶은 충동이 치민다.

"소주 서너 병 마시면 하루가 그냥 가. 자, 한 잔 해!"

건배를 하자는 천동 아빠의 손길을 뿌리칠 순 없었다. 잔을 들어 부딪쳤으나 '틱' 소리 비슷한, 싱겁기 그지없는 소리가 들리지도 않게 울리다 바닥으로 떨어졌다.

'독약이구나!' 한 모금 들이킨 뒤 나는 잔을 은근슬쩍 내려놓았다. 허연 가루약처럼 썼다. 비율 엄두가 나지 않았다. 플라스틱 컵에선 배어 있던 무슨 냄새가 기어나와 입 안을 역겹게 만들었다. 천동 아빠 옆의 남자는 여전히 말 한 마디도 없었다. 천동 아빠도 남자에겐 말을 건네지 않았다. 술도 권하지 않았다.

"천동인 잘 있나요?"

"감자떡 만드는 공장에 15만 원씩 받고 다니더니 요즘엔 집에 박혀서 움쩍도 안 해. 공장에 잘 다니던 큰 애까지 얼마 전에 집에 들어오더니 빈둥거리면서 뭘 할 생각을 안 해."

"형수님은 별 일 없으시죠?"

"병원에서 아주 살지 뭐. 이젠 나올 생각도 안 해. 치료비가 무료니까 상관없지. 허허. 나 이젠 노숙자 다 됐어. 사람들이 돈 잘 줘. 저기 지나가는 저 아줌만 날 만나면 알아서 천 원씩 줘. '오늘 한 잔 못했지?' 물어보면서 손에 쥐어준다구. 잘 줘."

천동 아빠의 손짓이 가리키는 시장 입구를 바라보니 허리가 구부정한 여자가 뒷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다.

"그만 가봐야겠습니다. 도서관에 볼일이 좀 있어서…."

"응, 가봐."

의외였다. 잡을 줄 알았다. 술자리에선 좀체 놔주지 않던 끈질긴 사람이 아니었던가?

할머니에게 만 원짜리 한 장 내밀며 거스름돈은 천동 아빠에게 드리라는 눈짓을 하곤 서둘러 돌아서서 발걸음을 옮겼다.

"지난 번 소주 값 제하고 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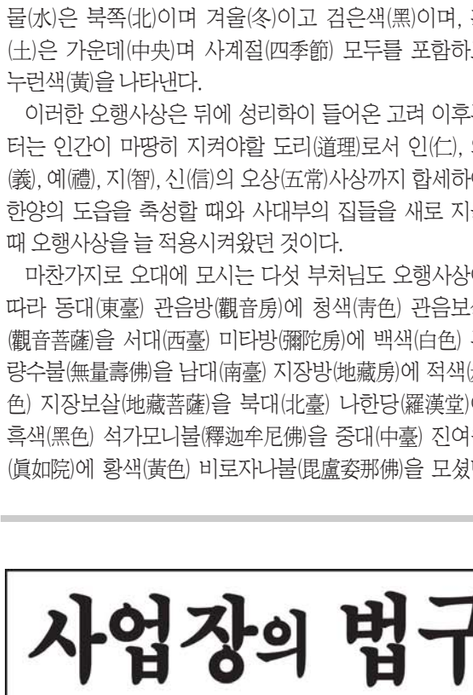
천동 아빠에게 묻는 할머니의 음성이 칼끝인 듯 날카로웠던가? 아니면 천동 아빠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서였을까? 등이 서늘했다.

짧게 깎은 허연 머리. 톡 튀어나온 배. 벌어진 어깨. 짧고 굵은 다리. 동그란 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내와 학교 폭력에 시달린 끝에 정신 장애자가 된 막내아들, 실업자가 된 큰아들을 가족으로 둔 사람. 내게 땅을 팔고 읍내로 나간 남자. 술로 하루 또 하루를 사는 사람.

그의 식사에 함께 하지 못한 미안함 때문이었는지 나는 멍청이가 된 채 산속 집으로 돌아왔다. 생각하니 그의 얼굴은 떠오르지 않고 소주 한 병만이 다가온다. 소주 한 병에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인 듯 따라붙은 플라스틱 컵과 오이와 된장.

■ 유승도 (시인)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

개업 선물로도 품격!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 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 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 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 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20% 할인)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용띠, 쥐띠, 원숭이띠, 드는 삼재시작 조심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0년 드는삼재 2011년 묵는삼재 2012년 나가는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뱀띠, 닭띠 삼재기간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삼재가 시작된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와 삼재 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사찰 공급 가격 별도 상담요)
문 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 협 : 032-12-193445 이상하

요절복통 여래네 집

#22 보리와 어린이집



스튜디오 돌

내 동생 보리는 저와 달리 굉장히 활동적이랍니다. 솔직히 바꿔 말하면 한마디로 왈가닥 여자 깡패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도 무슨 곤란한 일이 생기면 늘 보리가 선두에 나서서 해결을 한다고 해요.



같이 시장에라도 나갈라치면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 보리가 어느날 어린이집에 갔다와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아빠도 이런 보리가 귀여워서 그러시는지 퇴근하시면 늘 저보다 보리를 먼저 찾으신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진짜로 화를 내거나 질투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답니다. 왜냐면 당연히 보리는 저에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거든요.



그런데 내일은 보리가 여름학교에서 미술상을 받는다고 하네요.



엄마, 아빠가 너무 기뻐하시고 세게 나가는 바람에 저는 입만 달삭거릴 뿐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다음날 아빠는 정말로 회사에서 조기퇴근하여 꽃다발과 사진기를 들고 엄마와 함께 시상식하는 곳으로 갔답니다.



이주일의 화두

진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나쁜 짓을 멀리 하라.
그 마음은 항상 편안할 것이다.
잡아함경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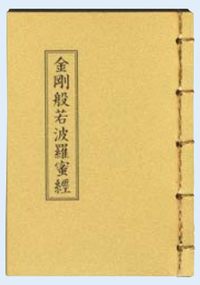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용 불량 소장 영가천도
상 식 사 식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냉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 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화두선·묵조선을 융합해 닦는다

대만불교 부흥의 주역 성엄 선사의 수행법

최근 한국에서는 대만불교를 배우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한국불교, 특히 한국선은 간화선의 위기라 불릴 정도로 선풍이 약해진 반면 선의 전통이 끊기다시피 했던 중국선은 대만을 중심으로 활발히 부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만은 50년의 짧은 기간 동안 불교신자가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불교의 현대화, 대중화, 생활화가 이뤄졌다.

이러한 대만불교 성장의 밑바탕에는 대만 3대 고승으로 추앙받는 성엄 선사의 지대한 역할이 있었다. 성엄 선사는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교육과 문화활동 전반에 걸친 폭 넓고 다양한 활동으로 미국과 동남아 지역 등에서 널리 존경받고 있다.

한국불교의 경우 조선시대 억불숭유 정책으로 쇠퇴했던 선풍이 경허 선사 이후 만공 스님으로 이어진 법맥으로 유지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

이와 비슷하게 송나라 이후 중국과 대만불교는 중국 본토의 공산화와 문화혁명을 거치며 허운 선사 등을 통해 명맥을 겨우 유지해오던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조동종과 임제종의 법맥을 모두 이은 성엄 선사의 선 수행 지도는 중국 선불교 발전의 디딤돌을 놓았다. 성엄 선사는 화두선과 함께 중국에서는 실전되다시피 했던 묵조선을 되살렸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대의단의 타파, 무방법의 방법>은 성엄 선사의 수행 방편을 다뤘다. 이 책은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된 선기(禪期, 집중 선 수행 안거) 중 강연한 화두선 관련 내용을 모은 <대의단의 타파>와 묵조선 관련 내용을 모은 <무방법의 방법>을 번역해 합본한 것이다. 이 책은 합본을 통해 선종의 대표적 수행법인 화두선법과 묵조선법을 나란히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두 수행법은 방법 상 확연한 차이가 있어 한데 섞거나 융합하기 어렵다. 가장 큰 차이는 화두선이 의심의 힘을 기반으로 대의단(大疑團)을 형성해 이를 타파하는 방법인데 반해, 묵조선은 이러한 큰 의심을 요하지 않고 마음의 고요함과 또렷함으로써 사물의 실상에 곧바로 다가간다는 점이다.



성엄 선사는 책에서 자신의 깨달음 체험과 수십 년에 걸친 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두 선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수행법을 편다. 책에서 나온 성엄 선사의 수행 체계를 보면, 화두선법과 묵조선법에 동등한 비중을 두면서 그것을 각기 적절한 단계로 구분해 수행자들이 자신의 진도를 가늠하기 쉽게 했다. 여기에 수식법을 보조적으로 운용하고 참회와 발원을 통한 실천적 결의와 꾸준한 정진을 권장한다.

"선은 선정 그 자체를 해탈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정에서 나오고 나면 여전히 번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선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지혜를 계발할 것을 강조합니다. 선의 지혜는 어떤 지성이나 특별한 지식도 아니며 활동 한가운데서도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성엄 선사가 중요히 여긴 점은 화두선이든 묵조선이든 초기 단계에 심신을 이완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심신 이완을 통해 자아감을 찾고 이를 통해 수행에 돌입하기 위해 선사는 가장 먼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완해 내려가는 방법을 직접 지도한다. 구체적인 과정과 함께 옛 중국선사들의 법어도 함께 강해해 이해를 돕는다.

대의단의 타파 · 무방법의 방법 | 대성 스님 옮김 | 탐구사 | 1만8000원

노덕현 기자



성엄 선사는?

교육가, 문인으로도 유명한 성엄 선사는 1930년 중국 강소성 남통현에서 출생해 13세에 출가했다. 성엄 선사는 대만 고웅(高雄)의 산중에서 6년의 무문관을 마치고 일본에 유학해 릿쇼(立正)대학에서 불교학을 전공했다.

1976년 동초 선사(1907~1978)로부터 중국 조동종 법맥을, 1978년 허운 선사 법손인 영원 선사(1902~1988)로부터 임제종 법맥을 이었다.

선사는 1976년 미국으로 건너가 선 수행을 지도했으며 1979년 뉴욕 엘름허스트에 선 센터를 건립하고 대만과 미국을 오가며 불교 선양에 힘썼다.

2005년 대만 북부에 불교재단 '법고산(法鼓山)'을 창건해 30년에 걸쳐 100여 차례 선기를 주재해 많은 선 수행자들을 지도했다. 중화불학연구소와 승가대학 · 법고대학 및 사회대학, 불교연구센터를 건립하는 등 교육 · 연구 활동에도 적극 나선 선사는 2009년 2월 3일 입적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 문화 소식통



코끼리 머리 힌두신 가네시 展

밀란 교수의 가네시 작품.

가족아카데미아 네팔캠프(이사장 이근후)는 8월 11~17일 세종문화회관 광화랑에서 네팔 트리뷰반대학 밀란 샤카(Milan Shakya) 교수 초청, 가네시(Ganesh Series) 개인전을 개최한다.

코끼리 머리를 한 힌두교의 신인 가네시(Ganesh)는 시바와 파르바티의 아들로 인도와 네팔에서는 각종 장애를 제거해 준다고 믿는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찾는 신으로 숭배 받고 있다.

샤카족 가문에서 태어난 독실한 불교 신자인 밀란 교수는 가네시에 대한 세계적인 연구자로 독일, 프랑스, 핀란드, 폴란드, 인도, 일본 등에서 가네시 관련 국제전시회와 강연을 한 바 있다.

밀란 교수는 이번 방한 중에 종로 고려사이버대학에서 16일 '힌두문화에서의 네팔 회화'를 주제로 특강하며 만다라 제작 전문가인 밀란 부인은 15일 경기도 양주 광명보육원에서 '샌드 만다라' 제작을 시연할 예정이다. (02)732-8144 노덕현 기자

사람의 아들 '붓다' 그 성장 기록

디팩 초프라가 바라본 붓다의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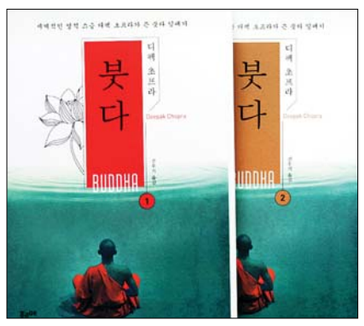
<붓다>는 붓다의 생애를 '사람의 아들'이라는 데 초점을 찍고 돌아본 소설이다. 현대의학과 고대 인도의 전통치유과학인 '아유르베다'를 접목한 '심신의학'의 창안자인 저자는 이 책에서 붓다를 격정적이면서도 섬세한 내면을 지닌 한 인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저자는 출가 전 샤카 왕국의 왕자 '싯다르타'로서의 생활에서 시작해 '고타마'란 이름으로 살았던 수행자 시절, 깨달음을 얻은 자 '붓다'가 되기까지를 3부로 나눠 그렸다.

베스트셀러 작가로 <더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 한 명이기도 한 저자의 상상력이 더해져 붓다의 생애가 한편의 성장기로 펼쳐진다.

저자가 인간으로 그린 붓다의 삶은 어머니와 첫사랑을 잃은 슬픔, 악마와의 대결, 생로병사에 대한 번뇌 등으로 가득 차 있다. 끝없는 번민에 빠져 29세에 아내와 자식, 왕좌를 버리고 수행자의 길을 떠난 왕자 싯다르타는 여러 스승을 만나지만 구도에 대한 갈망은 충족되지 않는다. 고행을 통해서만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는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외부적인 영향으로 마음과 몸을 이기려 한 생각이 옳지 않음을 알고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성취한다.

저자는 책에서 "붓다의 이야기는 수많은 기적으로 가득 차고 그 표면에는 신이 붙어다닌다. 그러나 붓다는 그 자신에 대해 말할 때 절대 기적이나 신을 말한 적이 없다"고 지적한다.



붓다는 평화롭고 고요하게 수행하다 어느 날 문득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성(性), 살인과 전쟁, 상실과 같은 인생의 여정을 겪으며 그때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끝없이 반문한 결과 선정의 경지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유명하지만 여전히 잘 알 수 없는 사람, 나는 붓다를 시간의 안개 속에서 끌어내 그에게 피와 살을 주되 그 신비함은 여전히 보존하고 싶었다."

책 속 저자의 말은 맹목적인 신앙의 속박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한 인간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길 권유한다.

붓다 | 디팩 초프라 지음 | 진우기 옮김 | 푸르메 | 1만1000원

노덕현 기자

히말라야 트레킹 이렇게!

법상 스님 "단순한 여행 아닌 운명"

<히말라야, 내가 작아지는 즐거움>은 국내 최초로 스님이 쓴 히말라야 트레킹 입문서다.

이 책에서 저자 법상 스님은 히말라야의 대자연을 체험하면서 스님으로서 느낀 감동을 전한다. 마치 일기를 쓰듯 '트레킹을 떠날 때의 마음가짐' '홀로 걷는 트레킹을 통해 명상하는 법' '히말라야에서 만난 대자연의 장관' 등을 생동감 있는 필치로 그려 놓았다.

홈페이지 '목탁소리' 등 인터넷 공간에서 수행 지도 법사로 활동하며 명상, 자연, 여행과 관련된 글로 많은 반향을 일으킨 저자는 책에서 "히말라야 순례는 단순한 여행이 아닌 운명 같은 것이었고, 내면을 돌아보는 구도과정이자 만행이었다"고 토로한다.

저자가 직접 담아 온 히말라야의 자연, 사람, 꽃, 동물 등 150여 컷의 사진도 글과 함께 그 생생함을 더한다. 또 부록 '법상 스님께 묻는 트레킹 Q&A'을 통해 히말라야 트레킹을 위한 준비사항도 소개한 점도 특징이다.

히말라야, 내가 작아지는 즐거움 | 법상 스님 지음 | 불광 출판사 | 1만5800원

노덕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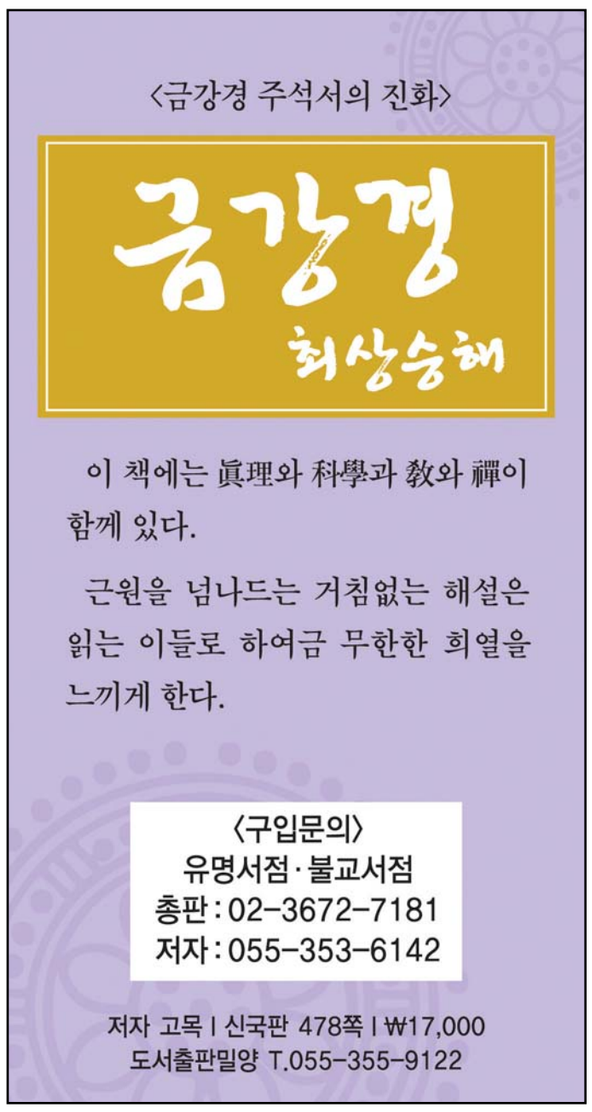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이야기 숲을 거닐다	보경	민족사
2	기도	법륜	정토
3	행복한 간화선	일선	클리어마인드
4	다음생을 바꾸는 49일간의 기도	법성	운주사
5	마중물의 힘	허달	여시아문
6	누구 없는가?	법전	김영사
7	소설 무소유	정찬주	열림원
8	우리 모두는 인연입니다	일아	민족사
9	절집을 물고 물고기 떠있네	원철	뜰
10	대의단의 타파, 무방법의 방법	성엄	탐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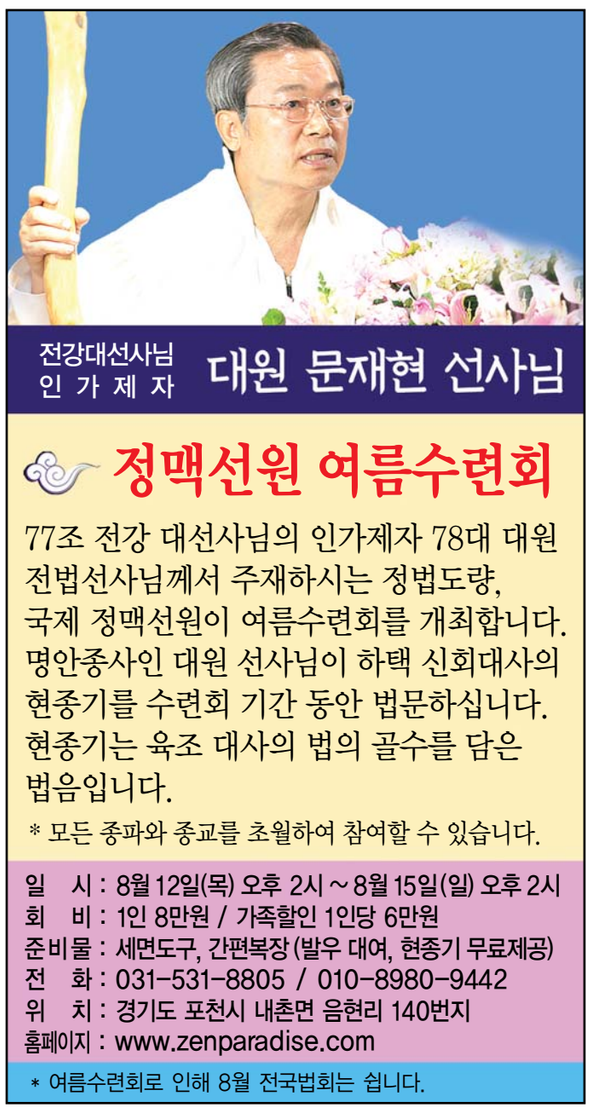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 문의 : TEL 02) 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 마감 : 매주 월~수요일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울산)

역학 개인지도 (빙의, 퇴마)

한달만 물상으로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영가 보는법과 실전위주로 개인지도함.
역학 : 물상으로 명리, 영가지도,
궁합, 택일, 구궁법, 작명
퇴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부산)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 (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저렴하게 불공해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작법무,
살풀이, 범음범패
010-3590-7596
019-688-9885

빙의 퇴마 전문치료

수시접수 中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악령에 시달려 머리가 자주 아픈 분
신병, 빙의로 신내림 받아야 할 분
지장사 주지 광덕 합장
032)261-8425
010-7335-8425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용두 작명 역학 연구소

수강생모집.
제기역3번출구
최단기간에 성심껏지도
02)3295-3456
011-9020-8215
달마 김대영

공양주
구함
▷안양 안흥사
031)473-602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울산
010-9318-3230

역학(명리) 수강생 모집

• 기초부터 총정리 반
• 총정리 반
(영천 안완산 실상사)
010-7270-3425

기도부전
비구스님
모십니다
▷팔공산 구화사
010-9421-9364

50대 후반 비구승
입니다.
부전소임이나 작은암자
맡겨주시면 청정도량
으로 가꾸겠습니다.
소중한 인연처를
기다립니다.
010-5238-1624

쉼터 약수암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수암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립
010-7232-0384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가족같이 함께 생활
하시면서 기도하실
비구니스님과 공양주
보살 모심니다
▷가야산자락 성주
010-3558-9711

사무직원
모십니다
공양주 모십니다
▷대전
010-5792-3000

공양주 구함
외국인 환영
▷충북 괴산군 천년고찰
010-6414-5600
043)832-6148

불심깊은
50대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포천시,
월보시금 100~120만원
010-9269-8445

공양주 모십니다
남녀 행자
모십니다
▷경기 안성에 산세수려한 도량
010-8954-8033

50세 미만
기도부전
비구스님
모십니다
▷팔공산 송림사
054)976-8116

부전 자리
구함
▷비구
010-5418-4162

부전스님
모십니다
▷45세 이하,
부산 금정산 원광사
051)558-8830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서울
02)2234-219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김포
010-9469-662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청평
031)584-0117
010-8651-574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천년고찰
011-527-0637

기도하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기도시간 : 아침, 사시
▷부산 가야 대원사
051)891-7255
051)891-1051

인연을 찾습니다
(서울 잠실)
함께 불사하실 처사,
보살님 연락주시면
좋은 인연으로 모시겠습니다.
010-6889-5040

철학 할 수
있는 비구니나
보살님 모십니다
▷대구
010-9931-1315

기도스님
모십니다
▷50세이상, 부산
010-9332-1719

대방등 대집경 대승기도

● 어떠한 소망도 이루어지는 기도법을 배우려는 스님
● 위치 : 백선사 절 (전철 1호선 부천역 소명사거리 3층)
☎ 032)664-0048 / 011-741-0867

사찰건축 전문

사찰 설계, 신축, 보수, 해체, 이전, 토목공사 일체
단순히 목(木)공사를 전문으로 한 한옥 목수의 시각이 아닌
사찰건축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과 경험으로 생각이 다른
건축의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전화 070)7433-9919, 031)637-8886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여자)신청하시고
상담은 통장 입금 상담
찾아오실 분은 이포나루터 남한강 뚝방 2층 베란다와 정자에서
시원한 바람과 함께 시원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미사리에서 40분 소요)
031)774-5067 / 011-498-5067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관욕 지의 (紙衣)

• 한지로 만들었습니다
• 홑지로 재단하여 만들었습니다
• 짧은 시간에 많이 태울 수 있습니다
• 디자인이 일반옷과 동일합니다
• 남녀 구분되었습니다 (사이즈는 동일)
• 전국 불교용품점에서 판매합니다
◆사이즈
가로길이 : 18㎝
세로길이 : 21㎝
문의전화 054)972-9933 / 017-503-3503

대체의학 비법전수

1. 중풍환자 혀가 뻣뻣할 때 2. 발바닥이 아파서 걸음걸이 힘들 때
3. 척추에 이상없이 허리가 몇십년 아플 때 4. 오십견으로 팔올리기 힘들 때
• 이상 4가지를 단 한번에 낫게하는 비법전수 (이론없이 실기만 가르침)
• 엄중한 중풍을 철저히 고치는 중국 고대 비법전수
(스님, 한의사, 기치료사, 대체의학 종사자를 대상으로 함) (중풍환자 출장치료 가능함)
• 수련시 각종 그림 나타나는 분들께 초능력 기공을 가르침 (별도강의)
• 중국 초능력 기공사 직강 (각종 질병 치료 비법 교재 증정)
010-7703-3825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행자(예비스님) 모집
21세기형 행자교육!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수행과 수계 이후 모든 지원!
•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교육
• 수행 ·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문의 : 010-2488-8228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발 앞선 장례문화시설!!
•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설, 추석, 기일, 영가 천도일에 천도축원 해 드립니다.
• 문의 : 010-6296-0108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초급4개월 : 중급4개월 : 연구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7시~10시.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9~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탈종공고를 정정합니다

현대불교신문 795호(8/4) 21면 하단 광고에 게재 되었던
'도의사 /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북부동 452'
탈종공고를 취소합니다.

2010년 8월 2일

도의사 주지 지혜 합장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철암사
• 법 명 : 원각성 (박순례)
• 주 소 : 전남 함평군 대동면 월송리 30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1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한국근본불교조계종

공 경남교구 본산 주지 공개모집 고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제 14교구 경남 종무원
청정사 주지를 공개 모집합니다.

◆ 자격 : 법당 10년이상 비구, 비구니로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종도로써 활동하며 청정사 중창불사에 전념할 수 있는 스님
◆ 대우 : 종신 주지 및 사자상승보장 (종단에 소정의 후원금 지급 요)
◆ 자산 : 법당 30평, 요사 20평, 선방 50평, 산신각, 석불, 석탑 등 대지 630평, 임야 7400평 등

총무원장 의륜 합장

■ 주 소 : 경남 합천군 청덕면 초곡리 820번지
■ 문의전화 : 011-352-7751

(사)한국불교조계종

제 적 공 고

■ 성명 : 한영수 (법명 : 자화)
■ 주소 : 자화정사 –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2-5번지

위 승려는 본 종단을 자기 종단처럼 운영을 하고
자기가 대표라고 생각하고 신문에 공고한 일도 있고
종정스님 허락없이 모든 서류를 자기가 마음대로
처리 하는 바, 위 한영수(자화) 총무원장을
본 종단과 뜻이 맞지 않아 제적을 공고함.

2010년 8월 11일

(사)한국불교조계종 종정 월정

공념학당 육임수강생 모집

1. 지금까지 육임을 배우고도 자신이 없어서 육임을 못하시는 분
2. 육임과체가 어렵다고 생각 하시는 분
3. 육임이 잘 맞는지 알지만 어렵워서 육임을 시작못하시는 분
4. 명리나 타학문을 배우고 명확히 점사를 볼 수 없어서 자신감이 없는분

이런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고 명확한 육임에
엑기스를 추려서 비법강의를 합니다.
엑기스 강의이므로 더 이상 육임 공부가
필요 없도록 지도 합니다.
기간은 3개월 완성이며 3개월 후에는 확실히
육임이 보이게 될것입니다.
육임은 확실히 공부만 되면 수학공식처럼
똑 떨어지는 점사를 알수 있습니다.

■ 초급반 : 수요일 3시 / 수강료 150만원
■ 완성반 : 토요일 (11시반, 오후 5시반) 수강료 100만원
■ 동영상강의 : 80 강 150만원
720 국수 cd 100 만원

공 념 학 당
02)793-7333 / 018-471-6410 용산구 보광동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02)2004-8215
- 원고접수 : jabi82@naver.com
  FAX 02)737-0696

※ 매주 수요일 마감. 다음주 수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 법당 : 35외 35평
- 요사 : 25평
- 부지 : 210평
- 가액 : 5억 5천

- 위치 : 경기도
- 법당 : 35평 외 2동
- 요사 : 90평
- 부지 : 600평
- 가액 : 17억

- 위치 : 충남 연기
- 법당 : 30평
- 요사 : 85평
- 부지 : 1,000평
- 가액 : 6억 8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 송 기 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안 내

- 서울명산에 소재한 기도 영험 도량입니다
- 천하 명당 사찰임을 감히 말씀 드립니다
- 가액: 12억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랍니다

수행자를 위한 대력불사
031)775-8110. 011-531-5562
팩스 031)775-8910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금정산 자락 사찰
- 총 대지 : 약 230평
- 법당 30평, 주지실 15평(1동)
- 요사채 50평(2층 건물)
- 부산 온천장(금정산) 부근
- 남향, 텃밭 50평, 주차장 확보
- 총금액 : 5억 8천

낙동강 전망 아름다운 대사찰
- 총 대지 : 약 1500평
- 전통법당 : 35평
- 요사채 100평, 대종각, 기타 전각
- 부산근교 신도시, 산세수려
- 계곡물 철철, 주차장 300평(버스진입가)
- 총금액 : 13억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 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 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포교원 터 안내

- 위치: 부산시 대연 6동
- 법당 20평, 큰방 1개, 다락 2개
- 포교를 위한 법당으로 최상의 위치
- 스님 , 법사, 보살 환영
-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010-3551-1482

사 찰 안 내

- 위치 : 홍천군 모곡리
- 평수 3000평
- 법당 3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60평, 조립식 40평
- 연못 있음
- 가액: 15억 (답사 후 절충)

011-737-9626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문현동
- 대지 약 160평
- 건평 80평(1,2층)
- 방 6개, 목욕탕 2개, 주차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내방 절충

010-3302-1821
051)632-1821

절터안내

- 위치 : 통영시 사량면 하도읍 덕리 칠행봉밑 해성암
- 절터 1,000평 ● 가격 3억 (절충)
- 시설완비

010-6569-7027 (수시)
055)649-8219 (아침, 저녁)
016-483-1459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 4층 건물 중 2층
- 법당, 요사채 포함 72평
- 주차장 완비
- 도심속 포교당 최적지임
- 가액: 2천만원 월 70만원
- 인연있는 분 전화바람

011-537-013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문경 전천시내
- 대지 128평
- 요사채 콘크리트 30평,
- 법당 목조 30평
- 가액: 2억 7천만원

011-538-985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 대지 87평, 2층건물
- 1층 요사채 34평 ● 2층 법당 24평
- 특징: 안강읍 시장, 대형마트 각각 5분거리
- 1,2층 모두 도시가스 설치
- 가액 : 2억 3천만원 은행융자 6천가능

054)763-6655

암자 · 토굴 안내

- 위치 : 경남 거제시
- 대지 344㎡, 104평
- 아궁이, 황토방 ● 단독주택 2채
- 방3, 공양간 1, 인법당
- 가액: 1억 4천만원(절충가능)
- 거창 토굴터 . 1017평

055)632-3840

쑥뜸방(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동래 온천 역세권, 아파트 밀집지역,각 노선버스 정류장, 홈플러스, 재래시장 입구
- 법당 겸 쑥뜸방, 시설 깔끔
- 3층, 33평
- 가액: 합 4500만원
- 기술 책임 전수, 비구니 보살님 적합
- 사정상 양도하고자 함

017-560-1035

시내사찰안내

- 위치 : 청주시
- 대지: 50평
- 1층 : 방4, 거실, 주방, 화장실
- 2층 : 방3, 화장실, 주방
- 3층 : 법당, 지하실
- 가액: 1억 5천 5백만원

011-753-0768

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남 창원시 중앙동
- 법당과 안쪽 방1칸 살림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60만원
- 시설비 200만원
- 이전불사관계로 급 안내

055)262-3679
010-4877-1679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
- 대지 107평, 건물 45평 (철근콘크리트 구조)
- 거실大, 방3 (화장실2, 남향 뒷 야산)
- 차량마당진입, 건축비 1억8천만원
- 가액: 1억 3천 5백만원

011-531-5562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당리동
- 3층건물 중 3층. 40평
- 법당 1, 상담실1, 주방겸 큰방1
- 4층 옥탑방1, 옥상사용가능
- 보증금 5백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절충
- 몸만 오셔도 법회가능

010-4784-5506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동구 좌천동
- 대지 : 300평
- 건평 : 법당 (60평), 요사채(20평), (15평)
- 가액: 7억 8천만원 (가격절충가능)

010-3118-4901
010-4506-874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남양주시 별내면 수락산 아래
- 평수 : 67평(7층중 3층 전체)
- 법당 : 34평 (방4개, 종무소1, 시설 A급)
- 보증금3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몸만 오시면 됨 ● 즉시 법회

011-329-6606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허심청후문 온천시장
- 평수 50평, 방2, 주방1, 화장실
- 최고시설, 최고위치, 위치 좋음
- 가액: 전화 상담 후 결정

010-9247-0180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 1층 요사채 35평, 2층 법당 11평, 산신각 3평, 대지 90평
- 외부: 5층석탑, 미륵존불, 양쪽 석등, 1자반 약사여래불 주차시설완비
- 가액: 1억 6천 5백만원

011-297-9149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달동
- 평수 약 70평, 3층
- 옥상같이 사용
- 시설완비 주차장 有
- 보증금 전세 20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방문 후 결정

010-2972-9194

임야 사찰 터

- 위치 : 창녕군 창녕읍 여조리
- 44,120평
- 화왕산 주령 사찰터
- 가액: 3억 8천만원
- 관리지역, 농림지역

017-570-1600

시내사찰안내

- 위치: 인천 동구 박문사거리 근방
- 전철 제물포역 도보 10분거리
- 대지 약 45평
- 1층 단독건물, 법당, 삼존불, 요사채, 방2, 부엌
- 화장실, 도시가스, 거실, 상담실
- 투자가치성 있음● 융자 6450만원
- 가액: 2억 2천 5백만원(조정됨)

010-4517-3779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 광역시
- 부지 500평
- 건물: 대웅전, 외5포 내9포 목재건물
- 요사채 2동 각 60평, 10평 산신각, 종각
- 사팔등1천등, 인등 1200
- 가액 : 12억(절충가능)

010-9318-323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대명6동 (대명초등 부근)
- 주택독채 43평, 마당있음
- 법당: 삼존불,후불산중 산신탱화
- 시설: 방2개, 점포5평,공양간, 욕실완비
- 보증금없이 10개월에 300만원 삭월세
- 시설비 600만원(절충가능)
- 주차 공간넓음

010-8181-501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광명시 (위치 좋음)
- 3층건물 3층, 총 45평
- 법당 20평, 분리됨
- 방2, 공양간 12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있음
- 몸만 오시면 됨
- 8년 포교 불사관계로 급 임대

010-8519-0758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시 서대문구 사거리 상업지역
- 3층, 60평
- (옥상포함. 전체사용가능함)
- 보증금+시설비 6천만원 월 62만원(절충가능)
- 현법회중
- 뒤에 산과 폭포있음

011-496-6417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북 구미 시내
- 주택 2층 독채 약 30평
- 보증금 無, 10개월 200만원 시설비 450만원
- 약사여래불, 각단탱화
- 일체완비, 법사님 보살님도 계시기에 좋음

010-4166-4563

토 굴 안 내

- 위치 : 충북 단양군 영춘면 만종리
- 대지 200평 전 합 755평
- 신축황토목주택 약 20평 구조 방 2개 찜질방포함
- 실개울 접, 2차선에서 800미터 끝지점
- 스님모시고 조용히 계실분
- 가액: 7,500만원

010-6460-1316

사 찰 안 내

- 위치 : 여수 돌산 분전리
- 여수에서 돌산까지 20분거리
- 대지 총 250평, 대웅전 1, 2층건물 1
- 요사채 1동
- 가액: 2억 3천만원 꼭 하실분만 가격 절충가능함

011-9765-5302

사 찰 안 내

- 위치: 제천에서 20분거리 서울에서 2시간
- 부지: 1650평중 종교용지 300평
- 건평 100평, 임법당 15평
- 산세수려하고 명당터
- 기도터 및 선방으로 적합
- 가액: 3억 5천만원

010-5114-017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안산시내 상업지역
- 상가 5층 건물의 2층
- (옥상 텃밭 30평 단독사용)
- 평수 50평
- 기본 법당시설 A급 완비
- 소임관계로 급하게안내 하오니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0-4180-3822

사 찰 안 내

- 위치: 제주도
- 아담하고 조용한 저렴한 사찰을 안내합니다
- 필요한 분만 전화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010-8815-7479

암자 · 전원주택 안내

- 위치 : 경남 합천
- 부지 710평, 대지 300평
- 신축건물 30평, 창고 . 요사채 20평
- 아미타 삼존불, 약사여래불, 용왕단, 신중단
- 계곡물 흐르고 연못도 있음
- 큰 미륵바위 有
- 가액: 1억 7천만원 (융자 5천만원) 가격절충

010-8794-125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이동저수지
- 대지 300평, 건평 60평
- 삼성각 7평, 호신불 108불
- 주차 30대 가능
- 보증금 3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0-6215-9749

포교원하실분

- 현포교원 (60평)
- 위치:시장 입구 전망 최고
- 부산 북구 구포 2동 시장 입구
- 지하철 2호선 구명역. 구남역 3분거리
- 전세 5천만원

051)338-8607
011-9515-8606

종교사업같이 하실 불자님!

- 추모관 3층건물 (각층당 1500기)
- 분양금액의 30% 투자후 분양건 일체 위임
- 팔공산자락 위치 최적지(신축절) (대구에서 15분 청통, 와촌 IC에서 1분)
- 보각사(방문후 상담)

011-508-1467

사찰 터 안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5000평
- 대웅전 33평 반지하 80평 (골조 공사 완료)기타 전답 100% 사용가능
- 전기,지하수완료,진입로 포장.
- 복지, 자연 치유센터, 명상센터 수련원,사찰음식 연구소등등
- 가격: 상담후 파격 조정

향림 010-4512-0813 (주인직)

도심포교원

- 위치: 서울 강동구 5호선 도보 2분거리, 아파트 상가밀집지역
- 4층건물중 2층 ,45평
- 삼존불, 고급무늬목 상단
- 접견실 1, 방3, 실내화장실1 (대형)복도화장실 1
- 보증금 1천만원 ,월1백만원 시설비 2천만원
- 도심속 최고자리

011-716-3811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부여군 만수산 자락 (보령 20분, 청양 20분, 부여 30분 서해고속도로 20분거리
- 부지: 약 1.200평
- (사찰 뒤 도유림.주차장완비)
- 건물 : 법당 20평, 요사채 50평 (신축건물, 방 4, 주방, 거실) 산신각 3평, 창고 20평
- 사찰주변 경관및 전망이 수려한 기도사찰
- 가액: 2억 8천만원(시설집기포함)
- 거래하실분만 연락바람(부동산사절)

010-3857-336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인천 계양구 계산시장 입구
- 지하철 5분 거리
- 4층 건물 3층 65평 옥상사용가능
- 법당, 방2, 사무실, 공양간, 욕실, 화장실
-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2000 월60만원 , 시설비 1400만원
- 이전불사 관계로 저가양도

010-9773-9980

사 찰 안 내

- 위치: 영천시 고경면
- 한옥기와 1동 外 토담집 1동
- 대지 外 텃밭 450평
- 교통 편리하며 조용하고 수행하기 좋음.
- 가액: 7500만원 . 도인 은신처

010-5039-6505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영천시 북안면
- 사용부지 6,000평 (실등기 5,000평)
- 법당(목조) 약 20평
- 산신각, 요사채 2동중 황토방 1개
- 실내외 화장실 3개 ● 가액: 3억 8천만원

011-816-9104
011-815-9104

사 찰 안 내

- 위치: 천안시 광덕면
- 건물 3층, 400평
- 건물빼고 총 1650평
- 전세 13억

010-5777-479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태안군 태안읍사무실 부근
- 단독주택 조용함(방4, 거실, 욕실)
- 전세 2천으로 시설비 없음
- 스님 영구 해외 이주 관계로 고가구 및 불교 공예품을 문화원 및 민속박물관 하시는 스님께 저가로 인수원함 (팔만대장경외 200권 보시)

010-4285-5914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경주시 조양동
- 총평수: 880평, 대지 380평, ● 법당 목조 18평
- 요사채 40평,(콘크리트건물), 종각1개 약 1평
- 심야전기보일러. CCTV
- 가액: 4억(은행융자 8천만원)

010-3112-3513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혁 신도시(김천시내에서 7~8분거리)
- 대지 171평(법당 1,2층 1동. 요사채 1,2층 1동. 합 건물 2동)
- 법당 2층 : 20평. 건물 단청되어 있음. 수미단 조성, 영단. LED인등
- 종무소 1층 : 20평. 방3개 ● 요사채 : 1층 30평, 방3개, 2층 30평, 방3개 (귀뚜라미화목 보일러와 린라이가스 보일러겸용)
- 140여가구 마을 옆 산자락 아래 자리하고 법당옆으로 골짜기 물이 졸졸 흐르는 깨끗한 도량, 주차공간이 넓으며, 텃밭도 있음
- 근린시설, 종교집회부지로 등록되어 있음
- 가액 : 2억 3천 5백만원 (은행융자 1억 포함)
- 실질적인 가액이므로 금액절충은 불가하오니 꼭! 필요로 하신분만 연락바랍니다

010-7133-226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화왕산 군립관광단지 입구, 대로변 옆
- 평수 : 대지(종교부지) 600여평(실평수 700여평)텃밭경작
- 법당 25평, 삼존불, 지장, 약사, 신중, 영단, 칠성각, 산신각
- 각단후불탱화, CCTV설치, 불사완벽, 모든 비품집기일체
- 요사채(65평, 후원 2곳) 심야보일러(온수평펑)
- 외부: 석탑, 용궁, 꽃등산, 화장실, 사찰내주차가능, IC에서 10분
- 특징: 산수화려한 산밑에 위치(소나무 50년이상)고속, 국도위치
- 가액: 3억 8천 5백(유동가격 평당. 대지 50만원이상)
- 스님 건강문제로 급 양도,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주세요

010-6252-3225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산 139-8번지
- 용도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평수 : 임야 533평
- 가액 : 5억 5천만원
- 사찰부지로 적합함

주인 직 010-9242-2661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 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아주 중심에다 활을 꽂을 수 있다면 아니 되는 게 없어요

(지난 호에 이어서)

그전에 이런 얘기 한 예가 있었죠. 어떤 사람이 감기를 앓았는데 너무 오래 앓았어요. 인제 죽을 병이 되어서 의사들도 다 괴질이라나 그러면서 고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외아들인데 그냥 하도 병이 안 떨어지고 애를 쓰니까 스님이 오시자 여쭤 봤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스님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당신네 나무패는 모탕 있죠? 도끼하고." 그거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 놓으니까 도끼를 들고 그놈 좀 이리로 내오라고 그러거든요. 허허허….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놀랐겠소? 아, 그놈 내오라고 그러니. "어서 나오너라. 스님이 나오라고 하신다." 해서 나오니까 그놈 모가지를 그냥 모탕에다 턱 놓고 "이놈, 감히 어디라고 네가 부처님 앞에 붙어서 이러느냐!" 이러면서 그 모탕에다가 목을 올려놓고 그냥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말입니다, 자기가 여기 와서 그걸로 인해서 얻어먹고 살려고 했는데 뚝배기가 깨지겠거든요. 그래서 그냥 뚝배기를 들고 얼른 도망을 갔습니다. 그 아들한테 뚝배기를 쐬워 놨거든요. 뚝배기를 쐬워 놔야 병을 앓아서 자기가 얻어먹거든요. 그래 뚝배기를 벗겨 가지고 얼른 도망을 가니까 그 병이 바로 낫더라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도 그렇게 좀 내버리세요, 네? 죽고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원통합니까? '내일 죽은들 어떻고 모레 죽은들 어떠리! 좀 더 살면 어떻고 덜 살면 어떠리!' 아, 이렇게 좀 하면 어때요? 뭐가 그렇게 그렇다고…. 그렇게 내버리고 산다면 그냥 좋은 밥에 좋은 옷에 화목한 가정에, 참스러운 마음에서 이리로 가도 좋고 저리로 가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덩실덩실 춤을 춰도 다 못할 것입니다. 정말이지 여러분이 "저 중 미쳤어." 이럴까 봐 춤을 못 추지, 허허허…. 아니, 모르는 사람들은 "저 중 미쳤어." 그럴 거예요. 춤 좀 추고 좀 웃기나 하면 "갓 미쳤어." 그러고, 껄껄껄껄 웃으면서 아주 그냥 옷도 다 벗고 이러면 "아주 정말 미쳤군." 이러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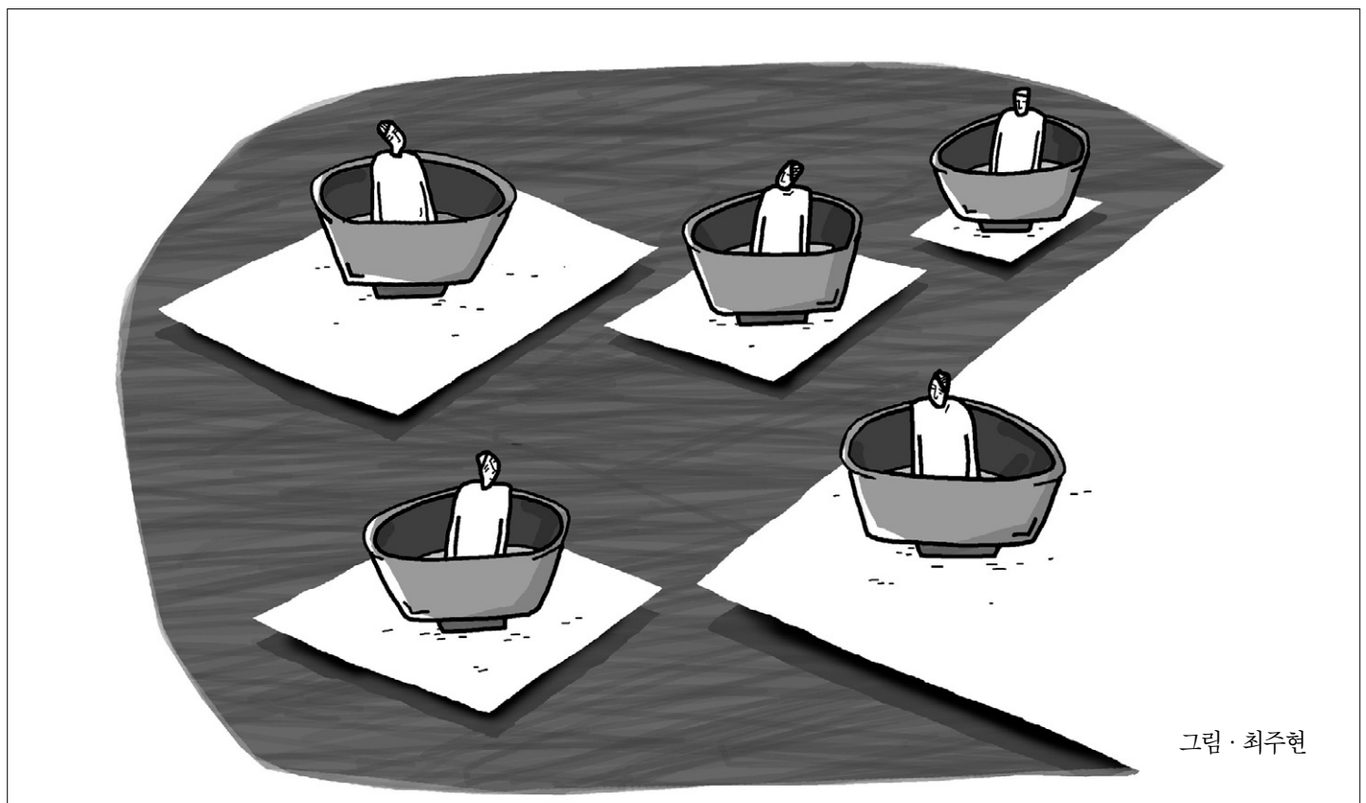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러니 이 공부 하는 데 미쳤다는 소리 한마디 듣지 않고는 공부 못합니다.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진심으로써 자기한테 자기가 미쳐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길잡이한테는 지혜를 구하고자 따르는 거고 자기를 발견하려면 자기를 믿어야만 됩니다. 만날 여러분이 기복으로 끄달리고 귀신짓을 하기 때문에 귀신이 되는 거지 여러분이 귀신짓을 하지 않는데 어찌 귀신이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진짜로 아주 중심에다 활을 꽂을 수 있다면 진짜로 아니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아니 되는 거 없죠. 여러분, 인제 질문 좀 안 하시렵니까?

질문자1(여): 영가 천도에 대해서요, 저는 법을 잘 모르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얘기로는 해마다 조상 천도를 해야 되고, 그런 행사를 각 사찰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젓번에 백중 때에 여기 와서 보니까 '아무개 성씨의 일체 조상' 그러고 그 기도를 접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일체 조상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많은 성씨들이 거기 다 같이 결합해서 오늘의 내가 있다고 생각했을 적에 어느 조상이든지 내 조상이 아님이 없다 하는 데 공감을 가졌습니다.

큰스님: 아유, 참! 도인이 나셨네요, 또.

질문자1(여): 죄송합니다.

큰스님: 아니에요. 정말 그런 생각 하시기가 어렵죠.

질문자1(여): 그래서 저는 제가 다니던 사찰 도반에게 "나는 이번에 큰스님한테 조상 천도를 부탁드렸는데 틀림없이 천도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왜 그런 믿음을 갖느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는 바로는 법력이 크신 분은 그 근원을 찾아서 천도를 하시기 때문에, 스님이시라면 완전히 천도를 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랬더니 "그럼 당신은 다음 해부터는 조상 천도를 안 할 거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천도된 영혼이라면 다시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이제부터는 일체의 유주 무주 고혼을 위한 천도의 방법은 택하겠지만 내 조상을 위해서 하기보다, 부모나 형제 친척이 죽기 전에는 거기에 얽매이지는 않을 거다." 그런 얘길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보고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제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큰스님: 그거는 보살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참 생각 잘하셨습니다. 틀렸다는 사람은 자기 소견이지 보살의 소견이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생각도 천차만별 아닙니까? 그러니 전부 부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저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는데도, 부처님이 다 건져 놓으셨는데도, 여러분이 벌써 인간이 됐으니까 99% 부처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 때문에 모두 중생인 것입니다. 아까 '일체 유주 무주'라고 그랬죠? 그러면 일체 조상과 부처의 조상, 자기 전생의 조상도 전부 일체입니다. 유주 무주를 말할 건덕지도 없죠.

그러니 만약에 떡 한 그릇 밥 한 그릇 물 한 그릇 놓고 내가 밥을 먹다가 천도를 시켜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분들은 그렇게 호탕하게 "얼씨구절씨구 좋을씨구!" 하하하…, 이러는 겁니다. 이 말을 해도 함이 없이 하게 되고 그냥 그대로 말을 하면 법이 되고 그대로 움죽거리면 행이 되니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리고 요 알뜰살뜰한 말, 내가 끝으로 한마디 해 드리겠는데, 지금 보살님이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여러분의 생각이 그러시다면…, 이렇습니다. 절에서 상을 크게 차려 놨습니다. 차려 놨는데, 고여서 놨죠? 그런데 먼저 스님네들이 음식들을 그렇게 고여 놓고 크고 작은 거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아! 이만큼 차렸으면 영가도 마음이 풍족하겠지.' 요렇게 생각합니다. 허허허…. 그러니까 그 상에 차린 것밖에는 영가가 모릅니다. 만약에 영가를 천도시킬 분이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일체를 그 한 손에 쥐고선 이걸 한 떡이라 생각할 때 그 영가도 '아! 그 떡이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가 천도는 그냥 스스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스님이 그렇게 물질로만 생각을 하니까 영가들도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밖에는 못 받고 그거밖에는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모두 넓어져서 항상 그저 이리로 가도 둘이 아니요 저리로 가도 둘이 아니요, 이렇게 주고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학적으로도 천체물리학으로도 보세요. 얼음 속에 생명을 넣었다가 다시 살리는 실험이 수십 년 수백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겨울에 물고기들이 얼음 속에 있다가 봄이 와서 물이 녹으면 그냥 살아납니다. 그러한 걸로 봐서도 그렇지만 이 부처님 법이란 깨달으면 다 알게 되는 이유가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22면으로 계속

보경 스님의 **희로애락** 세상보기

이야기 숲을 거닐다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 02.732.2403~4 F. 02.739.7565
minjoksa@chol.com www.minjoksa.org

동서고금의 이야기 숲에서 건져낸, 보경 스님이 들려주는
삶의 기쁨 · 분노 · 슬픔 · 즐거움의 지혜 !

이야기는 반복에 묘미가 있다.

죽고 사는 것도 다 근본자리에 놓고 믿어보십시오

☞25면에서 계속

예를 들어 누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못 잊어서 참 애쓰기에 그 가족 과거를 이렇게 보니까 아, 그분이 참 착하더란 말이죠. 산 자식들도 착하고 그분도 착하더라 이거죠. 그러면 착한 것만 아는 게 아니죠. 그분을 만 명으로도 만들어 놓을 수 있고 또 천 명으로도 만들어 놓을 수 있고 세 명으로도 만들어 놓을 수 있고 한 명으로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을 그 집에다가 세워 놓고 그 집을 위해서 심부름하게끔 하기 위해서죠. 살아서도 자식들을 위해서 심부름을 했는데 죽어서도 모습 없는 모습으로서의 그 마음을 심부름하게끔 할 수 있는 거죠. 요걸 잘 들으세요. 그 아버지가 착하니까 내 마음과 둘이 아니게 내 주장자를 그쪽으로 주니까 그분이 고만 나하고 똑같이 알게 됐더라 이거죠. 또 그분이 모른다면 그분 주장자를 내가 뺏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그 도리를 모른다면 항상 세균에 끄달리지, 영계에 끄달리지, 업보에 끄달리지, 윤회에 끄달리지, 여러분이 그런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그냥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없이 들어오고 나가거든요. 영계가 들어와도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모르거든요. 가정을 온통 그냥 막 뒤집어 놔도 그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중생이라 하지요. 그러니 그것을 다 해결하고 녹이고 막고, 둘이 아니게 모든 것을 법바퀴로 둥글리고 불바퀴로 굴려서 새로 생산해서 보살로 화해서 나가도록 해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여러분은 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중생이라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서 뭐냐? 아까 고거 얘기했죠. 네가 그 마음을 알면 내가 주장자를 줄 것이로되…. 예전에 임제 스님도 그랬어요. "만약에 네 주장자가 없다면 내가 네 주장자를 빼앗을 것이고…. 네 주장자가 없다면 일체 모든 세균이나 영계가 털구멍을 통해서 너의 집을 드나들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더라도 너는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도 모르느니라. 네가 네 주장자가 있다면 내가 네게 주장자를 줄 것이니라." 이랬거든요. 그게 뭔 소리냐? 그 마음이 통하니까, 힘을 저기다가 줘도 저 사람은 그 힘을 악의로써 쓰지 않고 선의로써 만법을 들이고 내면서 보살행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가 행하는 거를 알려면 여러분도 나와 같이 알아야 내 속을 바로 꿰뚫어볼 거 아닙니까? 내가 구름을 타고 다니면서 나쁜 짓을 하는지, 구름도 안 타고 가고 옴이 없이 돌아다니는지, 무엇 때문에 다니는지 그것도 알 거 아닙니까? 왜 저이가 저렇게 못났는지 그것도 알 거고요. '아니, 그렇다면 저이가 잘 그려 가지고 나오지 왜 저렇게 못나게 그려 가지고 나왔어?' 한다면 내 속을 알아야 왜 이렇게 그려 가지고 나왔는지 알 거 아닙니까? 내가 만약에 잘 그려 가지고 나왔다면 난 이러지 못하거든요. 안 그래요? 미인으로 아주 잘생기게 태어났다면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야지요. 차라리 못 그려 가지고 나오는 게 좋겠지요?

못 그려 가지고 나왔는데도 젊어서 한때는 남이 더러워서 피하게끔 얼굴에 진흙을 발랐거든요. 어때요? 그 방편도 좋죠? 그래서 볕에 말리니까 진흙과 같이 말라서 피부가 쩍쩍 갈라져서 피가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모두 "미쳤다. 미쳤다." 또 그냥 싱글벙글 싱글벙글 하니까 "아, 미친 사람인데 갓 미쳤나 봐. 그런데 왜 산에까지 올라왔지?" 이러거든요. 만약에 그럭하지 않았더라면, 키도 크고 미인이었더라면 날 그냥 놔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고도 또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의도대로 마음대로 못했을 거다 이겁니다.

나는 잠깐 동안이라도 안 해 본 게 없어요. 하다못해 맷돌질 키질 모심는 것까지도 조금씩 안 해 본 게 없어요. 어떻게 하나만 가지고 잔뜩 붙들고 몇 해씩 나가겠어요? 잠깐잠깐이지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해 본 바,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그러니까 더 당차지고 믿음이 옵디다. 그러니 여러분도 각자 자기가 자기를 진짜로 믿고 실험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믿어야 해요. 왜?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있었던 거지 자기가 없는데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너부터 알라." 이랬더니 죽였다지 않습니까? 허허허…. 잘못이라고 말입니다. 아까 천도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분들은 천도를 꼭 상을 차려 놓고 해 줘야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이 잘 잡숫고 가시게 해 드렸으니까 잘됐겠지!' 요렇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런 분들은 차려 놓고 해 주고, 어떤 분들은 "스님, 제 성심으로 부모를 위해서 마음을 냈습니다. 자식으로서 부모한테 해 드린 것도 없고, 또 그렇게 고생만 하셨는데 살 만하니까 돌아가셨으니 이렇게 해 드리는 겁니다, 부모를 위해서. 그러니 천도 좀 시켜 주십시오." 그러고는 가거든요. "그러면 주소하고 이름도 써 놓고 가고, 뭐 물건을 해 와야지."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이름도 성도 없어도 부처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이러는 거라. '야, 참! 저이가 부처구나, 하하!' 이러고선 말입니다, 얼마나 껄껄대고 웃었는지…. 그래 그 돈을 받아서 두 군데 세 군데로 나눠서 누구를 줘 버렸어요. 그냥 줘 버렸죠. 난 그렇게 쓰는 돈이 한 달이면 아마 꽤 될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그냥 그런 거죠, 뭐. 그냥 돌아갈 뿐이에요. 그냥 움죽거릴 뿐이고 그냥 말할 뿐이고 그냥 살 뿐이에요. 모두가 내 형제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고 위로는 내 부모 아님이 없으니, 우리가 잠시잠깐 살다 가는 것이 저 뜬구름 한쪽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와 같죠. 그처럼 흘러내리는 물과 같고 스쳐 가는 바람과 같고 가을에 나뭇잎 떨어지는 거와 같고 꽃이 피었다 한 잎 두 잎 떨어지는 거와 같은 것이 인생 아닐까요?

여러분은 각자 자기가 자기를 진짜로 믿고
실험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믿어야 해요

그러니 우리가 '모른다 안다' 그걸 떠나서 '저 스님은 도인이야, 도인이 아니야' 이런 거를 떠나서 인간으로서 좀더 진실하게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말을 할 수 있다면 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유(有)의 법으로써 남을 돕는다고 자기 먹을 것도 다 갖다가 주라는 게 아니라 나와 그와 둘이 아니게 생각한다면 바로 내가 줄 수 있는, 콩 한 쪼가리라도 나눠 먹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또 마음을 내되 남에게 해롭게 마음을 내지 않는다 이겁니다. 행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행이 없이 무(無), 공(空)에 빠지거나 유(有)에 끄달리거나 이래도 안 되죠. 유의 법으로 물질세계로 끄달리거나 그래도 안 되고 무의 세계, 공에 빠져도 아니 되고, 나만 참선을 한답시고 안주해도 아니 됩니다. 이거는 천체가, 변소간에 가도 부처는 거기 있으니 참선이요 어디든 내가 가는 족족 부처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바로 그것이 참선이라. 그것이 행선입니다. 일체 만법이 다 행선이며 참선이에요. 여러분 생활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면 도를 이루지 못하고 환상천을 넘지도 못하고, 바로 불사천을 넘지도 못하는 것이고 무명천도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복으로 끄달린다면 달마대사가 양 무제더러 한 말과 같은 겁니다. "나는 절도 짓고 또 물건도 많이 장만해서 스님네들한테 보시했고 옷도 해 드리고 쌀도 갖다 드리고 그랬는데 공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고 달마 대사한테 양 무제가 물어보니까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처님은 아실 것이니까 우리 아버지 천도시켜 주세요." 하고 갖다 준 돈이 바로 그분이 다시 태어날 때 통장을 해 가지고 나오는 그 돈이 돼 버렸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분하고 마음이 둘이 아니게 되어서 그분도 그냥 한 찰나에 부처의 도리를 알게 됐으니 부처님이 됐고 보살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돈은 그렇게 공덕이 됐으니 그냥 그분의 무의 통장이 돼 버렸어요. 유(有)의 통장이 아니고 무(無)의 통장 말입니다. 그 무의 통장이 미래의 유의 통장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이 도를 깨쳐서 나올 사람을, 즉 말하자면 미륵보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재림하신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지금 그냥 생활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도 마음이 그만큼 그렇게 됐으면 벌써 그건 보살이요 부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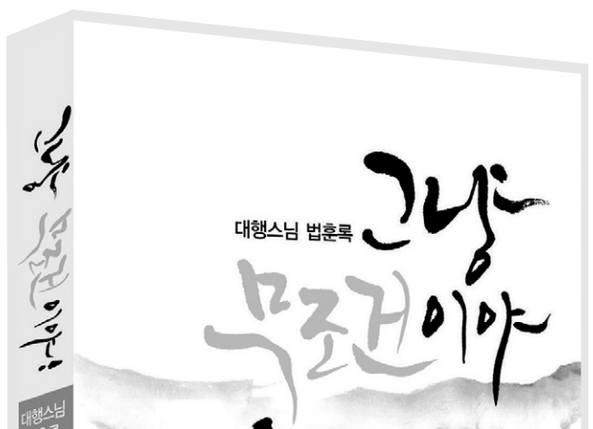
바깥으로 끄달리면서 '내가 보시를 했으니까….' 이러면서 아무개는 얼마 했고 아무개는 얼마 했고 이렇게 주렁주렁 써 붙인다면 어떻게 자기 미래의 통장을 갖겠습니까? 그러니 공덕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사러 가서 '이 돈은 내가 줬으니까 내 돈이요.' 하고 돈을 쥐고 있으면 물건을 주지 않습니다. 돈을 가져와서도 '요 돈을 내가 갖다 줬으니까' 하고 항상 생각하고 있다면 돈을 못 받았으니까 가게에서 물건 주는 사람이 물건을 안 주죠. 돈을 만져 보기만 했지 그게 준 돈입니까, 어디? 이거는 '아주 너 써라.' 이러고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이 시주를 하면서 함이 없이 하지를 않고 '시주를 하면 이 일이 이루어지겠지.' 요렇게 하고 보시한단 말입니다. 요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요걸 주고 끝끝내 줬다는 거거든요. 줬다고 아주 써 붙여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물건을 가져갈 수가 있어야지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 놓고도 "나는 이렇게 주인공을 믿고 이랬는데도 안됩니다. 믿었는데도 그렇거든요." 이래요. 믿긴 뭘 믿었습니까? 세상에 죽고 사는 것도 다 거기에 놓고 믿어 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진짜 믿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진짜 믿는다면 내일 죽으면 어떻고 오늘 죽으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내 자식이 금방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해도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어떤 사람이 묘지를 쓰고 나서 무척 앓았습니다. 그 집안의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자식들이 그냥 내리내리 자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소 묘지가 잘못됐다고 갖다 옮기려니까 돈이 없어서 산을 사지 못하는 거예요. 화장을 시켜 버린다니까 또 가족들이 야단들이고요. 그래서 "산을 사서 이쪽으로 묻자니 돈이 없고, 그냥 놓아 두자니 자꾸 집안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어쩌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날더러 그런 소리를 했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거기에 산소 잘못 썼다고 할 게 아니라 그 의식 자체만 딱 들어내면 그거는 그냥 고깃덩어리고 흙덩어리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탁 오는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주인공에 그냥 놔 버리면 될 것을…. 스님, 죄송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그러곤 울면서 가더니 그 뒤에 그 집안이 다시 일어섰어요.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달린 겁니다.

질문하실 분 없으면 그만 일어날까요? 여러분, 앞으로 열심히 해서 새달이나 또 훗달에도 그렇고, 같은 도반으로서 항상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우리 자유권을 얻읍시다.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1989년 10월 1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그냥 무조건이야



불자 세상보기

이강렬
극작가 · 한국문인협회상임이사

젊은 패기로 세계와 소통한다

올해는 한국전쟁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폐허의 기억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그 시절은 매우 가난했다. 오죽했으면 에티오피아나 필리핀 같은 나라의 원조까지 받아야 했을까. 그런 나라가 식민지와 전쟁의 역경을 딛고 경제대국으로 도약했다. 실로 기적 같은 일에는 우리 젊은이들도 한 몫을 했다. 이제까지 여리고 나약해 보이기만 하던 세대들이 최근에는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끌어 내고 있다.

남아공 월드컵에서 한국선수들이 보여준 투지와 열정은 지방선거,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이어진 상반기의 답답함을 한꺼번에 씻어주었다. 최근에는 젊은 태극 낭자들은 남자 선수들이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가는데 성공했다. 우리나라가 U-20라는 20세 이하 여자 축구대표팀이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 월드컵에서 사상 처음으로 3위에 올랐다. 준결승전에서 남미 강호 콜롬비아에 승리를 거두면서 기분 좋은 승리를 안겨 준 것이다. 한국은 유럽, 남미, 북중미, 아프리카 등 각 대륙을 대표하는 팀들을 모두 꺾는 진기록도 세우며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대회를 마무리 지었다.

비록 큰 나라는 아니지만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민족이 누구일까. 스케이트, 골프, 수영 등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사이버 외교사절단으로 불리는 '반크(VANK)'의 역할도 눈길을 끈다. 동해의 표기를 바로잡는데 많은 공헌을 했고, 미국 뉴욕의 심장부에 등장한 독도와 동해 광고로 이어졌다. 분단국인 한국의 젊은이들이 지구촌의 곳곳에 뛰어들어 진실과 희망을 외치는 것만으로도 충분이 이미지를 끌어올릴 수 있었다. 그들은 그저 우리의 역사적 사실이 제대로 알려질 수 있다면 자신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라고 했다. 확신을 갖고 끊임없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려는 노력이 지금의 영향력을 만들어 준 것이다. 분명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세상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들은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비보이, e-스포츠 등 새로운 문화 콘텐츠에서도 선두를 달리며 부(富)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브레이크 댄스 그룹인 비보이는 국제대회 마다 우승을 휩쓸어 세계 최강임을 보여준다. 오죽하면 지구촌의 지망생들은 한국을 성지로 여기고 기술을 연마하고자 찾아올까. 그래서인지 서울 신촌의 홍익대학 앞 비보이 공연장은 연중 성황을 이룬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길거리에서의 취미활동으로 시작한 브레이크 댄스는 어느새 공연산업의 콘텐츠로 성장한 것이다.

또한 한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온라인 게임 산업의 종주국이다. 컴퓨터 게임을 겨루는 e-스포츠 산업에서도 한국은 세계 최초로 프로 게임단을 탄생시켰고, 대회와 선수 그리고 기업과 미디어를 체계적으로 가능케 하는 모델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창안해 내기도 했다. 한류도 최근에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그 잠재력은 세계가 인정한다. 비언어극(非言語劇)인 '난타'나 '점프'를 보려고 외국인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고 지난 해 한류와 관련된 문화상품에서 얻어지는 효과는 경제적인 수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지금 세계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올림픽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당수의 세계인들은 유일한 분단국, 대립적 노사관계, 중국과 일본 사이의 작은 나라 등 부정적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 사실이다. 어떤 국가를 연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매우 중요하다. 그것들을 극복하고자 헌신하는 젊은이들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언뜻 보기에 당돌하고 버릇없어 보이기도 하던 이들에게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축적된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개성이 뚜렷한 그들만의 독특한 창의력과 열정은 남이 가지 않는 자신들만의 세계를 창조했다. 이즈음 그들이 좀 더 다양하게 자신들의 에너지를 발산해 낼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한층 요구된다.

사 설

군부대 이전해도 법당은 유지해야 한다

군부대 이전에 따른 군법당 유지 대책이 시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지만 해당 종단과 교구에서 적절한 대책 수립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의 취재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건설 계획에 따라 성남에 있던 특수전사령부 등 7개 군부대가 이천 등으로 이전한다. 2012년부터 이전을 시작한다.

부대가 이전함에 따라 군부대 부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다. 군부대 부지는 택지 또는 근린공원 등 공공시설이 들어선다. 불자장병들과 부대 인근 주민들의 신행의 중심이었던 법당이 없어지는 것이다. 장병들은 이전된 부대를 따라가면 되지만, 지역주민들은 둥지 잃은 새처럼 귀의처를 잃어버리게 된다.

군법당은 국방부 소유의 부지에 법당으로 활용할 건물을 불교계에서 지어 국방부에 기부체납하는 형식으로 세워지므로 부대가 이전하면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법적인 현실이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어선 안 된다. 종교부지로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법당 부지의 매입 또는 임대를 추진해 신앙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매입하거나 임대할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례신도시 예정 지역은 내후년부터 이전하니 곧 종교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자들을 위한 공간조차 없는 곳이 된다. 종단이나 교구에서는 그 밖의 군부대 이전 계획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 내에 기부체납 사찰 환수특위가 구성되어 있다. 특위에서 실태조사도 했다. 총무원과 군종교구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하고, 종도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무례한 개신교 사과해야 한다

칭찬을 할 때에도 적절한 방법이 있다. 하물며 비판을 하려면 예의를 갖춰야 한다. 예의도 갖추지 않고, 사실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말을 삼는다면 이는 비난이며 폄훼이다. 7월 중순 개신교계의 몇 단체가 일간지 광고를 통해 불교계를 비난, 폄훼했다.

광고에 적시된 내용을 보니 너무 어이가 없다. 불교계가 조선총독부로부터 토지를 받았다는 데에 이르러서는 상식을 의심케 할 정도다.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일간지 광고를 통해 세상에 유포했으니 이만저만한 무례가 아니다. 조계종 총무원이 종교지도자협의회를 통해 사과를 요청했음에도 해당 개신교단체는 입을 다물고 있다.

개신교계의 몇 단체가 불교 폄훼를 공공연히 자행하는 것에 대해 문화재 보수와 템플스테이에 지원되는 정부예산을 줄이려는 의도를 실행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개신교신자인 유인촌 문화부장관이 템플스테이를 전통 문화콘텐츠로 인식하지 못하고 불교계의 사업으로 바라보는 좁은 시야를 드러냈듯 문화유산을 불교로 등치시키는 개신교계의 소아적인 인식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개신교계의 정중한 사과를 요구하며, 동시에 개신교를 상대로 맞대응하기보다는 불교계의 목소리에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종교갈등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신중해야 하며, 지혜로워야 한다.



사부대중 칼럼

민정희
前 로터스월드 국제교류팀장

한국불교의 해외교류 제언

197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한일불교간 학술문화교류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었던 한국불교의 해외교류는 1992년 한 · 중 수교와 더불어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중국,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몽골 등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한 · 중 · 일 3국 불교 교단과의 교류를 제외한 교류활동은 대부분 종단차원의 공식 교류활동이 아닌 한국스님들의 개별적인 유학 또는 상대국가 스님들의 한국체류 및 한국 사찰의 현지불교 기관 또는 사찰에 대한 지원시업에 머물러 왔다.

한편, 참여불교재가연대, 정토회, 우리는 선우, 불교여성개발원과 같은 불교시민단체들은 인적 · 학술문화적 교류 또는 개발도상국 불교단체에 대한 지원을 넘어서 2003년 참여불교세계대회, 2004년 세계여성불자대회의 한국 개최 등을 주도함으로써 국제적인 참여불교운동 단체들과의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고 인권 실현, 빈곤과 부의 균등, 분쟁종식과 평화, 환경문제 등 인류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전세계 불교도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하였다.

1990년대 JTS가 인도 보드가야에서 시작한 개발사업은 2000년대 아프가니스탄, 필리핀으로 확대되었고, 이후 지구촌공생회, 로터스월드, 조계종사회복지재단, 경불련의 이웃을돕는사람들 등 불교국제개발단체에 의해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스리랑카 등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졌다. 이들 불교개발단체들의 활동은 해당 지역의 소외계층과 아동에 대한 교육, 보건환경 개선, 자활, 식수지원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사업이자 불교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현지 불교기관과의 교류나 지원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 밖에도 조계종 산하 마하이주노동자대책위와 같은 단체들이 추진해온 국내 거주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사업도 또 다른 의미에서 교류활동이라 할 수 있다.

한국불교의 해외교류 사업은 상호신뢰를 통해 불교문화간 이해를 높이고 상대방 문화의 장점을 받아들여 자국의 불교전통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현지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불교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교류의 취지와 목적이 분명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다른 종단이나 사찰, 단체에서 하니까 따라 한다는 식, 또는 구색맞추기 식으로 추진되어서는 곤란하다.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을 구체화할 때만이 교류사업이 일회성 이벤트가 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인류가 보편적으로 지녀야 할 가치 또는 불교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교류의 원칙을 세워나가야 한다. 예를 들면, 인권과 종교자유의 보장, 평화 실현과 같은 원칙 말이다.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가 한일불교간의 학술문화 교류차원에서 30년 이상 추진되어 왔지만, 일본불교의 한국인징용자 유해 반환과 조선침략에 대한 사과를 이끌어낸 것은 평화에 대한 불교적 원칙을 지켰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 교류 당사자끼리 시급한 공동의 실천과제를 선언적 차원을 넘어, 구체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필자가 현재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아시아 개발도상국가에서 엄청난 자본력을 갖고 개종을 강요하고 있는 한국 개신교의 무분별한 선교활동에 대한 대응이다. 개신교 선교행위로 인하여 개발도상국가의 전통문화가 위협받고 있다.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만 한국교민 1000명 가운데 700여 명이 선교사라고 한다. 또한 현지 주민을 위하여 무료로 운영되는 프놈펜의 한 개신교병원에 종사하는 한국인 의료진이 6명이다. 개신교의 공격적인 선교활동은 비단 캄보디아만이 아니라 스리랑카, 몽골, 라오스, 인도 등 아시아 전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러므로 아시아의 다른 국가보다 비교적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 한 · 중 · 일 3국의 불교종단 만큼은 개신교의 아시아 선교문제에 관심을 갖고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해당 국가들이 자국의 전통문화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해외교류라고 해서 해외로만 눈을 돌리지 말고, 국내에 있는 이주노동자 지원, 또는 아시아 국가 출신 난민에 대한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할 일이다. 이렇게 해외교류가 확대되는 시점에서 불필요한 사전 답사 또는 중복지원과 교류를 피하고 보다 신뢰할만한 객관적 교류 대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종단 또는 종단협의회 내 관련 부서의 지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양성이 시급하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팔꿈치 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 통증

글로코에이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싹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코에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코에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괜찮아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엘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클로코에이크림을 발라주겠다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움직이기만 하면 통증이 오던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골프를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괜찮지만 골프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120㎖×2개. 1set 가격 30,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풍치 아픈이 치염 입냄새 등 7일이면 깨끗



7일만 닦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그러면 치아로 인한고통은 없으실거예요.

사람들은 이가 아플 때마다 확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 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 연구 끝에 2006년 4월 28일 미합중국 발명대회 特許 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 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 · 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 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윤택을 내며 하얀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해본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 50,000원
金剛닥터사 / 전화 : 02) 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전 세계인 식탁을 사로 잡은
황금맛버섯
재배단지 분양



황금 수익률에 주목하십시오

- **투자 안전성 확보** 투자금액에 대한 은행 CD발행!
- **높은 고수익 보장** 투자금액 대비 연수익 20~60%!
- **수익금 안전 장치** 재배시설물에 대한 지상권 설정!
- **매월 수익금 지급** 5년(60개월) 내내 매월 일정금액 지급!
- **넓은 소비시장 확보**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공급 판매!

황금맛버섯 재배단지 선착순 300분 특별 분양!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 잡을 만큼 맛도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놀라운 수익률과 안전성까지 보장하는 황금맛버섯에 투자하세요
가족도 투자도 모두 건강해집니다

문의 1566_6936 24시간 상담합니다.

맛도 건강에도 좋은 황금맛버섯(맛송이버섯)

- 배지 재배기간과 생육기간이 단기간이라 **재배가 편이**
- 일본에서는 쫄깃한 맛을 자랑하는 '**맛버섯**'으로 대중화
- **암세포 발생 억제율이 87%**가량으로 알려진 기능성 버섯

대형마트 백화점 **납품중**

버섯영농조합 투자상품 안내

구 분	분양금액	투자기간	특 이 사 항
상품 1	1,980만원	5년	시설물 지상권 설정
상품 2	3,980만원	5년	일부 금액 CD 발행
상품 3	5,400만원	5년	전액 CD 발행 or 지급보증서 발급

차순경 조합장 액체 종균배양 기술 상용화 성공



1995-2009 상주 영농조합 대표이사 역임 / 상주 미생물연구소 대표이사 역임
1998-2002 영남버섯 협회 회장 / 상주 버섯발전 연구회장 / 전국 새송이버섯생산자협회장
1998-2001 국립 한국농업대학교 현장교수 및 강사
1999 상주시 신지식인 선정 (분야: 버섯 / 사례명 : 액체종균 배양기술 개발)
1999-2000 사단법인 전국 생산자협회(병버섯 분과 위원장)
1999-2001 국립 상주대학교 균이학 버섯학 강사
2000-2003 CANADA ENVRO MUSHRROOM FARM 기술자문위원
2007-2008 경북 버섯연구회 회장 / 現 경북 버섯협회 고문
2010 ~ 現 부현농산 기술고문, 부현바이오 기술고분, 중국북경 GT-BIO TECH CO. 기술고문

제조사 ㈜부현농산 | 주관사 중소기업진흥교육원(주) | 업무취급 우리은행